

아름다운 인생, 정겨웠던 인연들

- 신동인 자서전 -

신동인

-
- | | |
|--------------------|-------------------|
| 책 머리에 | 17. 기쁜 소식 |
| 축사 | 18. 마을 이장 |
| 1. 세상에 오다 | 19. 농지개량조합 |
| 2. 단란한 가족 | 20. 27친목회와 총동문회장 |
| 3. 대동아전쟁과 입학 | 21. 화랑 신악회 |
| 4. 환희와 열광의 광복 | 22. 새마을 문고회장 |
| 5. 졸업과 입학 | 23. 상산축전과 군민대상 |
| 6. 비극의 6.25 | 24. 넓은 세상 캐나다에 가다 |
| 7. 인민공화국 | 25. 생겨진천. 사거용인 |
| 8. 눈보라치는 피난 | 26. 명심보감을 강의하며 |
| 9. 약제사와 입학 | 27. 한문학과 인성교육 |
| 10. 군에 가다 | 28. 토끼의 해 신묘년 |
| 11. 가락국의 수도 김해의 추억 | 29. 진천도서관 |
| 12. 천생연분 | 30. 진천노인복지관 |
| 13. 주경야독 | 31. 배은 망덕 |
| 14. 첫 생남과 서울행 | 32. 팔월 한가위 |
| 15. 가톨릭 가족이 되다 | 33. 성묘 |
| 16. 뿌리를 돌아보며 | 34. 마무리 하며 |
-

책 머리에

추울 때나 더울 때나 앞만 보고 달려왔던 꿈 많은 세월들이 쌓여 어언 고희(古稀)를 넘어 산수(傘壽)를 바라본다.

이쯤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숨을 고르며 이제까지 걸어왔던 지난 세월들의 발자취를 잠시 되돌아 보고자한다.

지난 세월 어른들 밑에서 늘 위만 올려보며 살았던 게 엇그제였는데 이제 내 위로는 아무도 안 계시다.

생각건대 반세기 이전의 역사 속에 깊이 묻힌 옛 추억들을 지금 내가 얼마만큼 끄집어내어 재생 시킬 수 있을는지 의문이다. 가정사에서의 지난 일들을 고증해 주실 분도 안계시다. 무상한 세월의 흔적을 느끼게 한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경함만큼 좋은 교훈은 없다. 그러나 모든 분야의 일들을 다 스스로 경험 하기란 쉽지 않기에 사람들은 대부분 남의 경험이나 책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얻는다.

그런 의미에서 작으나마 내가 걸어왔던 삶의 흔적들을 간추려 엮어서 후손들에게 다소나마 법고창신(法古創新)과,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삶의 교훈을 들려주고자 이 글을 쓴다.

다행이 나는 지금 가진 게 많다.

돈이나 재산이 많다는 얘기가 아니다, 아직 활동에 지장이 없는 건강이 있고, 늘 옆에서 내조해주는 아내와, 그리고 장성한 여섯 명의 아들, 며느리들이 내 인생의 든든한 후원자들이다.

이 글을 쓰며, 그동안 온갖 어려운 고비를 함께 헤쳐 가며, 평생을 함께 해온 사랑하는 아내와, 그리고 아들, 며느리에게 무한한 사랑과 고마움을 표한다. 아울러 한여름 삼복더위에 推敲를 위해 애써준 제자 金仁子씨 그리고 봉은회 선생님과 평생학습센터 어재영 선생님께도 고마움을 표한다.

2011년 8월 15일
청포도 익어가는 팔월
충북 생거진천에서
송학 신동인

축 사

깊이 머리 숙여

명심보감(明心寶鑑)을 펼치면 첫 머리에 나오는 계선편(繼善篇)의 선행에 대한 글귀가 항상 생각난다.

자왈(子曰)위선자(爲善者)는 천보이이복(天報而以福)하고 위불선자는(爲不善者)는 천보이이화(天報而以禍)니라. 공자가 말하였다. 선한 일을 하는 자는 하늘이 복으로써 갚아주고, 악한 일을 하는 자는 하늘이 재앙으로써 갚아주느니라. 한소열(漢昭烈)이 장종(將終)에 칙후주왈(勅後主曰) 물이선소이불위(勿以善小而不爲)하고 물이악소이위지(勿以惡小而爲之)하라. 한나라 소열이 장차 임종하려 할 때에 후주 유선(後主劉禪)에게 조칙을 내려 말하였다. 선행이 작다고 하지 아니치 말고, 악한일이 작다고 하지 말라.

선생님과의 첫 만남의 글귀가 선행편이었고, 아름다운 글귀란 생각도 들고 부족하지만 늘 가슴에 새겨두는 말이다. 선생님을 만난 지도 어언 20년이란 세월이 흘러 강산이 두 번이나 변했고, 큰아이가 유치원생이었을 때 처음 만났었는데 벌써 대학생이 되었으니 꽤나 오랜 세월을 지냈으며 이제 영원한 스승님으로 모시게 되었다. 한 번 스승은 영원한 스승이니까.

한학을 하신 훈장님께 명심보감(明心寶鑑) 격몽요결(擊蒙要訣) 사자소학(四字小學) 동몽선습(童蒙先習)등을 배우면서 처음만남을 이월 도서관에서 갖게 되었고, 다음 해에 진천도서관에 한문반(漢文班)을 개설하고 강사님으로 소개해드리면서 사제의 끈끈한 인연을 맺은 것이 오늘에 이르렀다. 초등학교방학숙제로 가족이름을 한자로 쓰게 된 것이 지금까지 한문을 좋아하게 된 동기이고 스승님으로 모시는 행운을 갖게 해 주었다. 늘 부족한 제자인데도 항상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격려해 주신다. 아직은 미흡하고 부족한 실력으로 교정도 보아 드리고 자서전을 쓰시는데 도움이 되고자 노력했다.

국어국문학을 전공하게 되어 또다시 훈장님께 한문을 배우러 찾아갔

고, 미력하게나마 맞춤법과 띄어쓰기 등을 도움 주고자 노력했다.

선생님의 잔잔한 인생사를 엿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또한 감동이 아닐 수 없다. 산수를 바라보는 연세임에도 불구하고 무더운 여름 회고록을 써내려가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참으로 존경스럽다. 글을 쓰는 작업이 어렵고 힘이 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한권의 책을 완성시키고자하는 일념으로 구슬땀을 흘리신 훈장님께 진심으로 존경을 표한다.

부족한 제자임에도 항상 귀를 기울여 주신 스승님께 깊이 머리 숙여 지면을 통해 감사를 드린다. 포기하지 않는 열정과 정열에 감동을 느끼고 제자로써의 보람과 뿌듯한 마음을 갖는다.

스승님을 비롯한 모든 인생을 보람 있고 멋지게 살아가는 분들에게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린다.

자서전 집필에 전념하시는 선생님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비는 마음 간절하다.

끝으로 찾아 뵈 적마다 환한 미소로 반겨 주시는 어머니처럼 따뜻한 사모님께 지면을 통하여 감사드린다.

선생님을 위해 헌신적인 삶을 살아오신 사모님을 존경하고 두 내외분 오래도록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빈다.

2011. 9. 추석
제자 龍湖 김인자

인생의 롤 모델인 우리 아버님께

제가 처음 결혼해서 아버님께 인사드리러 온 그날, 저는 어렵기만 했는데 아버님은 어찌 그리 기뻐하시던지요,

아들만 있는 집으로 딸이 꼭 있었으면 하셨다면 저를 친딸처럼 사랑 해주셨지요.

따뜻한 어느 오후에 제가 시골로 시집와서 심심 할 것 같다며 저를 오토바이에 태우시고 진천 장에 가서 맛있는 것 사주시고 오는 길에 만나는 동네분마다 우리 며느리라고 자랑해주시던 따뜻한 기억은 제가 순간순간 힘들 때 지켜주는 힘과 추억이 되었답니다. 지금은 멀리 떨어져 있

어 아버님을 자주 뵙지는 못하지만 항상 은유 하시고 연세가 드셔도 끊임없이 새로운 것에 도전 하시는 아버님을 뵈 볼 때 저도 꼭 아버님처럼 멋지게 나이를 먹고 노후를 보내야겠다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아버님의 자서전 출간 소식에 이 큰머느리는 굉장히 기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아버님께 존경심을 표하고 싶습니다.

2011. 9.

큰머느리 하미정

나에게도 스승이신 우리 할아버지

저의 할아버지께서는 많은 분들의 한문 선생님이십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인생의 스승이자 할아버지이십니다. 언제나 인자한 미소를 머금으신 모습으로 우리 손 자녀 들을 사랑으로 이끌어주십니다.

할아버지는 종갓집 종손으로 조상의 봉제사를 맡아 집행하시고 집안 대소사를 책임지고 일하십니다.

저희들에게도 책임감 있고 예의바른 학생이 되라고 인성을 심어주시는 할아버지께서 자서전을 쓰신다는 소식에 기쁨과 함께 존경심을 감출수가 없습니다.

항상 남에게 양보하고 자신의 것을 아끼시지 않는 삶을 살아오신 할아버지의 인생을 읽어 내려가며 여러분들 모두 잠시나마 따뜻한 마음과 지혜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누는 정과 가르치는 덕을 지니시고, 긴 말보다는 실천의 교훈으로 가르쳐주시는 할아버지이시기에 저 또한 항상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마음에 새겨진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예쁜 손녀딸로 할아버지 곁에 있고 싶습니다.

할아버지의 자서전 출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존경심을 표하며 항상 건강 하세요 할아버지 사랑합니다.

2011. 9

손녀딸 선화

1. 세상에 오다

때는 1934년 갑술년 한해가 저물어 가는 설달 스무여드레 어머니는 새해 설 차례 음식을 준비하시느라 두부콩 한말을 다 갈아 놓으시고 새벽 먼동이 흰히 틀 무렵 앞산과 뒷산이 높이 솟은 계곡 사이로 맑은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언덕 위 양지 바른 쪽에 남향으로 자리한 초가집에서 나를 낳으셨다.

여기는 백두대간에서 가지 쳐 나간 차령산맥 등줄기 위에 웅장하게 틀어 앉은 무제봉 명산의 정기를 받은 충청북도 서북쪽 끝자락 경기도 안성 땅과 접경을 이룬 곳이다. 흔히 예로부터 복 받은 땅 복 받은 사람들이 사는 고장 생겨 진천 이월면 신계리 어당(新溪里 魚堂)이라 이르는 마을이다.

마을 이름이 말해주듯 수정처럼 맑은 물속에 때 묻지 않은 물고기들처럼 순박한 시골 사람들이 봄에는 밭 갈아 씨 뿌리고, 여름밤엔 마당에 멍석 깔고 하늘에 별을 헤며 수박 참외 깎으며 오순도순 옛이야기 나누던 정겨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에서 고려국 개국공신 고려태사 장절공 평산 신씨 신송겸(申崇謙) 시조로부터 35세손 申東仁이 아버지 신영철 어머니 연일정씨 사이에서 7남매의 장자(長子)로 태어났다.

만(萬)자 희(熙)자 고조부님은 손이 없어 괴산 불정에서 혁(赫)자 균(均)자 증조부께서 양자로 오셨는데 이 어른이 오늘이 있기까지 우리 집 안을 일으켜 세워주신 중시조 어른이시다.

증조부(曾祖父)께서는 증손자인 나의 출생을 누구보다 기뻐하시며 너는 동방예의지국(東方禮儀之國)에 태어났으니 착하고 어질게 한평생을 살라하시며 동녘東자 어질仁자로 東仁이란 이름을 지어주셨단다.

증조부께서는 원래 학문에 조예가 깊으셨을 뿐더러 성품이 온화하고 인자하시어 많은 학자들과 교류가 많아 사랑에는 늘 갓 쓰고 도포 입은 선비와 학자들의 출입이 빈번했다.

또 증조부께서는 모든 낡은 것들을 개조하고 혁신하셨다.

이제까지 우리가 살던 집이 낡아 아랫마을에 집터를 넓게 닦고 마을에서 제일 크고 웅장한 한옥을 새로 지으셨다. 넓고 큰집 아래 뒷방에는 겹

으로 골방이 드리워져 있어서 어머니는 늘 여기 골방에서 베를 놓고 달그닥 달그닥 베를 짜셨다. 안방 아랫목 쪽엔 이층 누다락이 있어서 진품 명품 가재도구들이 진열되었고 가끔은 우리 형제들의 숨바꼭질 놀이터이기도 했다. 아래위방과 사랑방 사이에는 큰 대청마루가 있었는데 수십 명씩 앉아 놀았고 가끔은 마을 회의 장소가 되기도 했다.

대청 안쪽에는 조상의 위패를 모신 사당이 자리하고 있어 설이나 추석 명절 그리고 기제사를 모실 때에는 대소가 종친들이 함께 모여 제사를 지냈다. 한겨울 밤 제사를 지낼 때에는 차가운 마룻바닥에 발이 시려서 발을 동동거리고 비벼가며 제사를 지냈던 기억도 아련하다. 대청마루 옆으로는 사랑방이었는데 할아버지께서 쓰시는 방으로 손님들의 접객실 이어서 손님들이 늘 장기, 바둑을 두시곤 했다. 사랑을 건너서는 뒷마루가 있어 여기서는 할아버지께서 기계 새끼틀을 놓으시고 가끔 새끼를 꼬시며 소일 하셨다.

2차 대전 말기 왜놈들은 전쟁물자로 쓰기위해 모든 농가에 가마니 치기를 독려했고, 농가마다 호당 수백 매씩의 가마니 매수를 할당하여 배당된 숫자를 채우지 못하면 엄청난 고통을 가했다. 한겨울 밤마다 면서기와 경찰들이 동네를 집집마다 순회하며 가마니를 치지 않으면 몽둥이를 들고 다니며 눈길에 끌어내어 패대기도 했다. 그런 와중에 우리는 가마니 대신 기계새끼틀을 사다 할아버지께서 새끼를 꼬셨다.

내가 꼬마였을 때는 할아버지께 진지를 여쭙러 이곳 사랑방을 뛰어다니며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마다 뒤에 딸아 오시던 할아버지는 우리 손자 왔나 하시며 나를 번쩍 안고 안방으로 들어가셨던 기억도 난다. 조식 때는 온 가족이 아랫방 한자리에 모여 웃음꽃을 피우며 단란한 식사를 하였다.

넓은 마당 건너편에는 안채를 마주보고 11자 형식으로 행랑채가 가로 놓여 있었다. 큰 대문 옆으로는 일 년 농사를 지어 저장하는 토광이 있었고, 그 옆 창고에는 쌀, 보리, 조, 같은 일용 양식을 저장하는 곳 이었다. 그 옆으로는 외양간 이었는데 거기는 늘 순둥이 누런 암소가 주인 노릇을 하며 지키고 있었고, 매년 송아지를 한 마리씩 낳아서 우리형제들의 등록금이며 가게에 도움을 주는 복덩이 놈이었다. 그 때 나는 그 순둥이

놈의 식사당번이어서 저녁나절이면 동네 또래 아이들과 같이 매일 쇠꼴을 베리 다니곤 했었다.

그 옆에는 돼지우리가 있었는데 검고 큰 돼지란 놈이 팔자 좋게 늘어져 자다가 배고프다고 소프라노 노래를 불러 대곤하면 어머니는 쌀뜨물에 겨 한바가지를 타서 부어 주면 허겁지겁 잘도 먹던 놈이었다. 어느 해 봄인가 돼지가 새끼를 낳아 뿔 무렵 오랜만에 외할머니께서 다니러 오셨다. 나는 5학년인가, 봄 방학을 맞아서 망태기에 돼지새끼를 담아서 어깨에 띄고 외할머니를 따라 걸어서 진천을 지나고 문백 뒷산 고개를 지나서 도명골 외가에 도착하니 삼사월 긴긴 해가 누엣누엣 넘어갈 무렵이었는데 그때 갓 시집온 외숙모께서 노랑저고리에 빨강치마를 입고 냉이를 한바구니 캐어 들고 들어오시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히 비치는 것 같다. 그 외삼촌댁도 지금 아마 팔십이 훨씬 넘었을 게다.

그 당시 우리는 대가족이었다.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삼촌, 내외, 우리들 7남매, 그리고 며슴, 까지 해서 열추 열대여섯 가족이었지만 단란하고 늘 웃음이 떠나지 않고 화목하게 살았다.

넓은 마당 윗 쪽에는 깊은 샘이 있었는데 물맛이 아주 일품이어서 누구든지 마시는 사람마다 이구동성으로 ‘아 물 맛 좋다.’ 라고 하는 소리를 늘 들었다.



踏雪野中去 不須胡亂行
今我 行績 遂作 後人程

-혜초-

눈 덮인 들길 걸어갈 때 모름지기 함부로 걷지 마라.
지금 나의 행적이 드디어 뒷사람의 길이 되리니.

2. 단란한 가족

당시 우리 마을은 50여 호 큰 마을이었는데도 우물이 있는 집은 우리 한 집 뿐 이었다. 평소에는 모두들 시냇물을 식수로 길어다 썼는데 비가

와서 냇물이 홍수가 지든가 하면 동네 아낙들은 물동이를 이고 우리 샘으로 와 물을 길어가곤 했다. 여름이면 손발이 시리도록 물이 차갑고, 겨울이면 샘에서 김이 무럭무럭 올라오며 훈기가 돌았다.

샘가에는 큰 유월도 복숭아나무가 있었는데, 여름이면 붉고 탐스러운 복숭아가 주렁주렁 열려서 많은 가족들이 먹고도 남아 장에 내다 팔기도 했다. 넓은 담 안으로는 감나무들이 여러 주가 둘러져 있어서 가을이면 빨간 홍시들이 한 폭의 동양화처럼 운치가 있었다.

서리가 올 무렵이면 감을 따다 항아리에 넣고 끓는 물을 부어 하룻밤을 재워 우려내어 어머니는 이 감을 광주리에 담아 이고 40리 길을 걸어 안성 장에까지 내다 파셨다.

증조부께서는 내 어머니인 손자며느리를 끔찍이도 아끼고 사랑하셨다. 그래서 대문 밖에 디딜방아를 만들어 힘을 좀 덜 들이고 벼 방아 보리방아를 찧게 하셨다.

증조부께서는 이렇게 가족을 위한 일이라면 매사에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혁신적이셨다. 반면 조부님께서는 당시 동네 구장 일을 보셨는데 성격이 증조부님과는 달리 매우 괄괄하시고 활달 하시고 애주가 이셨다.

내가 어릴 때는 가끔 나를 등에 업고 개울 건너 주막집에 가시면 모여 있던 많은 사람들이 허리를 굽혀 샌님 영감님하며 조아렸던 모습이 기억난다. 나를 주막집 마루에 내려놓으면 주막집 아주머니가 나를 번쩍 치켜 안으며 귀여워하시며 먹을 것을 손에 쥐어 주곤 했었다.

그 후에 할머니한테 들은 얘긴데 그때 할아버지는 그 주막집 아줌마를 펴 좋아 하셨단다. 할아버지 등에 업혀 주막집에 가면 그 집에 동갑내기 길성이란 친구가 있어서 친해져 초등학교에 같이 입학해서 나중에는 동창생이 되었다. 한번은 그 친구가 여름방학 때 인천에 사는 제 큰누님 댁에 갔다 오면서 가져온 신기한 선물 보따리를 열어 보이며 나한테 자랑을 했는데, 그때 그 신기한 물건을 본 게 끊어진 백열전구 몇 개였다. 그 당시 어린나이에 그런 동그랗고 예쁜 유리제품은 태어나서 처음 보는 물건이었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갖고 싶어서 하나 달라고 애걸복걸해도 그 높은 끝내 그것을 하나도 주지 않던 엄청 구두쇠 놈이었다. 그런데 그놈도 학교 졸업 후 제 큰누님 따라 인천에서 청과상을 해서 돈을 많이 벌

었다고 하는데 연전에 세상을 뒀다. 이렇게 좋은 친구들이 하나, 둘, 곁을 떠나니, 옛날 고향 얘기할 상대가 없게 되어 주위가 허전하고 슬퍼진다.

이렇듯 손자인 나를 무척이나 귀여워 해 주시고 아끼시며 등에 업고 다니시던 할아버지께서는 내가 열 살이 되던 해 이른 봄 강남 갔던 제비가 봄소식을 알리러 온다는 삼월 삼짇날 오랜 투병 끝에 해방된 조국을 끝내 보지 못하시고 세상을 떠셨다

나보다 일곱 살 위인 삼촌은 그때 6학년이었는데 학교에서 늦게 돌아와 책보를 내던지고 어른들 틈에 끼어 흐느껴 울던 모습이 기억난다.

물론 그 삼촌도 지금은 안계시다. 할아버지 닮아서 성격이 괄괄한 삼촌은 집에서 내가 고분고분 하지 않는다고 가끔은 티격태격 했지만 학교에서는 늘 나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시었다.

50대 초반에 이렇게 조부님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시고 혼자되신 할머니는 친정이 안성 공도 땅의 해주오씨 집안이었는데 어려서 일찍 어머니를 여의시고, 어린 남매가 계모 밑에서 비둘기처럼 지내다 우리 집으로 시집 오셔서 2남 2녀 4남매를 두셨는데 맨 위 큰고모는 음성 금왕으로 출가하셨고, 다음이 장남인 나의 아버지시다. 다음으로 작은 고모는 인천으로 출가하시였으며 막내가 삼촌이었다.

할머니는 자그마한 체구에 사랑과 인정이 넘치셔서 우리들 손자 7남매를 두 살 터울로 젖 떨어져 나오면 할머니 빈 젖을 물리며 업어 키우셨고 진천이나 청주로 유학을 나가면 어디든 쫓아다니시며 밥하고 빨래를 해주시고 돌봐주셨다. 어찌면 우리 7남매가 오늘이 있기까지 지성으로 돌봐주신 성모 마리아 같은 할머니셨다.



衆好之 必察焉 衆惡之 必察焉

- 孔子 -

무리사람이 다 좋아해도 반드시 살피고
무리가 다 미워해도 반드시 살피보라.

3. 대동아전쟁과 입학

왜정 말기 대동아 전쟁이 한참 기울어져 갈 무렵 나는 할아버지 손에 이끌려 2km 남짓 거리의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그때부터 우리 세대들은 시련과 고통을 겪기 시작했다. 입학식이 있던 날, 초등학교 교정에는 일장기가 춘삼월 아침 쌀쌀한 찬바람에 필러였고, 신입생 환영사는 일본인 교장의 몫이었다. 그는 어린 학생들에게 바르고 굳센 훌륭한 일본인이 되어서 대동아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자고 열변을 토하며 떠들어 댔다.

창씨개명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우리도 히라다(平田)라는 일본인 성(姓)의 명찰을 달고 다녀야했으며 일본어를 국어인줄 알고 학교생활에서 일상용어조차 일본어를 써야했다. 어찌다 모르게 실수로 입에서 우리 한국말이 튀어나오면 호된 벌을 받게 되는데, 운동장 가에 지어놓은 가미다나 신전(神殿)앞에 몇 시간씩 무릎을 꿇리거나, 운동장을 몇 바퀴씩 뛰어 돌게 하는 등 가혹한 벌을 주어 어린 가슴들을 멍들게 했다.

매일 아침 2교시만 끝나면 학생들은 모두 삼과 광이를 메고 송충이 벌레들이 우글우글 들끓던 산비탈을 오르내리며 송탄을 캐는 것이 오후 일과였다. 이렇게 캐어 모은 송탄더미는 운동장 가운데 산더미를 이루었다. 그 송탄을 태워 나오는 기름으로 비행기 연료를 만들어 전쟁터로 보낸다고 들었는데, 그 후 그것들을 얼마나 실어다 얼마나 많은 기름을 짜서 전쟁터로 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얼마가지 않아서 일본은 패망하고 말았다.

그뿐인가 그들은 전쟁 무기를 만든다는 구실로 가정에서 밥을 먹고 사는 낫그릇, 낫수저, 심지어는 낫요강까지 쇠붙이란 쇠붙이는 모조리 강탈해 가는 악랄한 학정을 폈던 그들이다. 학교 운동장은 전시 식량을 증산 한다며 복판에 소로 길만 내 놓고는 모두 파서 밭을 만들어 곡식을 심었다.

수업 도중에도 미군 적기가 공습해 온다며 훈련 공습경보를 발령하면 학생들은 모든 수업을 중단하고 재빠른 동작으로 교실을 뛰쳐나와 일사분란하게 뛰어서 학교 뒤편의 큰 은행나무 밑으로 달려 가야했다. 폭탄이 터지면 빛에 의해 눈이 멀고, 폭탄 바람에 의해 고막이 터진다면, 두 손으로 눈과 귀를 막고 경보가 해제 될 때 까지 엎드려 대피하는 훈련이 거의 연일 계속되었다.

지금도 가끔 그 은행나무 옆을 지나노라면 옛날 왜정 때 생각이 떠오른다. 은행나무는 옛날 그 시절 수난의 역사를 다 지켜 봐 알고 있건만 아직껏 묵묵히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서있다.

그 은행나무는 우리지방 문화재로 지정됐는데, 아마 이 지역에 사는 생명체 중에는 가장 나이가 많은 어른 일게다.



愛人者 人恒愛之 敬人者 人恒敬之
願人之愛己者 必先愛人
-老子-

남을 사랑하는 자는 남들로부터 늘 사랑받고,
남을 존경하는 자는 남들로부터 늘 존경받는다.
남들이 나를 사랑해주기를 원하거든
반드시 먼저 남을 사랑하라.

4. 환희와 열광의 광복

이렇게 어둡고 긴 압박과 설움의 지옥 같은 식민지 터널을 지나는 동안 저들 일본은 드디어 천왕의 항복 선언을 마지막으로 패망하고, 역사적인, 1945년 8월 15일, 마침내 조국은 해방을 맞았다.

나는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었다. 내가 잠에서 막 깨어난 이른 아침 옆에서 벌췌 일어나 계시던 할머니는 날보고 ‘이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때 나는 해방이란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없었다. 할머니는 또 말씀하셨다, ‘어제 저녁에 주민들에 의해 일본 놈 교장이 몰매를 맞고 야반도주를 했다’ 고 하셨다. 나는 그게 무슨 청천 벽력같은 말인지 그저 어리둥절했을 뿐이다.

그때 그 교장은 우리에게는 할아버지 같고 신과 같은 존재였다. 그런 그가 주민들한테 몰매를 맞다니?

얼마 후 아침이 밝아오자, 이때까지 조용하기만 했던 온 마을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뛰쳐나와 ‘대한독립 만세’ 소리로 온 나라가 발각

뒤집혔다.

연이어 어디선지 풍물패들도 합세해 만세소리와 어울려 천지를 진동 시켰다. 먼 직원과 지식인들은 태극기를 그리고 또 기다란 한지에 즉석에서 ‘大韓獨立萬歲(대한독립만세)’라 붓으로 써서 땀을 흘려가며 깃대에 달아 나누어 주었다. 나도 동네 친구들과 같이 어른들 틈에 끼어 땀을 흘려가며 먼지를 뒤집어쓰고 태극기를 들고 열심히 ‘大韓獨立萬歲(대한독립만세)’를 목청껏 외쳤다.

가로수 미루나무 그늘 가지에서 낮잠을 즐기던 매미들도 놀라 깨어 사람들의 만세 소리에 질세라 목청을 가다듬어 ‘맴맴’ 큰소리로 다투어 가며 역세게도 울어댔다.

이렇듯 나라를 되찾은 기쁨에 온 나라가 흥분과 환호의 물결을 이루었지만 오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나라 살림이나 가정 살림이나 곳간은 텅텅 비었고 백성들은 너. 나 없이 초근목피(草根木皮) 조반석죽(朝飯夕粥)으로 겨우겨우 연명하며 살아야 했다. 땅 파서 곡식 심고 밭에는 목화 심어 무명 짜서 의식을 이어가며 자급자족(自給自足)해야 했다.

그래서 옛날 우리 할머니, 어머니, 아낙들은 뼈를 깎는 참담하고 눈물겨운 한평생을 그저 죽지 못해 가난의 한을 안고 눈물로 한세상을 사셨다.

설움 설움 해봐야 배고픈 설움보다 더 큰 설움이 무엇이 있을까?

지금 휴전선 넘어 저들 김정일 무리들처럼 ‘생전에 이밥에 고깃국 한 번 배불리 먹어 보는 것이 평생소원’ 이라는 저들처럼 그때 우리는 지금의 저들과 같았다.

지금 나는 그 식민지 시절의 억울하고 고통 받았던 일들을 회고하며 자문자답해 본다. 왜 우리 조국이 그런 치욕의 지경에 이르렀어야했던가?

조선왕조 500년 권좌에 앉아 허세부리며, 백성들의 복지는 뒷전이고 오로지 자리보존과 사리사욕에만 눈이 어두워 알량한 권력을 지키려고 감투싸움에만 급급했던 위정자들, 저 악랄한 일체에 조국을 넘겨줬던 그들이 참으로 밋고 원망스럽다.

이렇게 위정자가 무능하면 나라가 혼란하고, 나라가 혼란하면 험벗고 고생 하는 건 당연히 백성들의 몫이 된다. 우리는 유소년 시절 못 먹고, 못 입고, 못 쓰고, 못 놀고, 못 배우고, 못 즐기고, 못 살던 직접적인 피

해자다, 요즘 아이들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온갖 첨단 과학 문명의 이기를 다 만지며 희희낙락 즐기고 발랄하게 뛰어 노는 모습을 보면 백발이 된 지금 참으로 억울한 세상을 살아온 게 그저 안타깝고 후회스러울 뿐이다.

우리 집 할머니, 어머니도 다른 집 아낙들과 예외는 아니었다. 많은 가족들의 의생활을 꾸려 가기위해 이른 봄부터 밭에 목화심어 가을이면 목화송이를 따다 저녁이면 밤이 깊도록 씨아에다 씨를 빼어 활로 타서 솜을 만들어 비벼가며 고치를 만들었다. 그것을 물레를 돌려 한 겨우내 무명실을 자아 이른 봄에 실을 삶아서 왕겉불을 피워놓고 베를 날아 수많은 작업과정을 거쳐 비로소 베틀을 놓고 베를 짜기 시작한다.

이렇게 우리 할머니는 겨우내 밤을 새워가며 씨아와 물레를 돌리셨고 어머니는 봄부터 여름 내내 달가닥 달가닥 베를 짜셨다.

이렇게 수많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여러 차례 거쳐 손수 짜서 만든 무명은 많은 우리 가족들의 의생활 재료가 되었다.

어머니는 우리 대가족들의 옷을 일일이 밤새워 재단해 바느질해서 여름옷 겨울옷을 손수 마르고 바느질해 만드셨다.

어릴 적 동네 또래들과 쥐불놀이를 할 때면 솜옷에 불똥이 튀어 안에 든 솜에 불이 붙으면 서로들 덤벼 비벼 꺼주곤 했었다.

그토록 공 들여 만들어주신 새 옷을 입고 나가 하루도 못 넘기고 태워 먹고 들어오면 어머니에게 호되게 꾸중을 듣기도 했었다.



上善若水

- 道德經 -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은 것이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해주며 공을 다투지 않는다.

항상 남위에 군림하려 하지 않고,

남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머문다.



學不可已 青取之於藍而 青於藍

氷水爲之而 寒於水

- 老子 -

학문은 그쳐서는 안 된다, 청색은 쪽풀에서 취하나
쪽풀보다 푸르고, 얼음은 물로 만들어지나,
물보다 차다.

5. 졸업과 입학

나라가 식민지 굴레를 지고 저들의 압박을 견뎌 가는 사이 세월은 흘러 졸업식이 다가 왔다. 그러나 그것은 기구한 운명의 졸업식이였다.

6년 전 왜정 때 일장기가 펄럭였던 교정에서 일본인 교장의 일본어 환영사를 들으며 본의 아니게 강요받은 일본식 이름으로 명찰을 달고 입학식을 했는가 하면 이날 우리들의 졸업식은 봄바람에 힘차게 휘날리는 태극기 아래서 우리말 애국가와 졸업식 노래를 부르며 우리말을 단 한 마디도 못쓰게 했던 그 교실에서 후배들의 우리말 송사를 들으며 실로 감격스런 졸업식을 했다.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 속에 식민지의 치욕과 광복의 환희가 교차되는 과정을 겪으며 치러지는 눈물겨운 졸업식이였다. 그때 교장은 이철환 교장선생님이었는데, 전 국회의원 이충환 씨와는 형제간이다.

졸업과 동시에 나는 아버지의 설득으로 동네 서당으로 보내졌다.

이유인즉 ‘너는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종손이다, 따라서 역대 조상들의 제사를 맡아 계승해야 하는 중책을 짊어지고 태어났으니 우선 한학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이 그때 아버지의 중론이셨다.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教)에서 맹자는 세 번째 마지막 이사에서 서당 옆으로 이사를 했다는데, 나는 행인지 불행인지 운명적으로 담하나 사 이에 바로 옆집이 서당이었다. 그 때 訓長선생님은 박노연(朴魯彦) 선생님이었는데, 아버지도 이분 훈장(訓長)님께게서 공부를 하셨다. 당시 훈장 어른은 마을의 대통령이였다. 해방이 되어 나라와 사회가 어수선하고 법질서가 제대로 가동하지 못한 탓이었던지 동네 젊은이들 중에는 노름과

술 마시기가 성행했고 무질서가 판을 쳤다. 당시 훈장 선생님은 이런 패륜 행위 젊은이들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셨다. 노름을 한다든가 술버릇이 눈에 거스르는 자는 가차 없이 서당으로 호출해 종아리를 때려 따끔하게 훈계하곤 하셨다. 그러나 동네사람 어느 누구도 이 훈장선생님의 규율 잡는 강행군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사람은 없었고 당연시했다.

해방이 되면서 사회가 어수선 하기도 하였고 가난을 천직처럼 이고 살았던 시골인지라, 아래위 이웃동네에서 많은 학동들이 몰려들어 서당은 만원사례를 이루었다.

증조할아버지께서는 아들 형제분을 두셨는데 큰 어른이 내 할아버지시고 둘 짝 분이신 종조부(從祖父)께서는 서울에 사셨다, 내가 서당에 입학하던 해 가을 오랜만에 다니러 오신 從祖父(종조부)께서는 가시는 길에 서울구경을 시켜 주시겠다며 나를 데리고 서울에 가셨다. 나는 생전 처음 천안역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 여행길에 올랐다.

그 당시 종조부 댁은 서울 남산아래 중구 회현동에 사셨다, 홍철, 의철, 계철, 철순, 차순, 은자, 이렇게 3남 3녀 6남매를 두셨는데 막내 당숙인 계철 당숙이 나보다 나이가 두 살 아래여서 근 한 달 남짓 서울에 있는 동안 막내 당숙과 동네 또래 아이들과 남산 계단 길을 오르내리며 남산에서 매미도 잡고 약수터에서 뛰어다니며 즐겁게 놀았다. 약수터에서 내려오는 길목에는 미국 사람이 사는 집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 집 앞을 지나노라면 머리가 노란 미국 아줌마가 우리들에게 바둑알처럼 생긴 새하얀 껌을 나누어주곤 했었다. 그때 껌이란 걸 처음 먹어봤다. 이분 셋째 작은 당숙 계철씨는 대학에서 중국어를 전공해서 대만에서 우리교포학교 교장을 지낸 품격 높은 분이었는데 불행하게도 환갑을 못사시고 세상을 뜨셨다.

내가 처음 서울에 간 그때가 47년 여름이었는데, 저녁시간에는 라디오에서 나오는 ‘똥똥이의 모험’이란 어린이 연속극을 열심히 재미있게 들었던 기억이 난다.



智出衆天下者 聽於至愚之言

論事易 作事難 作事易 成事難

- 老子 -

천하에 출중하게 지혜로운 자라도
지극히 어리석은 자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다.
일을 논하기는 쉬우나 일을 시작하기는 어렵고
일을 시작하기는 쉬우나 일을 성취하기는 어렵다.

6. 비극의 6.25

나라의 운명과 백성들의 비극은 또 한 번 소용돌이쳤다. 1950년 6월 25일 비극의 6.25 한국전쟁이 터졌다. 그 때 우리 가족들은 아버지 삼촌 그리고 머슴들이랑 마당에서 보리타작을 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부터 어디선가 이상하게 멀게 또는 가깝게 포성이 심심찮게 들려왔다. 우리는 아무런 영문을 모른 채 일상의 작업은 계속 했지만 포성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자 어른들은 심상치 않다는 표정이 얼굴에 감돌았다.

물론 그 당시는 신문도 라디오도 없었다. 그저 다만 오고가고 드나드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것이 뉴스의 전부였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다. 경기도 안성 땅을 넘나드는 소위 옥정이 고개에서 남자들은 등짐을 지고, 여자들은 아이를 업고, 보따리를 이고, 그야말로 남부여대(男負女戴)하며 줄을 이어 밀려 내려오고 있었다.

그 후로 이 행렬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숫자가 늘어나 피난민 행렬은 24시간 쉬지 않고 매일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이제껏 그렇게 조용하기만 했던 시골 마을은 피난민 등살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그 피난민들은 날이 저물면 집주인들의 승낙도 없이 무조건 보따리를 이고, 지고, 아무집이나 몰려들기 시작해서 동네 집집마다 온통 피난민들로 들끓어 네 집 내 집 할 것 없이 온통 피난민들로 인해 그야말로 난리 마을 아수라장(阿修羅場)이 되었다. 우리 집도 예외는 아니어서 대문간에서부터 안방, 윗방은 물론 부엌, 광, 헛간, 심지어는 소여물 광까지 수백 명의 피난민들로 꽉꽉

들어왔다.

집주인도 주인행세를 할 수가 없었고, 주인이나 피난민이나 고생 하기는 같은 신세였다. 밤이면 그냥 그들 틈에 끼여 쪼그리고 앉아 밤을 하얗게 지새워야 했다. 이런 게 바로 난리로구나 하며 앉아서 난리를 치르는 동안 시간이 흐를수록 무방비 상태로 서울은 함락되고 국군은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며 남으로 남으로 밀려 내려갔다. 아니 이렇게 속수무책 이었던 말인가? 그로부터 얼마 후 드디어 말로만 듣던 인민군들이 들어 닥치기 시작했다.

그 후 동족상잔(同族相殘)의 남북전쟁은 우리고장 진천에서도 한동안 북새통을 쳤다. 이른바 ‘봉화산 전투’(烽火山 戰鬥)다. 불별이 내리쬐이는 무더운 여름 살벌하고 치열한 전투가 일주일간이나 계속됐다. 그 때 나는 해가 넘어가 어두운 밤이면 뒷산에 올라가 멀리 진천 쪽 하늘에 별건 불포탄이 쏟아져 유성처럼 교차해 날아다니는 광경을 바라보며 구경했다. 그때는 전쟁이란 게 무섭기도 했지만 구경거리도 되는구나 싶었다.

그 후 들은 얘기지만, 전쟁이 끝나고 종군 기자들이 봉화산 전투 지역에 들어가 보니 많은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는 가운데 어디선가 울음소리가 들려와 그 곳에 가보니 머리를 뺏 깎은 중학생 또래의 인민군(人民軍) 사병의 발목에 쇠사슬이 소나무에 묶여 오도 가도 못하고 울고 있더라는 얘기를 ‘민족의 증언’이란 책에서 읽어본 적이 있다.

‘후퇴는 안 된다. 죽어도 그 자리에서 죽어라.’ 저 악랄한 인민군 수뇌들의 작전 명령이었을 게다.

요즘에도 나는 가끔 봉화산에 오를 때면 정상에 올라 냉수 한잔을 마시고 주변을 돌아보며 60여 년 전 그때를 회상해 보곤 한다.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싸웠나? 그들은 도대체 남의 나라도 아닌 같은 나라 같은 민족이 아닌가? 檀君의 자손 배달민족의 같은 피를 나누는 동족인데, 무슨 철천지원수(徹天之怨讎)가 졌다고 총부리를 맞대고 피를 흘리며 죽이고 죽고 해야만 했단 말인가? 도대체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다. 그 알량한 思想? 理念?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전쟁이었다는 결론 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는 그 꼬이고 엉킨 실타래가 아직도 풀리거나 정리되지 못

한 채 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휴전선 일대에서는 총부리를 마주 거누고 호시탐탐(虎視眈眈)서로를 노려보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고 한숨만 나올 뿐이다.

그저 바라는 바는 이런 불행한 비극이 이왕 겪었던 우리 세대에서나 끝나고, 다음 후세들에게는 두 번 다시 되풀이 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봉화산 전투가 끝난 지 며칠이 지났다. 이 정치의 치안을 맡은 젊은 사람들 몇몇이 마을에 나와서 호별 방문을 하며 청소년들을 불러냈다. 나도 어쩔 수 없이 동네 또래들과 같이 그들을 따라 끌려갔는데, 도착한 곳은 바로 이월초등학교 운동장 이었다. 나는 그 운동장에서 또 한 번 깜짝 놀랄 광경을 봤다. 운동장 국기 게양대에는 인공기(人共旗)가 무더운 여름 하늘에 펄럭이고 있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인공기를 보았다.

아니 그럼 또 나라가 바뀌었던 말인가 ... ?



若安天下者 必先須正其身
未有正其身而影曲 上治而無下亂者
- 老子 -

만약 천하를 편안하게 하려는 자는
먼저 모름지기 자기 몸을 바르게 해야 한다.
자기 몸이 바른데 그림자가 굽을 리 없듯이
위에서 정치를 잘하는데 아래서 혼란한 일은 없다.

7. 인민 공화국

나는 우리 모교 운동장에서 日章旗(일장기)와, 太極旗(태극기)에 이어, 지금의 저 人共旗(인공기)까지 세 나라 국기가 번갈아 바뀌어 달리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다.

‘세상에 나라가 이래서야 어찌 나라다운 나라라 하겠는가. 국력이 허술하면 나라가 망가지고, 나라가 망가지면 백성들이 처참한 지경에 빠진다.

그래서 나도 지금 이렇게 이자들에게 이리저리 끌려 다니고 있는 게 아닌가. 인공기를 보는 순간 나는 만감이 교차했다.

인술자를 따라 운동장에 들어서자마자 언뜻 보기에 스무 살쯤 되어 보이는 깔끔한 미모의 간호장교처럼 보이는 여군이 나타났는데 그녀는 우리를 2열 횡대로 세워 놓더니 상기된 얼굴로 입을 열었다.

‘지금 우리 인민해방군 용사들이 조국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전투에서 용감히 싸우다 불행히도 전상자가 많이 발생해서 이들을 위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해서 여러분들을 불렀으니 열심히 봉사해 주길 바랍니다.’는 말을 마치고 사라지더니 곧 이어 다른 병사가 나타나 우리를 데리고 교실로 들어갔다, 거기 책상과 의자 등을 걷어치운 넓은 교실 바닥에는 수많은 인민군 부상병들이 피투성이가 된 채 즐비하게 마룻바닥에 누어있었다. 팔이 잘려진 놈, 다리가 부러진 놈, 머리에서 붉은 선혈이 줄줄 흘러내리는 놈, 눈알이 빠져 나온 놈 모두가 하나같이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엉엉 우는 놈, 아프다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놈. 등등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目不忍見(목불인견)의 생지옥이 바로 여기였다. 거기서 또 깜작 놀랄 상황을 보았다. 부상병을 치료하고 있는 군의가 내 선배이자 삼촌과는 동기인 시골 의사 朴鎭秀씨였다.

그도 아마 나와 같이 불려왔는지 모르겠지만 인민군 부상자를 치료하고 있는 것을 보고 옛날 생각이 났다. 그는 왜정 때, 2차 대전말기에 일본군에 입대할 당시 우리학교 학생들이 모두 나와 시내도로 양쪽에 늘어 서서 만세를 부르며 환송했다. 그때 그는 무운장구(武運長久) 어깨띠를 두르고 환송 나온 군중을 향해 ‘사꾸라 사꾸 님본니 우마레’ 하며 답사를 했었다, 그 일이 엇그제 같은데 오늘은 또 저자들을 치료하고 있으니, 참으로 새옹지마(塞翁之馬)라고나 할까?

이들은 엇그제 ‘봉화산 전투’에서 우리 국군과 맞서 싸우다 죽음을 면하고 겨우 살아남아 목숨만 붙어있는 인민군 부상자들이다. 저쪽 한 구석에는 잘려진 팔다리가 쌓여 있었고 먼저 불려온 사람들 갈아 보이는 몇몇이 바닥 걸레질 청소를 하고 있었다.

거기서 우리는 식사당번 그리고 청소를 하며 며칠을 보냈다. 우리가 이렇게 봉사를 하고 나오던 날 이들은 우리에게 노트며 연필 책 등 학용

품을 선물로 나누어주며 수고했다고 했다.

나는 전날저녁 뒷산에 올라가 전쟁마당의 포탄 날아다니는 구경을 했는데 그 결과가 결국 이렇게 나타났구나 생각하니 전쟁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라 여겨졌다.

그로부터 우리는 싫든 좋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임을 강요받고 살 수밖에 없었다.

공화국 남녀청년 간부란 자들이 저녁마다 동네로 몰려와 설치대며 동민들을 마당에 불러 모아 놓고 나나벌이 나 닭으란 식으로 공산당 사상과 이념교육을 떠들어 댔고, 시간이 흘러 청중이 지루해하고 졸음이 올 무렵이면 ‘아아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 장군’ 하며 김일성 찬가를 목청껏 목이 터져라 부르며 따라 부르게 했다. 시간이 흐르고 날이 갈수록 그들의 사상 교육은 가열 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청년들만을 불러 모아 조국을 해방시키기 위한 인민군대 의용군을 모집하는데 모두들 남의 눈치 보지 말고 조국통일의 역군으로 모두들 인민군대에 ‘자원입대’하라는 것이었다. 교활하게도 강요가 아닌 자원입대(自願入隊)라는 것이었다.

참으로 가소로웠다. ‘자원입대’라 초저녁에는 모두가 서로 눈치만보며 어설피 입을 여는 사람이 없이 꿀 먹은 벙어리였다. 그러다 시간이 흐르고 자정이 가까워오면 지루함과 초조함에 눈길을 둘 곳이 없어 견디다 못해 아니 죽지 못해 하나 둘 일어나 그들 앞에 나서면 어디로 끌려가는지 동네 청년들은 그렇게 하나 둘씩 사라져 갔다.

그 당시 나는 열일곱 이었는데 한 두 살만 더 먹었어도 아마 끌려갈 뻔 했다. 아버지는 인민군들의 짐을 나르는 운수반(運輸班)이라는 이름으로 동네 중장년들과 함께 경상북도 김천까지 저들의 짐을 지고 끌려갔다 오셨다.

빨갱이 세상이 된 그때 동네 이장 격인 인민위원장(人民委員長)이란 자는 해방 직후 이북에서 월남해 내려왔던 자였다. 그는 이전부터 우리 밭에 짐을 짓고 살면서 해마다 임대료를 내고 살았는데 하루는 식전에 우리가족들이 대청마루에 다들 모여 아침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느닷없이 나타나서는 하는 말이 ‘이제 세상이 바뀌어 우리들 세상이 됐으니 매년

반던 텃도지는 받을 생각을 마시오. 그리고 그 밭에 있는 감나무에 감도 이제부터는 우리가 딸 것이니 그리 아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 이었다. 그러나 그자의 말을 들은 우리 가족 중 어느 누구도 그자의 그 독기 어린 사회주의식 말에 그저 귀로만 묵묵히 듣고만 있을 뿐, 아무런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날 저녁에도 인민 위원장은 종을 쳐 동민들을 모아 인솔해서 면소재지로 갔다. 그곳에는 벌써 면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 웅성거리고 있었다. 얼마 후 주체자인 듯 보이는 사람들이 나와 줄서 있는 사람들에게 인공기를 나누어 주며 캄캄한 밤에 인민공화국 만세를 외치며 시가행진을 강요했다. 그때는 미 공군의 폭격이 무서워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는 밤에만 했다

이렇게 후방 지역에선 빨갱이들이 저의들 세상이 왔다고 날마다 밤마다 날뛰고 있는 사이 낙동강까지 밀려 내려갔던 국군은 전세를 가다듬어 유엔군과 함께 일대 반격을 개시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그 해 추석이 가까워 올 무렵 우리 고장에서는 국군 환영대회를 한다며 돼지를 잡고 술도 마련하고 오랜만에 농악을 울리며 흥을 돋우었다.

다음 날 비포장도로에 구름처럼 먼지를 날리며 GMC트럭마다 가득가득 실린 국군들은 태극기를 휘날리며 군가도 우렁차게 굉음을 울리며 전진 또 전진해 올라가는 용감무쌍한 국군을 향해 환송을 나온 모두는 태극기를 흔들며 국군 만세를 목청껏 불렀다. 오랫동안 저들의 치안 속에 주눅이 든 국민들은 저마다 새 세상을 만난 듯 활기가 넘쳐났다.

그리고 얼마 후 치안을 맡은 국군 치안대들이 각 마을 마다 순회하면서 그 간 3개월 여간 인민공화국 공산주의(人民共和國 共產主義)자들과 짝짜꿍 하며 충성을 받쳐 일해 오면서 그들과 어울려 선량한 양민들을 괴롭힌 부역자들을 색출 처형하기 시작했다. 그때 우리 마을 인민위원장, 여성위원장, 그리고 청년회장 등도 모두 잡혀 간 건은 물론이다. 이후 그들은 어디에 가서 어떻게 처형되었는지 아직까지도 영영 그 뒤 소식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일설에 의하면, 그때 국군들은 그들을 모두 GMC 트럭에 싣고 가 광혜원 조리방죽 산 쪽에 큰 호를 파고 모두 몰아넣고 총살해 묻었다는 얘기가 돌리곤 했는데, 그저 소문 일뿐 영원한 미스터리다.

이렇게 연일 전진에 전진을 거듭한 국군과 유엔군은 38선을 돌파하고 백마고지 김일성 고지 등을 연일 탈환하며 파죽지세로 평양을 접수하고 여세를 몰아 압록강과 두만강 국경에 도달해 마침내 압록강 물을 수통에 담아 이승만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들었다.

그때 우리 모두는 이제 다들 통일이구나 싶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운명인가. 하늘은 우리에게 쉽사리 통일의 손을 들어 주지 않았다. 압록강 국경 전역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공군들의 인해전술(人海戰術) 대공세가 통일일보 직전에서 다시 눈물의 후퇴가 시작되었으니, 소위 1.4후퇴였다. 국군과 유엔군은 또다시 후퇴를 거듭하며 전세는 점점 불리한 쪽으로 기우는 가운데 우리 지역에도 드디어 소개 령이 내려졌다.

겨울은 한복판에 와 있었다. 함박눈이 수북이 쌓여 천지가 은세계를 이루었고, 칼바람이 불어대는 엄동설한이 다가 왔는데 어머니는 막내아들을 낳으셨다.

그 무렵 군인과 경찰은 수시로 마을과 각 가정을 드나들며 ‘전세가 대단히 불리하니 시각을 지체하지 말고 빨리빨리 짐을 꾸려 피난을 가라’고 매일 매일 돌아다니며 들볶아 대며 재촉했다.



讀書起家之本 循理保家之本

勤儉治家之本 和順齊家之本

- 明心寶鑑 -

독서는 가정을 일으키는 근본이요

순리는 가정을 보호하는 근본이요

근검은 가정을 다스리는 근본이요

화합과 순종은 가정을 가지런히 하는 근본이다.

8. 눈보라치는 피난

끝내 버티지 못한 우리가족은 아무래도 더 이상 지체할 명분이 없어 눈물의 피난 보따리를 싸지 않을 수 없었다.

다음날 우리 가족은 보기만 했던 피난 행보의 첫 출발을 시작하게 되었다. 누렁이 암소에다 식량과 살림도구들을 싣고, 나는 아수 본 동생을 업고, 어머니는 낡은 지 겨우 일주일 밖에 안 된 핏덩이 막내를 업지도 못하고 숨에 쌓아 걸방을 해서 목에 걸어 안고, 모든 재산을 그대로 버려둔 채 언제 어떤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지 모를 눈물어린 피난길을 떠나는 것이다. 대문 밖을 나서며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다른 피난민들의 행렬에 합세했다. 핏덩이 막내를 안고 나서며 어머니는 과연 이아이가 제대로 살아서 돌아올 수 있으려나 눈물을 보이셨는데 아직도 살아서 올해 나이가 환갑을 넘었다.

눈이 오금까지 빠지는 엄동설한(嚴冬雪寒)이었다. 찬바람은 매섭게 몰아쳤고, 세상은 눈으로 덮여 은세상(銀世上)이 되어 눈은 오금까지 폭폭 빠지는 눈길을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우리 7남매, 열 식구가 눈길 빙판길을 빠지고 미끄러지며 첫날은 사곡리 은행정 마을에서 하루를 묵었다. 그 집은 신계리에서 출가해 왔다는, 어머니와는 각별한 사이여서 그분과 어머니는 그때 밤새 오순도순 정겨움인지 애절함인지 모를 많은 얘기를 나누는 소리를 들었다.

다음 날 또 행군이 시작되었다. 마치 영화에서 보던 유목민들처럼 낙타가 아닌 소바리에 짐을 싣고 가족들의 행렬은 계속되었다. 장관리 동네 앞을 지나 큰 냇가를 지나는 데 진천저수지에서 별판으로 폭풍처럼 불어오는 모진 바람은 눈보라를 일으키며 무섭게 귀땀기를 때리며 지나갔다.

어린 동생들은 추위와 강풍에 떨며 별판에 주저앉아 울어댔다. 그렇게 울고불고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하며, 옛 잣고개 소로 길을 천신만고 끝에 걸어올라 큰 도로에 이르렀다. ‘울고 넘는 박달재’가 아닌 울고 넘는 잣고개였다.

많은 피난민들의 군중을 뚫고 사석을 지나 지암리 늦점마을에 외가 친척집에서 하루를 묵었다. 다음날 행군은 계속되어 문백 뒤편 내를 건너 산 고개를 넘고 오르막 내리막길을 걸어서 마침내 목적지인 천안 동면 화덕리 도명골 외가에 도착했다. 전화도 없던 시절이라 미리 아무런 연락도 없이 무작정 들이닥친 것이다. 갔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었는데 벌써 거기도 많은 피난민들이 와서 만원 있었다.

옛부터 이 마을은 오지여서 피난처로 알려져 있었다. 그래서인지 이곳 저곳에서 아름다움으로 멀고 가까운 일가친척들이 쓸 만한 방들은 거의 차지하고 마땅히 짐을 풀만한 곳이 없었는데, 그때 외삼촌의 주선으로 겨우 작은 초가단칸 킁킁한 윗방 하나를 주선해 주셨다. 좀 넓은 아랫방은 피산에서 오신 분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그렇게 외숙이 마련해준 작은 방에서 우리 열 식구는 죽지 못해 살아가는 피난생활이 시작됐다. 그때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했던 어머니는 차가운 날씨 원거리 행보에 피로가 겹치고 노독이 쌓여 시름시름 앓아 눕고, 조식준비와 부엌일은 네 살 아래인 열세 살 누이동생 몫이었다. 나는 매일 동네 또래 아이들과 산으로 나무를 하러 다녔다. 밥을 해 먹어야 했고, 또 소죽을 끓여야 했으니 어쩔 수가 없었다. 왜 그랬는지 아버지는 나무를 안 하시고 나 혼자서만 나무를 한 것 같다.

하지만 산에 가봐야 나무라곤 없었다. 왜정 때, 사방공사하며 심어놓았던 오리나무와 그리고 아카시아나무가 전부였다. 아카시아와 오리목은 화력도 없거니와 잘 타는 나무가 아니었다. 마른 나무가 아니고 금방베어온 생나무이니 잘 탈 리가 없었다. 아궁이에서 좀처럼 불이 잘 붙지 않을 뿐더러, 연기만 평평 내뿜어 부엌이 온통 오소리 굴처럼 연기로 가득 찼다.

그래서 나와 동생은 조식을 할 때나 소죽을 끓일 때면 그놈의 연기 때문에 슬프지도 않은 눈물을 아침저녁으로 평평 흘려야 했다.

이런 고통스런 생활은 피난 온 사람들이나 원주민이나 매 일반 이었다. 주민들이나 피난민이나 밥만 먹고 나면 할 일없이 모여 전세의 이 불리한 전쟁 얘기며 먹고사는 문제며 세상 돌아가는 얘기로 배고픔을 견디고 그저 할 일 없이 헤가지곤 했었다. 열흘인가 얼마 후 할머니는 잠자리도 불편하고 그 동안 집도 궁급하고 해서 먼저 집으로 가셨다.

그때 우리와 같은 피난민 중에는 진천 신정리 도고머리 동네에서 피난 나와 있던 민순기 라는 일가 집 누님인 처녀가 와서 혼수품으로 벽걸이 커텐보 자수를 놓고 있었는데 거기중앙에 황진이 시를 한 수 써주었다.

청산리 벽계수야 수이 감을 자랑마라
일도 창해하면 다시 오기 어려워라

명월이 만공산하니 쉬어간들 어떠리

달필은 아니었지만 맛있는 흘림체는 커튼 중앙을 우아하게 장식했다.

그 누님은 매우 기뻐했다. 그리고 ‘지금은 금고가 비어서 할 수 없고 다음에 시집가서 돈 벌면 후사 하겠다’ 고 농담했다. 그리고 천재적 소질을 타고난 피꼬리 같은 목소리로 당시 널리 유행했던 노래를 한국 선물 해주었다.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
목을 놓아 불리봤다 찾아를 봤다
금순아 어테를 가고 길을 잃고 헤매었으나
피눈물을 흘리면서 일사이후 나 홀로 왔다

일가친척 없는 몸이 살아서 무엇을 하나
이내몸은 국제시장 장사치라오
금순아 보고 싶고나 고향땅도 그리워진다
영도다리 난간위에 초생달만 외로이 떴다

- 군세여라 금순아

세월이 한참 흐른 뒤, 내가 군에 입대해 김해 공병학교 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을 때, 부산으로 출가 했던 순기 누님을 외출해서 찾아 갔는데 그때 신히 방에 걸려있는 그 커튼을 보고 옛날 피난시절 같이 고생했던 추억들을 회상하며 감격했다. 그때 누님은 반숙 오징어에 초장을 곁들여 내왔는데 처음 먹는 요리여서 오래 잊을 수가 없었다. 그 후로는 그 누님도 세월이 흐르면서 영영 소식이 두절되어 생사를 모른다. 모두가 전쟁과 피난 속에서 겪었던 一場春夢(일장춘몽)이다.

지금도 가끔 옛날 피난 시절 생각을 하면 그때 외삼촌내외에 얼마나 많은 폐를 끼쳤을지 그저 고맙고 죄송한 마음뿐이다.

외가댁에 외조부께서는 일찍 세상을 뜨셔서 나는 뵙지 못했다. 외조모는 은진 송 씨 였는데, 키가 크고 늘씬하셨다. 무남독녀로 어머니 한분을 두셨는데 어머니가 우리 집으로 출가해 오시면서 지금의 외숙을 양자로

들이셨다. 양 외삼촌이지만 인자하시고 자상하시어 지금도 우리 생질들을 극진히 따뜻하게 대해주신다. 그렇게 덕이 있으셔서 자손들도 모두 훌륭하게 성장해 공직에 몸담고 있다. 그리고 외숙 내외도 건강하게 해로하고 계시다.



冬寒之陽 夏陽之陰 不召而自來

- 老子 -

추운겨울 양지쪽과 무더운 여름 음지에는
누가 부르지 않아도 스스로 모여든다.

9. 약제사와 입학

이렇게 우리는 춥고 배고팠던 피난 생활의 기나긴 터널을 뒤로하고 그 이듬해 봄 그리운 집으로 돌아왔다. 우리가 피난 가 있는 동안 우리 집은 마을 중앙의 큰 집이어서 피난민들의 본부인 것처럼 들끓었던 터라 모든 가재도구들이 엉망이었다. 장롱 책상 등 목재들은 모두 쪼개서 밥해먹는 뿔감으로 썼고, 농사지어 광에 보관됐던 식량들도 모두 먹어 치웠다. 집에 돌아온 가족들은 모두 아연실색이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참담하고 애석했던 일은 내가 아끼고 애지중지했던 조상 때부터 대대로 물려 내려왔던 고서적과 그리고 내가 서당에서 세필로 써놓았던 대학과 중용 등의 책자들이 감쪽같이 없어진 것이다.

이렇게 전쟁이 나면 군대들에 의해 입는 피해보다 후방의 민간끼리의 피해가 더더욱 무서운 작용을 한다.

혼란스런 집안 가재도구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하루는 진천 도고머리 민병설씨께서 오셨다. 이 어른은 외척 되시는 어른으로 피난시절 내가 커튼에 시를 써준 순기 누님의 아버님이시다.

그 어른은 진천에 큰 한의원에서 약제사를 급히 구한다고 하시며 나를 데리고 가셨다.

따라간 곳은 진천 인화의원(仁和醫院)이었고 원장님은 50세 전후쯤인

李種台 원장님이었는데, 이월 일영부락이 고향이었다. 약제사(藥劑師)는 원장님을 도와 약재를 조제처리하고 의원 내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여기서 나는 시간 날 때마다 藥性歌 및 東醫寶鑑 등을 열심히 공부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것은 의원 업무가 끝나는 저녁시간이면, 읍내의 내로라하는 유지 어른들이 모두들 우르르 몰려와 바둑 두고 마작하고 좌담하며 모이는 경로당이 되는 바람에 통행금지 시간인 한 밤중 자정이 되어서야 헤어지곤 했다.

한창 잠이 많은 젊은 나이에 그 방에서 자야하는 나는 아무리 졸려도 손님들 때문에 맘대로 잘 수가 없었던 게 큰 괴로움이었다.

그곳 한의원시절 기억 중에 지금도 잊혀 지지 않는 일은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반공포로(反共捕虜) 석방으로 우리지역에서 의용군(義勇軍)으로 끌려갔다 국군에게 포로로 잡혀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수용돼있던 우리지역 반공포로들이 당시 이승만 대통령 영으로 석방 되어 GMC트럭에 실려 문앞 큰 길로 먼지를 날리며 만세를 부르고 지나는 것을 감동 깊게 본 것이다.

당시 풍전등화(風前燈火) 같은 나라의 운명과 때를 같이한 우리네 젊은이들이 저들에게 억울하게 끌려가 고생 고생하다 돌아오는 것이다. 그 후로 들은 얘기지만 그들은 거제도 수용소에서 남과 북 사상 대립으로 많은 다툼과 고생들을 겪었다고 들었다.

그러나 한의원에서 생활이 스무 살 전의 나이에 호감이 가는 직업 같지를 않았고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그곳에 있는 동안 앞길 큰 도로에는 매일 아침저녁으로 교복 입은 중학생들이 떼를 지어 회회낙락 지나다니는 것을 볼 때마다 나도 저들처럼 학교에 가고 싶어서 하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더 큰 목표를 향해 희망을 바라보며 이것을 포기하기로 결심하고 용기를 내어 원장선생님께 하직 인사를 하고 집에 와서 지금 廣惠院 중교의 전신인 錦上中學校에 그간 틈틈이 익힌 실력을 인정받아 2학년에 편입학했다. 그때 교장은 朴光國 교장선생님이었다. 이후로 이 학교는 발전해서 ‘常山中學校’로 간판을 바꾸었고, 지금의 ‘광혜원 중고등학교’로 변신했다.

내가 졸업할 당시의 교장은 金相完 교장선생님이었는데 머리통이 남달

리 크고 대머리가 벗어져 학생들은 왕 도토리란 별명을 지어 불렀다.

당시 우리는 비포장도로인 자갈밭 길을 걸어서 왕복 사오십리 길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두 발로 통학했다. 50년대 초반 나라나 가정이나 모두가 어려운 때라 자전거 하나 사달라는 말도 못 해보고 그렇게나마 다니는 것만도 다른 애들에 비하면 행운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걷고 또 걸어 강행군을 하다 보니 어느덧 3학년에 올라가며 학생 운영위원장을 했었다.

‘至誠(지성)이면 感天(감천)’이요 ‘苦盡甘來(고진감래)’라더니 형설의 공을 쌓은 보람이 있어 어언 감격과 환희의 졸업을 했다.

고등학교는 청주로 갔다. 청주 우암동 당시 도자기공장 앞에 방을 한 칸 얻어 자취를 하며 주말이면 우암산(牛岩山)에 올라가 솔방울을 주어다 풍로에 나무를 태워 밥을 지었다. 가끔 집에 올 때면 장작을 잘게 쪼개서 묶어 짊어지고 왔다. 그 당시는 연탄도 석유풍로도 없었을 때였으니까 그런대로 불편한건지도 모르고 모두들 그렇게 살았었다. 요새학생 아이들 그렇게 하라면 어땠을까?

당시 내 바로 아래 누이동생이 양재학원을 나와 바느질을 곧 잘 해서 재봉을 가지고 와서 연초공장, 도자기공장 수백 명의 여직원들을 고객으로 해서 옷 수선 일을 했는데 하루 이틀 지나면서 일거리가 제법 있어 혼자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동네 양재학원 동기생 친구인 윤양을 데리고 와서 재봉 일을 함께 했다. 식구가 세 식구로 늘어 난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재미를 붙여 갈 무렵, 남주동 시장 쪽에 기성복 가게에 청바지를 만드는 고정적인 일이 있어 우리는 그 쪽으로 이사를 했다.

그렇게 동생들 들어서 재봉틀을 열심히 돌려 준 덕분에 나는 밥하고 빨래하는 번거로움을 덜고 학비 일부를 보태게 되어 불철주야 열심히 공부에만 몰두하게 됐다.

공부를 하면서 나는 전에 익혔던 한문 실력이 학교 공부하는데 많은 참고와 도움이 되어 비록 시골 출신이지만 그런대로 수업 성적이 상위권에 들었다. 그래서 청주가 집인 같은 반 고령 신 씨인 형식이란 친구가 가정은 비교적 유복 했었는데 공부실력이 좀 뒤 처졌다. 어쨌거나 같은 신 씨여서 가깝게 지냈는데 하루는 이 친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유인해

나는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그 친구 집에 가서 개인 지도를 많이 해주었다. 그럴 적마다 그 친구 어머니는 아들 친구인 나를 무척 사랑해 주시었다. 빵이며 과일이며 간식을 차려 와서 맛있게 먹은 기억이 난다.

가끔은 그 친구 집에서 잠도 같이 자곤 했다. 그 친구 어머니는 시골에서 나와 객지에서 고생한다며 늘 자식처럼 따뜻하게 대해 주셨다.

지금쯤은 아마 그분 어머님도 세상을 떠셨을 게다.

어느 여름날 날씨는 무더히 더웠는데, 같이 있는 윤 양의 아버님이 저녁 무렵에 예고도 없이 땀을 뻘뻘 흘리시며 들어오셨다. 딸을 객지에 보내놓고 몇 달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자 궁금해서 백리 길을 걸어서 오셨단다. 그때는 버스 편도 적었고 차비도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환갑이 넘으신 분이 걸어서오시다니 참 부성애가 대단하시구나. 했든 옛날 그 생각이 아직도 잊혀 지지 않는다.

그해 가을 첫서리가 내리고 단풍이 화려하게 물들 무렵 우리 반 학생들은 신나는 가을 소풍을 갔다.

모두들 도시락 배낭을 메고 콧노래를 부르며 교문을 나서 발걸음도 가볍게 우리가 도착한곳은 우리지역 청주의 유적지로 꼽히는 상당산성이었다.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우리 담임선생님은 학생들을 불러 모아 상당산성에 얽힌 역사이야기를 열심히 설명해주셨다.

그 상당산성은 내가 당시 본 기억으로는 그곳은 나무와 풀포기들 사이로 이끼 낀 성돌 덩이 몇 개만이 땅에 널브러져 있었을 뿐. 성의 흔적이라고는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었다.

그 후로 나는 청주 아이들 집에 갈 때면 가끔 아이들과 그곳 상당산성을 찾곤 하는데 새로 보수 축성해 놓은 산성을 보며 이런 것이 과연 국력(國力)이로구나 하고 감탄 한다.

세상은 참으로 많은 것을 변화 시켰고, 참으로 살기 좋아졌다. 저렇게 웅장하고 깔끔하게 잘 축성된 새로운 성벽, 그리고 잘 정리된 주변의 잔디공원, 그 사이사이로 산책 나온 행락객(行樂客)들, 희희낙락(喜喜樂樂) 답소하는 젊은이들, 그리고 알록달록 깔깔대며 뛰어노는 천진난만(天真爛漫)한 아이들, 지상낙원(地上樂園)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거기가 바로 지상낙원이었다.

나는 물끄러미 서서 반세기(半世紀) 전 내가 학교에서 소풍 왔던 그때 그 시절을 더듬어본다. 그토록 초라하고 보잘 것 없었던 아니 흔적(痕迹)이라야 희미했던 그 자리에 저렇게 웅장하고 화려하고 멋진 ‘상당산성’이 축성 재현되다니, 마치 우주여행을 온 듯 그저 隔世之感(격세지감)을 느끼는 뿐이다.

이렇게 우리 셋이서 청주에 나와 나는 열심히 공부하고 동생들은 열심히 재봉틀을 돌리며 그런대로 생활이 안정되면서 휴일이면 우암산 신흥사, 상당약수터, 내수 초정약수터를 학교친구들과 단골로 어울려 다니며 많은 추억을 쌓아갔다.



少年易老學難成 一寸光陰不可輕
未覺池塘春草夢 階前梧葉易秋聲
- 朱子 -

소년은 늙기 쉽고 학문은 이루기 어려우니
짧은시간 이라도 가벼이 여기지 말라
연못가 봄풀은 꿈에서 깨어나지 못했는데
뜰앞 오동잎은 가을을 노래하는 구나

10. 軍에 가다

청소년 시절 우리 마을에는 동갑내기 친구들이 많았다. 이길성, 정동규, 신갑철, 김동우, 박예영, 그리고 나까지 여섯 명이 영장을 받고 같이 입대했다.

입대 전날 밤 마을에서는 모두 나와 성대한 송별연을 베풀어 주셨다.

기운이 팔팔 용솟음치는 젊은이들은 밤이 깊도록 막걸리 통을 몇 개나 비우면서 어지간히 들 퍼마셨다. 동네 어른들은 과음하지마라 하며 훈계 하셨지만 귀로는 듣고 입으로는 마셔댔다.

드디어 입대의 날이 밝았다.

이른 아침 우리들은 마을을 가가호호(家家戶戶) 방문하며 ‘잘 다녀오겠

습니다.'라며 작별인사를 했고, 동민들은 마을 동구 밖까지 나와 손을 잡아 주시며 몸조심하고 '잘들 있다 오나라'라며 환송해주셨다.

우리가 면사무소 마당에 도착하니 벌써 많은 인원이 모여 있었다. 병사계의 인원 점검을 마친 뒤 우리는 몇 대의 GMC트럭에 실려 비포장도로의 흙먼지를 날리며 오창 들을 지날 무렵 때는 10월 하순 이었다. 때마침 논에서 한창 벼를 베던 농부들이 엎드렸던 허리를 펴며 한 손에 낫을 들고 우리를 향해 손을 흔들어 환송해 주었다.

저녁나절 마침내 도착한 곳은 청주공고 운동장이었다. 거기에는 벌써 다른 시군에서 먼저 도착한 장정들이 웅성거리고 있었다. 인원 점검을 마치고 해가 질 무렵 우리는 청주역으로 이동해 공간차에 실려 싸늘한 초가을저녁 사방이 어두운 밤에 우리를 실은 차는 어디로인지 쓸쓸하고 처량하게 달려갔다.

그날 저녁식사는 공간차 안에서 마분지 종이에 싸인 주먹밥을 먹었는데 마분지 냄새가 격하게 코를 찌르면서 입맛이 확 달아났다. 나는 억지로라도 먹어보려고 한 입 떼어 물어 보았지만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 그날 저녁은 먹는 것을 포기했다.

달리는 공간 열차 한 옆에서는 무엇이 못 마땅한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벌써 '고향이 그리워도 못가는 신세'를 부르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또 누군가는 '조용히들 해' 하며 소리소리 지르는 등 공간열차 분위기는 이렇게 어수선하고 시끌벅적한 가운데 얼마 동안을 달렸는지 새벽녘에야 기차는 강경역에 도착했다.

1955년 11월 4일 군생활의 첫 관문이 열리는 날 나는 마침내 감격의 숫자 '9944947'이 찍힌 역사적인 군번을 받아 목에 걸었다.

그리고 육군 제2훈련소 제25연대 제10중대 2소대에 등지를 틀고 당당한 대한민국의 육군 장병이 되었다.

때는 그 치열했던 전쟁이 종내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53년 7월 27일 휴전 된지 2년째 되는 해다. 우리가 학교에 다니면서 청주시내 모든 학생들이 매일같이 어깨띠와 플래카드를 들고 '통일 없는 휴전은 결사반대' 한다는 구호를 외치며 시가행진을 했었다. 그렇게 애걸복걸 휴전을 반대했던 그 학생이 오늘은 군인의 신분으로 여기 훈련소에 있는 것이다. 11

월 이었는데 콘크리트 막사는 차가운 공기가 감돌았지만 많은 병사들의 체온은 훈훈하게 실내 열기를 끌어 올렸다.

새벽 기상나팔 소리와 함께 훈련병들은 야전삽을 들고 막사 앞 통로에서 ‘돌’ 가는 일로부터 하루일과가 시작된다.

이 많은 병사들이 올려대는 ‘돌’ 가는 소리는 마치 한여름 밤 수백 마리의 개구리 떼가 한꺼번에 울어대는 듯 요란했다.

당시 훈련소의 모든 시설은 열악했고, 훈련은 혹독했으며, 세끼 식사는 배가 고팠고, 내무반 생활은 고달팠다.

야외 훈련장에 나가면 이동주보라 해서 아줌마 들이 떡과 빵 등을 이고 나와 팔았다. 배고픈 훈련병들은 교관들의 눈을 피해가며 그 이동주보 들을 많이 이용했다. 동지선달 한 겨울 추위에도 교장에만 나가 앉았으면 줄음이 쏟아져 꾸벅꾸벅 졸기가 일쑤였다.

그렇게 훈련이 계속되는 동안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휴무를 맞았다.

대통령 하사품이라며 레슨 박스를 하나씩 선물로 지급해 주었다.

휴무가 이어지는 동안 어머니가 첫 면회를 오셨다. 그때 같이 있던 친구들을 모두 데리고 면회장으로 나갔다. 어머니는 떡이랑 엿이랑 과일이며 맛있는 것들을 많이 싸오셨다.

면회장에서 밥을 지어먹었는데 친구들과 나는 이제까지의 배고팠던 한을 풀기라도 하듯 원 없이 마음껏 들 먹었다. 그 후 식곤증이 와서 맥이 풀리고 계속 잠이 쏟아져 기운을 차릴 수가 없었다. 생전 처음 식곤증이란 걸 느꼈다.

이렇게 7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후반기 교육은 경상남도 김해 육군 공병학교(工兵學校)로 차출돼갔다. 그때 주위 많은 친구들은 후방으로 특과 교육을 간다고 모두들 부러워했다.



不貪酒色 不貪財 世無災無害

口是召禍之門 舌是斬身之刀

-老子-

술과 여색을 탐하지 아니하고, 재물을 탐하지 않으면

세상을 사는 동안 재앙과 손해가 없으리라.
입은 화를 부르는 문이요
혀는 자신의 몸을 베는 칼이다.

11. 駕洛國의 수도 김해의 추억

1956년 1월 14일 저녁 9시 때는 엄동설한이어서 차가운 겨울바람이 싸락눈을 뿌려가며 세차게 몰아치는 혹한이었다.

우리는 강경역에서 기차를 타고 동지선달 긴긴 밤을 객차 안에서 전반기 교육받던 얘기며 고향에 두고 온 그리운 사람들 얘기를 혹은 즐겁게, 혹은 울적하게, 대화 하며 잠은 자는 등 마는 등 하는 사이 다음날 새벽 우리 일행은 경남 구포역에 도착했다.

그날 아침 구포역에서 김해로 가는 구포다리를 건너며 낙동강을 바라보았다. 거기 낙동강 푸른 물위에 얽은 아이들이 뱃놀이를 즐기고 있었다.

마치 한대지방에서 온대지방으로 온 것 같은 느낌이었다.

우리를 실은 트럭은 공병학교 신병연대 연병장에 우리를 쏟아놓았다.

다음날부터는 곧바로 교육에 들어갔다. 며칠째 되던 날 본부중대 통신부로 차출 되었다. 그때 당시 나에게는 당고모부인 김영호 대위가 공병학교 본부중대 통신부장 이었다. 훈련 중 본부로 차출된다는 소식을 들은 같이 온 동료들은 부러워하며 그날 저녁 매점에 모여 송별회를 하며 멀리 김해에 와서 또 한 번 고향 친구들과 헤어지게 됐다.

통신부는 말 그대로 학교 전 부서를 총망라한 전화통신의 총본부다.

여기는 행정반 교환반, 가설반으로 나뉘는데 나는 처음 교환대 업무가 신기해서 그곳을 택했다. 가설반은 선로 고장 시는 추우나 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주를 오르내려야하는 고단하기도 하고 위험한 기술직이었다. 교환 업무는 교환실에서 교내 모든 부서나 전군의 전화통화를 연결해 주는 신경세포 역할을 24시간 교대로 근무한다.

내가 김해 공병학교에 온지 얼마 후 서울에서 종조모께서 따님 댁에 다니러오셨다. 김영호 대위 통신부장의 장모님이시다.

외출해서 종조모님을 맞아 인사했다. 무척 반가워하셨다. 나도 먼 객지에

서 그것도 군 생활 중에 당내 어른을 이곳에서 만나 뵈니 무척 반가웠다.

그 후 외출 때 마다 나는 통신부장이며 堂姑母夫 댁을 자주 찾았다.

堂姑母는 그때 정수와 철수 남매를 두었는데 아직 어려서 학교 입학 전이었다. 거기에는 당고모 댁의 이웃에 사는 김유진이란 이혼녀가 정수 오빠 정수오빠하며 무척 따랐었다.

한동안 김해시내로 파견 근무를 나왔는데 그때 대통령 후보였던 申翼熙 선생의 서거(逝去) 소식을 듣고 많은 국민들은 충격을 받았었다. 그때 듣기로는 전날 서울 한강 백사장에서 유세 때 청중이 백만이 넘는 사상 유례가 없는 인파가 운집했었고 다음 유세차 부산행 열차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지셨다는 것이다. 모두 다 운명 소관 이라할까?

경상남도 남단에 위치한 땅 김해 그곳은 유적이 많은 역사적인 고장이기도하다. 나도 군생활의 기회가 아니었던들 여기 와 볼 기회가 그리 흔치 않았을 것이다.

500여 년간 화려한 금관가야의 수도였던 이곳 김해에는 駕洛國의 시조 김수로 왕릉(金首露王陵)인 왕능공원(王陵公園)이 자리하고 있어 우리는 외출 때면 동료들과 그곳을 자주 찾곤 했었다.

악사 우륵(樂士 于勒)은 가야금(伽倻琴)과 가야의 궁전음악을 신라의 궁전음악이 되게 하였다 그 후 가야는 신라 장군 異斯夫에 의해 500년 역사의 가야문화가 문을 닫았다. 그 왕릉공원 옆으로는 봉황동(鳳凰洞)이란 마을이 있었는데 그곳은 당시 集倡村(집창촌) 이어서 군인들의 출입금지 구역이 되었던 곳이어서 우리 같은 순진한 군인들은 군 생활 3년 동안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이기도 하다. 시내에서 학교 쪽으로 가다 보면 오른쪽 산에는 허황옥 왕비이며 김해 허씨 시조의 묘가 있다.

나는 삼년간의 군 생활을 이곳 김해에서 정을 붙이고 지냈다. 이곳 공병학교에도 대략 많은 복무 군인이 거의 김해 출신들이 많았다.

무려 3년 동안 정 붙이고 지냈던 김해 육군 공병학교 거기에서 같이 군대생활하며 동고동락(同苦同樂)했던 옛 전우들, 오늘 이 글을 쓰며 정겨웠던 그들 이름이라도 한번 불러보고 싶어진다.

선임하사 조성규, 내무반장 김윤기, 그리고 영동 이원에 사는 이상중, 공주에 김창규, 안성 금광면의 고종우, 김해에 라도영, 김용태, 김기업, 김

중기, 그리고 서무를 보던 서울의 남기영, 당시 시도했던 ST군번을 달고 설치던 진주의 강이조, 청주의 박광옥 등등, 반세기가 넘었는데도 나는 아직 그들의 얼굴과 이름을 또렷하게 기억 할 수 있다. 그만큼 정이 깊이 들었던 때문일까? 그들은 지금쯤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들 살고 있을까 그들도 한번쯤은 내 이름을 불러볼까?

나는 가끔 옛날 공병학교며 그 당시 김해의 군대 친구며 한번 꼭 그곳 김해를 가보고 싶는데 마음일 뿐 실행이 쉽지않았다.

이들 중에서도 청주의 박광옥, 그는 청주 우체국에 근무하다 입대했는데 공병학교까지 같이 와서 3년 동안을 줄곧 한솥밥을 같이 먹고 한 내 무반에서 한 이불속에서 동고동락한 그야말로 특이한 인연을 맺은 막역한 사이다.

게다가 우연인지 필연인지 그와는 제대를 일 년 남겨두고 같이 휴가 나와서 결혼도 내가 결혼한 다음날 하루 차이로 했던 인연으로 제대 후에도 우리는 부부동반으로 서로 방문하며 친형제처럼 왕래를 했고, 사회에서도 남다른 우정을 이어갔다. 그는 직장을 따라 충주에 살면서 손자만 보았다 하면 늘 나에게 찾아와 손자들 이름을 작명(作名)해 가곤 했다. 어머니가 생전에 계실 때에는 꼭 쇠고기와 약주를 사 들고 와서는 어머니 앞애가 큰 절을 올리곤 했던 예의 바른 친구였는데 근래 안식구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했다. 조속한 쾌유를 빌며, 불원 아내와 함께 문병을 가볼 예정이다.



欲人勿聞 莫若勿言 欲人勿知 莫若勿爲

莫人之大恩 記人之小過

- 道德經 -

남이 듣지 못하게 하려거든 말하지 말고

남이 알지 못하게 하려거든 하지 말라

짜이 없는 사람은

남의 큰 은혜는 잊어버리고

남의 작은 허물만 기억한다.

12. 천생연분(天生緣分)

57년 여름휴가를 나왔는데 어머니 말씀이 참한 규수 댁에서 혼담이 들어왔는데 휴가 나온 김에 마침 잘 됐다며 사진 한 장을 보이시고는 같이 가 보자고 하셨다, 나는 자의반 타의반 그냥 따라 나섰다.

청주행 버스를 타고 가서 내린 곳은 운천동이었다. 그 당시 운천동은 집이 드문드문 보이는 황량한 채소밭들만이 흰히 보이는 한적한 벌판이었다. 토마토 밭과 채소밭 두렁길을 따라 들어가다 마주친 남향집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넓은 마당 저쪽에서 안방 문이 열리며 장모님 되실 분 인듯한 분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셨다.

접대용 차상에는 계절식품인 얇게 저민 토마토에 설탕을 얹은 과일 상을 사이에 놓고 지금의 아내를 처음 맛았다.

이후 양가에서는 혼사를 급속도로 진행시켜 제대 일 년을 앞두고 휴가 나와서 결혼을 했다.

1957년 11월 15일 한창 무르익어가는 가을 ‘하늘은 높고 말은 살 진다’는 천고마비(天高馬肥)의 풍요(豐饒)로운 계절에 운천동 처가에서 ‘전통 혼례’(傳統婚禮)로 예식을 올렸다. 그때 아버지와 같이 논실 동네에 사는 박한성이란 친구의 아버지가 함을 지고 같이 동행했다. 이분은 논실 우리 신씨 중종의 대소사 일들을 늘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고마운 분이였다.

혼례를 치른 다음날인 16일 신행을 오는 날, 처가에서는 작은 처남 정규 씨가 동행해 주었다.

신행을 하는 날 청주-진천 간 양 도로가에는 중추佳節(仲秋佳節)인지라 누렇게 익은 벼들은 황금물결을 이루어 넘실거렸고, 병풍처럼 둘러있는 양쪽 산에는 울긋불긋 영롱한 단풍들이 한 폭의 동양화처럼 영롱한 동영상을 이루며 지나갔다.

우리 신행차가 마을 입구에 도착하자 마을 사람들이 남녀노소 모두 청사초롱을 들고 나와 가마를 대령하고 맞아 주었다. 이때 잠깐 내 머리 속을 스치는 아쉬움이 있었다. 전에 曾祖父께서 작품으로 완성하셨던 그 웅장한 한옥(韓屋)에서 이 신행을 맞았더라면 오늘의 우리 결혼 신행이 한층 더 돋보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옛집과 옛 마을이 저수지(貯水池) 공사로 침수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또 옛 출생지 마을로 원대 복귀한 것이다.

그날 아랫마을과 윗마을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 조출한 그리고 단란한 마을 혼사 잔치가 베풀어졌다. 다음날 우리 부부는 어머니와 함께 새로 축성된 저수지 제방을 지나 우리 고장의 명산 거북산 정상에 올라 높고 푸른 가을하늘과 단풍계절의 정취를 만끽하며 신혼여행을 대신했다.

처가의 장인이신 이성직 어른은 청주시장(淸州市長)을 역임 하셨는데, 6.25때 세상을 떠셨다. 장모님은 서산 분이셨는데 성격이 차분하시고 말수가 적으셨으며 슬하에 4남 3녀 7남매를 두셨다. 큰 처남이 중규이고, 작은 처남은 전에 동아 방송국에 근무했던 정규, 그리고 그 아래 딸로는 맏이인 용규(蓉珪)가 집사람이다. 청주시내 남문로 본정 거리에서 ‘리라양장점’(洋裝店)을 하다 결혼했다. 다음이 인규였고, 다음이 신규로 미국에 이민 가서 살고 있다. 다음이 원규인데 청주에서 사업을 하다 얼마 전에 불의의 사고로 아깝게 세상을 떠셨고, 다음이 양규처제인데 도로공사에 근무하던 부군과 사별하고 치과의사인 아이들과 동탄 신도시에서 단란하게 노후를 즐기며 살고 있다.

결혼 당시 아내와 나는 스물넷 갑술생 동갑내기였다. 아내는 도시에서 공무원 가족으로 험한 일을 모르고 귀하게 자랐다. 복잡한 도시의 생활환경보다 자연 친화적인 전원생활(田園生活)의 이상을 꿈꾸며 농촌을 동경하고 농사란 농자도 모르면서 부푼 꿈을 안고 농촌으로 시집왔다. 그때 우리가족 환경은 위로는 조모님, 부모님과, 또 아래로는 층층 초. 중. 고 학생에서부터 코 훌리게 시동생까지 대 가족의 조석과 빨래며 틈틈이 들 일까지도 시중을 들어야했다. 그뿐더러 9대 종손부(宗孫婦)로써 설이나 추석 명절에서부터 많은 조상들의 제사를 받들어야 했고, 그때마다 많은 손님 차례를 해야 했다. 매일 아침 새벽잠을 설치며 아침마다 아궁이에 보리 짚 등으로 불을 때서 여러 개의 도시락을 싸 시동생들의 통학을 도와야했다. 많은 식구들의 빨래는 겨울이면 푹푹 언 시냇물에서 두꺼운 얼음을 깨고 찬물에 손을 호호 불어가며 겨울 빨래를 해야 했다. 그래도 누구 한사람 수고한다는 공치사 한번 들어본 적 없고 가정의 모든 잘못된 하자나 불평불만은 아내 앞으로 쏟아져 들어갔다. 그때 나는 층층시하에서

아내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다.

옛 말쑤에 나라가 어려울 땐 어진 재상이 생각나고, 가정이 어려우면 어진 아내가 생각난다 했던 가. 아내는 비록 체구는 작지만 그의 강인한 인내력과 맡은 일이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며 끝까지 해내고야 마는 투지는 나도 감히 근접할 수가 없다.

아이들 셋이서 공부할 당시 아내는 아이들 학비를 보탠다며 오리를 키우는 '주원농산'에 입사해 오리사육장, 가공부 등을 전전 해가며 밤 자정이 넘도록 거의 매일 밤 야근을 해가며 비가 오나 눈이오나 몸을 아끼지 않고 주야로 일을 했다. 그때 마을에서는 많은 아줌마들이 같이 입사를 했었으나 힘들고 어렵다며 모두들 떨어져 나왔는데, 홀로 끝까지 남아 십여 년 동안을 버티며 악착같이 일하고 또 일했다.

그런 아내가 있어 어려운 농촌생활 속에서도 아이들 삼형제 구김살 없이 잘 키워 교수 자리까지 올려놓았으니, 아내의 수고에 그저 고마울 뿐이다.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이 아내를 두고 한 말인 듯 실감난다.

무려 반세기 이상의 한평생을 무능한 남편 그리고 없는 집에 와서 철저한 자기희생과 봉사로 살아온 아내, 늘 이심전심이려니 생각하며 아내 한번 마주보고 낮 뜨겁고 겸연쩍어 가슴속 깊이 묻어둔 사랑한단 말 한마디 끄집어 내지 못하고 오늘 백발을 맞았다. 이제껏 속으로만 쌓아 둔 채 아껴온 그 후회를 날리려 오늘 지면을 통해서나마 꼭 말하고 싶다.

'그간 고생 많았소, 고맙소, 여보 진심으로 사랑해요'라고 쌓였던 속마음을 전한다.

한국 사람의 민족정신과, 조상 대대로 이어온 유교정신(儒敎精神)이 복합적(複合的)으로 맞물려 결합돼 내려온 혈통의 탓일까, 그저 묵언(默言)만을 덕목(德目)으로 살아왔을 뿐, 충충시하에서 놀려 지내며 아이들 한번 끌어안고 귀여워 해보지 못하고 살아온 과거를 돌아보면 아이들한테도 그저 미안할 뿐이다.

나는 입대 후 논산훈련소 훈련기간 2개월을 빼면 무려 3년간의 군대생활을 이곳 김해에서 보냈다. 그러다보니 김해는 나에게 제2의 고향처럼

정이 들었고 경상도 사투리도 서서히 정이 들어 귀에 익어갈 무렵, 육군 병장계급(兵長階級)을 끝으로 군복을 반납하고 3년간의 정들었던 김해 땅을 뒤로하고 1958년 11월 20일 구포역에서 서울행 12열차에 올랐다.



衆之所助雖弱必強. 衆之所去雖強必亡
衆人 知目前之利 不爲歲月之計
- 老子 -

많은 사람이 도우면 비록 약하나 반드시 강해지고
많은 사람이 발길을 돌리면
비록 강자라도 반드시 망한다.
많은 사람들은 눈앞에 이익만을 알고
먼 앞날의 계산을 하지안는다.

13. 주경야독(晝耕夜讀)

입대(入隊)한지 만 37개월 그리고 결혼한지는 1년 만에 환회의 부푼 꿈을 안고 고향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인 옛 花山洞 그 마을이 아니었다.

봄이면 복숭아꽃, 살구꽃, 개나리, 진달래 만발하는 꽃동산 밑에서 정겹게 오순도순 살아가던 50여 호 화산동 마을이 송두리째 없어지고 푸른 물로 가득 채워진 저수지로 변해 있었다.

식량의 원천인 문전옥답(門前沃漚)은 물밑으로 가라 앉아 침수되었고, 마을 집들은 옹기종기 물가 산 밑으로 올라앉았다. 하루아침에 먹고 살 농토를 잃은 젊은이들은 앞으로의 호구지책(糊口之策)이 막연했다. 앞으로의 생계가 어둡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젊은이들은 실의에 빠져, 술타령으로 울화를 달랬고, 심지어는 도박판에도 뛰어드는 등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방종하며 매우 위험한 지경에 빠져들고 있었다.

당시는 농촌 환경이 어디나 그러했듯이 가난한 살림이었지만 집집마다 많은 아이들로 들끓었고 가망큰 짚고, 학력, 지식, 기술, 배경, 돈, 아

무것도 없는 처지여서 객지로 나갈 수 있는 형편이 못되어 마을 마다 젊은이들은 넘쳐났다. 억지로 친신만고 끝에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일생에 모든 학업은 끝나는 것으로 알았었다. 그런 실망스런 현실은 그대로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실정이었다.

제대를 한 이듬해 봄, 나는 마을 청소년들을 불러 모았다. 그리고 힘주어 신중하게 입을 열었다.

‘우리 마을이 이런 상태로 무질서하게 방종하다가는 선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전통 있는 미풍양속(美風良俗)이 우리 대에 와서 끊기고 파괴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역사에 큰 죄를 짓는 것일뿐더러 죽어서라도 무슨 면목으로 조상들을 대하겠는가? 지금 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우리 모두 心機一轉해서 마을 기풍을 바로잡고, 우리 마을이 子孫萬代까지 영원히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대오각성(大悟覺醒)해 마을을 再建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마을이 이대로 주저앉느냐? 일어서느냐?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의 생각과 손에 달렸습니다. 라고 힘주어 설득 했다.

아직도 가슴엔 정의의 피가 살아있는 사려 깊은 젊은이들은 기꺼이 동의하고 환영의 박수가 울려 나왔다.

그리하여 마을을 다시 일으켜 세워 보자는 숭고한 뜻으로 ‘재건동지회’(再建同志會)라는 명칭을 택하고 한데 뿔뿔 뭉쳤다. 나는 이날 여러 회원들에 떠밀려 회장을 맡게 됐다.

첫 사업으로 일단 우리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 의논하고 대화할 수 있는 장소인 會館이 필요했다. 회관을 짓자 한마디 제의에 일사천리로 모두 찬성했다. 동원령이 내려지자 가난했지만 노동력은 풍부해서 모두들 삽과, 팽이, 지게들을 지고 나와 흙을 파서 나르며 일부는 흙을 이겨 벽돌을 찍고 일부는 산에 가서 기둥과 서까래 감을 마련했다.

모든 자재 준비를 완료하고 흙벽돌이 마르는 동안 술과 음식을 마련하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여 농악을 울리며 성대하게 기공식을 마치고 본격 작업을 시작했다. 목재를 다듬어 기둥을 세우고 벽돌을 쌓고 서까래를 걸고 일부는 방 온돌을 놓고 지붕을 만들어 덮어 약 한 달여만의 친신만고 끝에 우리의 소원인 번듯한 회관이 탄생했다.

‘화산재건 동지회’(花山再建 同志會)란 간판을 걸고 멋지게 竣工式을

했다.

인내와 투지 그리고 열정이 이루어낸 작품이다. 무엇이든 불가능은 없다. ‘하면 된다.’는 교훈과 진리가 우리에게도 통한 것이다.

이런저런 사정들로 공부하지 못하고 학업에 굶주린 청소년들을 모두 마을회관으로 불러냈다. 그리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모여 공부했다. 이른바 주경야독(晝耕夜讀)이다.

일부 중학과정 그리고 동양철학(東洋哲學)이며 인성교육(人性教育)의 지침서 明心寶鑑을 가르쳤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오랫동안 공부에 굶주렸던 터라, 어두운 터널을 나와 햇빛을 보는 듯 목마른 고기가 물을 만난 듯 자정이 가까워도 조는 모습은 볼 수 없었고 두 눈은 시간이 흐를수록 또랑또랑했다. 행여 지루하다 싶으면 이슬한 밤 저수지 수면 위로 반사되어 흘러 들어오는 달빛을 바라보며 열심히 學院歌를 열창하며 흥을 돋웠다.

무제봉 맑은 정기 어린인 곳에
어엿이 우뚝 솟은 화산의 학당
슬기와 땀을 모아 배워나가세
장하다 우리는 나라의 보배

이렇게 배우는 자와 가르치는 자가 혼연일치가 되어 열과 성을 다하니 학생들의 실력 또한 日就月將이었다.

이때 윗마을 점세울 에서 임억철(林億喆) 임헌성(林憲成) 숙질간의 두 분 선생님이 이월 초등학교에 봉직하고 계셨는데 출 퇴근 길에 수시로 들리시며 아이들을 격려해주시고 공책이며 백묵 등 학용품을 보내 주시곤 하셨다.

그 뒤 어떻게 알았는지 진천 教育廳 장학사 선생님들이 찾아 오셨다. 학생들을 격려해주시고 보수도 없이 후배들을 위해 봉사해주셔서 고맙다는 말로 힘을 불어넣어 주셨다. 그 뒤에 안 일이지만 이월학교 두 분 선생님이 교육청에 귀 땀을 해서 현지 확인 차 나온 것이었다.

그해 연말을 맞았는데 교육감과 장학사를 비롯한 군청 교육관계공무원

들 일행이 많이 오시면서 칠판, 교탁, 기타 학용품 등 많은 교육자재(教育資材)들을 차에 가득 싣고 오셔서 物心兩面으로 우리들의 힘을 북돋아 주셨다.

마을에서도 과일과 음료 등을 마련해 성의껏 답례를 했다. 다과회 자리에서 교육감님은 교육이란 시기가 있는 것인데 기회를 놓친 청소년들을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대신 한다며 뜻있는 봉사를 해주어서 교육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무한한 감사를 표한다며 앞으로 애로사항이 있으면 연락하라며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이듬 해 가을 예비군 동원훈련 소집영장을 받고 제2의 병역의무를 위해 중평 37사단에서 1개월간의 훈련을 받았다. 주말에는 외출이 있었는데 그 많은 장병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때면 버스 편이 드문 당시는 대 혼잡이 야기되는데 운이 좋거나 악бар리가 아니면 차를 탈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때 우리 이월에서 같이 갔던 몇몇 친구들이 사단 뒤 頭陀山을 넘어 양아자리 동네를 거쳐 초평저수지를 지나 진천으로 해서 이월 집에 까지 걸어서 왔던 기억을 오래된 지금도 그때 그 생각이 잊히지 않는다. 훈련을 받던 중 일과가 끝나고 내무반에서 쉬고 있는데 본부중대 하사관이 혈레벌떡 달려오더니 긴급 뉴스를 전했다 ‘오늘 북한에서 재일동포를 북송’ 했다고 비상을 걸었다. 우리는 그저 무슨 소린지 어이가 없을 뿐이었다.

지금도 산악회 친구들과 가끔 두타산으로 등산을 갈 때면 옛날 예비군 훈련 때 이 고개를 넘었던 일을 상기하며 혼자 쓴 웃음을 짓곤 한다.



秋林孤影招朔風 空使流歲促白髮
萬山紅葉染天地 深谷流水吟法界

- 慧超 -

가을 숲 외로운 그림자 삭풍을 부르고
부질없이 세월은 흘러 백발을 재촉 하네
만산에 단풍잎은 천지를 물들이고
깊은 골짜기 흐르는 물은 법계를 노래하네

14. 첫 생남과 서울 행

59년 8월 21일 첫째 아이가 태어났다. 우리 집에서는 실로 오랜만에 고귀한 생명의 탄생이다. 십대 종손 원섭이다. 순간 나는 아버지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이 양어깨를 눌렀다.

이제 국방 의무도 끝났고, 생남도 했으니 남은 건 취직을 해서 돈벌이를 하는 것뿐이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보람된 일이긴 하나 소득이 없는 이 일을 언제까지 이어갈 것인가가 숙제이고 고민거리였다. 그렇게 아이들과 주경야독하며 날을 보내는 동안 세월은 흘렀다.

1962년 그 해 겨울은 유난히 따듯했다. 서울 매부한테서 전보가 왔다. 전보 내용인즉 ‘취직 급 상경’ 불과 다섯 글자의 간단한 내용이었지만 나에게게는 구세주 손길 같은 내용이었다. 그 순간 또 공부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영상처럼 떠올랐다.

어차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는 어려운 일. 한쪽 줄은 놓아야 했다. 그날 저녁 학생들을 설득하며 눈물의 송별회(送別會)를 했다. 떠나오던 날 아침 학생들의 환송을 받으며 서울행 버스에 올랐다.

매부 이희정 씨는 원래 고향이 황해도인데 북한 정치가 싫어서 월남한 아주 옛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오랜 전통의 천주교신자 집안이었다.

다음날 매부와 같이 간 곳은 서울명동 ‘가톨릭 의과대학 부속 성모병원 원무과(醫科大學 附屬 聖母病院院務課)였다. 간단한 면접을 마치고 몇 마디 대화를 마치고 나니 원무과장은 이번 주말 내로 구비서류(具備書類)를 갖추어 제출해달라고 말하고 서류가 접수되는 대로 근무하게 될 거라고 말했다.

당시 성모병원 원장은朴喜奉 신부였고 명동성당에는 노기남 대주교가 큰 어른이었다.

그 무렵 같이 살던 고향 마을에서 먼저 서울에 와서 세종로 쪽에 ‘大韓水利組合聯合會’에 근무하던 윤홍림이란 선배가 자기 사는 마을 근처에 방을 하나 구해 놓았으니 와서 같이 이웃하자고 해서 찾아간 곳이 수유리 국민주택 단지였다. 그 당시는 서울에 아파트가 없었고 인구난을 해결

하기 위해 처음 시도 한 것이 이곳 수유리 국민주택단지(國民住宅團地)였다. 그 무렵 바로 옆 에는 쌍문동이었는데 명색이 서울특별시라 면서 전기가 없어 촛불이나 호롱불을 켜고 살았었다.

수유리 종점에 살면서 명동으로 시내버스 통근을 했다. 종점이어서 봄비는 통근 시간에도 편히 좌석에 앉아 출퇴근을 했다.

그때 우리는 큰 아이는 시골집 할머니에게 맡기고 둘 전인 둘째 광섭이만 업고 왔었다. 쉬는 날이면 둘째를 업고 우이동 산에 올라 나무 부스러기를 주어다 연탄 불쏘시개를 하기도 했다.

근무하는 병원은 가톨릭 병원 이어서 각 부서 요소요소에는 신부 또는 수녀들이 책임자였고 직원들도 거의 가톨릭 신자들이 많았었다. 그래 일반 신자가 아닌 자 들은 공연히 왕따 당하는 느낌이었다.

그러던 중 할머니 수녀 한분이 늘 나를 가까이 보살펴 주시곤 했다. 미국교회에서 나오는 옷가지며 분유며 救護品들을 가져다주시고 어머니 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셨다

60년대 초반 우리나라는 아직 생산되는 물품이 별로 없어 외국에서 들어오는 원조물품으로 생활을 꾸려가는 예가 많았다.



父不言子之德 子不言父之過

勢不可使盡 福不可享盡

-明心寶鑑-

에비는 자식의 덕을 말하지 아니하고
자식은 아버의 허물을 말하지 말아야한다.
권세는 다 사용하지 말아야하고
복은 다 누리지 말아야한다.

15. 가톨릭 가족이 되다

어려운 시기에 객지에서 만난 할머니 수녀님은 나에게는 천사(天使)와도 같은 분이였다. 수녀님은 교리공부를 열심히 해서 영세준비를 하라고

일러주셨다. 그 후 고시준비생처럼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공부한 실력으로 의사, 간호사, 다른 직원들과 같이 영세를 받고 당당하게 가톨릭인이 되었다.

세례명은 ‘미카엘’이다. 새로운 세상에 한발 다가 선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이듬해 봄에는 집사람과 둘째 광섭이도 함께 영세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우리 세 식구는 모두 가톨릭인이 되었다.

그로부터 우리 부부는 열심히 교회에 나가 미사에 참여했다. 그때 李孝祥 국회의장을 성당에서 자주 만나 같이 예배를 보곤 했다. 아주 착실한 카톨릭 신자였다.

63년 가을 韓日 늑약 합방이후 일본에 볼모로 끌려갔던 마지막 황태자 李垠 씨가 그 부인 芳子여사와 함께 말년에 병든 몸을 이끌고 돌아오면서 곧바로 우리 성모병원에 입원했었다.

그는 노구(老驅)의 몸이었으나, 풍채가 우람하고 위엄이 깃들어 있었지만 혼자 힘으로 걷지를 못하고 휠체어에 의지한 채 보호자가 밀고 다녀야했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실어증(失語症)이었다.

가끔 7층 입원실 복도에 휠체어에 의지한 채, 남쪽 창문에 앉아 물끄러미 멀리 창덕궁 쪽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옛날 어릴 적 뛰어 놀던 그 시절의 생각에 잠긴 듯 말없이 눈시울을 적시곤 했었다.

그는 어릴 적, 나라가 일본에 합방되면서 볼모로 일본에 끌려가 일본 천왕의 딸 방자와 정략결혼(政略結婚)을 해서 아들 玟(구)를 낳았는데, 그 아들은 미국으로 이민을 가 그곳에서 미국 여인과 결혼해서 그 미국여인과 함께 성모병원으로 아버지를 만나러 같이 왔었다.

조선 말기 나라가 힘을 잃어 식민지가 되고 어지러워지면서 말년에는 왕족들이 원한의 땅 원한이 맺힌 나라 왜인들의 여인과 결혼을 하는가 하면 또 그 아들은 미국에 가, 서양여인과 결혼을 하는 등 동서양을 아우르는 혼혈이 되었으니 조선왕조 500년의 정통 왕족들의 혈통은 이렇게 영화롭지 못한 막을 내리고 만 것이다.

옛날 중국의 춘추전국시대 노나라의 사상가 열자가 말하기를, 年月日時該載定(년월일시해제정)하니 算來由命不由人(산래유명불유인)이라. 모든 것이 운명의 장난이라고 돌려버리는 것이 편할는지 모를 일이다.

병원 근무를 하면서 흔히 볼 수 없는 의대생들의 시체해부실습과정(屍體解剖 實習科程)을 어렵게 볼 수 있었다.

시체실에서 의대교수의 지도아래 까운을 입은 학생들이 한가운데 卓子 위에 시신을 나체로 벗긴 다음 머리를 면도로 밀고 나서 작은 전기톱으로 머리윗부분 두개골을 돌려 썰어 열고, 골을 조심스레 꺼 내어 무게를 달고, 사진을 찍고, 기록하고, 시험관에 넣고, 다음은 가슴을 열어 같은 방법으로 심장, 폐, 기관지등, 그리고 배를 열어 내장을 하나하나 같은 방법으로 조심스레 꺼내 중량을 달고, 사진을 찍고, 기록하고 시험관에 넣고, 하는 작업을 계속했다.

나는 평생 처음 시체 해부과정을 보면서 의대생들의 強心臟을 보고 매우 놀라웠다. 의사란 역시 많은 실습과 경험을 쌓아야 실무에서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근무 하는 동안 늘 시골에 아버님의 건강이 걱정 이었다. 그레 여름 휴가철에 시골 내려가 아버님을 모시고 당시 권위 있는 내과 서석주과장에게 진료를 의뢰 했는데 ‘파킨슨씨병’이라는 진단을 받고 여러 가지 복약을 했지만 노환이어서인지 기대한 만큼의 이렇다 할 효과를 보지 못했다. 영세 이후 우리 내외는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마음속으로 열심히 기도했다. 착실히 신앙을 생활화하면서 다음 해에는 노기남 대주교의 집전으로 의대 교수 및 여러 직원들과 함께 7층 대강당에서 견진성사를 받고 견진을 축하하는 파티에는 프랑스 와인으로 건배를 제창하며 많은 분들의 축하를 받았다.

영세와 견진을 받고나니 성직자라도 된 듯 그리고 마음의 모든 짐을 내려놓은 듯 마음이 새롭고 홀가분했다.

근무하고 있는 이곳 명동은 역시 옛날이나 지금이나 수도 서울에서도 최첨단(最尖端) 유행의 물결이 시시각각 넘쳐 나고 선남선녀들의 싱그러운 사랑이 무르익고 정열이 넘치고 활력이 솟구치는 환상의 거리 이기도 하다. 미도파 백화점에서 쏟아져 나오는 최신 명품들이 날개를 달고 명동 거리로 홍수처럼 밀려 오는듯한 풍경은 밤 깊은 줄을 모르고 불야성을 이룬다.

이 무렵 박대통령은 해가 바뀔 적마다. ‘일하는 해’, ‘더 일하는 해’를

구호로 외치며 경제개발의 끈을 늦추지 않았다.



바티칸은 지구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이다
이 작은 나라가 전쟁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에 가깝다 그러나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한대이다.



人必自毀以後人毀之
國必自亂以後外侵之
-道德經-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정에서
식구들이 먼저 흉을 본 후라야
남이 흉을보고
나라는 반드시 국내에서 소란이
있을 후라야 외국이 침략한다.

16. 뿌리를 돌아보며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의 젊은 세대가 자기 조상의 뿌리를 잇고 살아가는 경향을 염려하여 조상의崇高한 정신을 되새기며 미래를 조화롭게 설계하고, 새 시대를 열어가는 지침으로 후세들이 훗날 선조들의 忠, 孝, 信, 義(충, 효, 신, 의) 정신을 돌아보며 가정을 화목하게 이끌고 원만한 사회생활에 기여했으면 하는 가느다란 소망을 가지고 선조의 고매한 숨결이 이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 간절하다.

우리의 시조 壯節公 申崇謙(장절고 신승겸)어른은 곡성에서 출생하셨고, 처음이름은 能山(능산)이었다. 일찍이 학문을 닦아 13세에 문장을 이루었고, 15세에 유과에 壯元及第 하였으며, 18세에 대장이 되시여 高麗王建太祖를 추대해 돕던 중, 서기 927년 태조를 모시고 대구 달성군 공산

면 지묘동 동수 전투에서 後百濟 甄萱(후재제경훤)의 군에 포위 되어 왕건태조가 위태롭게 되자 왕을 살리고 代死하였으니 당시 직책은 개국원훈 대장군이셨다. 그후 벽상호 기위태사 개국공으로 책봉되어 시호를 장절공이라 하였다.

춘천 소양강 비방동에 예장으로 모시고 태조 묘정에 배향되었다.

壯節公 神道碑
(장절공 신도비)

高麗壁上虎 騎衛太師 開國公 三重戴匡 毅景翊
戴匡衛怡輔 砥節底定功臣 匡翼效節 獻襄 諡壯節中公 神道碑

江原道 春川 昭陽江 북쪽 비방동에 三 墳墓가 있으니 고려의 太師功臣 高麗太師 壯節公 申崇謙始祖의 體魄을 奉安한 곳이다.

높다란 산 양지바른 언덕 남쪽에 봉분 셋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는데 세상에서 전해오기를 태사가 진사할 때 그의 머리를 잃은지라 왕건태조가 태사의 머리를 금으로 불리어 만들어 시신과 함께 장사지내면서 혹시 몰래 이를 건드리는 자가 있을까 염려하여 봉분을 셋으로 하여 잘 분간할 수 없도록 한 것인데 제향 때에는 한가운데 봉분에 참배하고 있다.

공은 체격이 장대하고 기민한 지략이 있었으며 특히 궁술이 뛰어나 일찍이 왕건태조와 함께 황해도 평산 땅에 많은 군사들과 같이 사냥을 갔을 때 마침 세 마리 기러기가 하늘 높이 날아 지나가자 왕건태조가 여러 장수들을 돌아보며 말하기를 ‘누가 저 기러기를 쏘겠는가?’ 하였다.

이에 공이 여러 무리에서 앞서나와 말하기를 ‘청컨대 신이 쏘리다.’

‘몇 번째 기러기를 쏘아 맞추리까?’하니 태조가 웃으면서 말하기를 ‘세 번째 기러기의 왼쪽날개를 마치라’ 하거늘 그때 공의 활시위가 당기어 지자 순간 기러기가 땅에 떨어졌는데 과연 세 번째 기러기의 왼쪽 날개가 맞아 떨어진지라, 이때 왕건태조와 여러 장수들이 탄복하여 마지아니하고, 그 후 세 마리의 기러기가 날아가던 땅을 둘레로 하여 하사하고, 이어 平山으로 공의 관향을 삼게 하였으니, 이 어른이 지금 평산 신씨의 시

조이시며 그 땅을 궁위전이라 하였다.

고려태조 10년 서기 927년 9월 후백제의 견훤이 신라를 침범하자 신라의 경애왕이 고려에 사신을 보내 위급함을 고하고 지원을 청하니 태조가 말하기를 신라는 우리의 동맹국이니 구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면서 군사 일만 명으로 달려가게 하였으나, 미처 당도하기도 전에 견훤이 경주에 침입하여 경애왕을 죽이고 노략질을 자행하였다.

왕건태조가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친히 정예 기병 오천을 거느리고 공과 김락으로 하여금 대장을 삼아 팔공산 동수에서 견훤의 군사를 맞아 크게 싸웠으나, 중과부적으로 견훤의 군사에 포위 되어 전세가 몹시 위태롭게 되자 벗어날 수 없음을 살피고 몸소 태조를 대신해 죽기를 자청하고 동시에 태조를 애수에 숨기고 왕의 수레에 타고 최후의 일각까지 용감히 싸우다 전사하니 견훤의 군대가 공을 태조로 알고 그의 목을 잘라 창에 꿰어 돌아가자 포위가 풀렸다.

왕건 태조가 겨우 죽음을 면하고 싸우던 곳으로 돌아와 공의 시신을 찾으려하였으나 많은 시신 중에 공을 분간할 수 없었더니 공의 왼발아래 북두칠성의 점이 있어 분간할 수 있었으므로 확인하여 시신을 찾았다.

태조는 오른팔을 잃은 슬픔으로 심히 통곡하면서 예를 갖추어 후하게 장사지냈다.

그 후 태조는 동수에 지묘사를 지어 명복을 빌게 하였으며 뒷날 태조 묘정에 함께 모시여 고려의 종말까지 매년 나라에서 제례를 올렸다.



忠憲公 平山申公 礪 神道碑
(충헌공 평산신공 잡 신도비)

贈大匡輔國 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 兼領經筵 弘文館 禮文館
春秋館 觀象監事 世子師 行 忠勤貞亮 效節協策 扈聖功臣
輔國崇祿大夫 行議政府 右參贊 兵曹判書 判義禁府事 知春秋館事
五衛都總府 都總管 世子左賓 客 平川府院君 贈諡 忠憲公
獨松齋先生 平山申公礪之碑

위 어른은 나의 15대조이시며 진천군 이월면 노은 영당에 모시여 저 진천군 문화유적으로 등재되어 매년 유립에서 주간하여 제향을 모시는 어른이시다.

문헌에 이르기를 임진왜란이 일자 추풍령을 넘어 홍수처럼 몰려오는 왜군을 방어하기 위해 왕명을 받아 충주 탄금대 달래강에서 背水陣을 치고 왜군과 일진일퇴의 치열한 공방전을 버리다 중과부적으로 왜군에 포위되자 강에 투신 하신 충장공 신 립 장군의 만행 되시는 어른이시다.

공은 어려서부터 타고난 기질이 뛰어나 충효와 우애정신이 남달랐다.

1584년 선조16년 정시문과에 급제하였다. 그로부터 경성판관 밀양부사 내직으로 돌아 와 임금의 앞에서 경서를 강론하는 경연자리에 입시하여 선조임금과 더불어 흥금을 터놓고 바른말로 정사에 임했으며 1593년 왜란이 불리하게 전개되자 왕의 몽진에 호종했다.

그 후 병조판서 호승공신 평천 부원군에 봉해졌다.

노년에는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 충청도 진천 노은실로 돌아와 후학들의 유학강의에 전념하시며 지금의 노원리 書院마을에 서원을 짓고 유학의 시서를 강론하셨으니 이름 하여 ‘百原書院(백원서원)이다.

‘百原書院’이란, 문헌에 ‘孝爲百行之原’이란 글에서 百자와 原자를 따서 지은 서원 이름이다. 그 후로 서원은 노은실 강당말로 옮겨졌고, 다시 지금의 이월 초등학교의 모체가 되었다.

공의 휘는 잡이요 자는 백준이니 독송제는 아호이다. 1822년 충헌공으로 시호가 내려졌다.

1541년 중종 36년 7월 22일생이고 광해군 원년 4월 12일에 서거하시니 수 60세로 생을 다 하시었다.



人之短處 要曲爲彌縫
如暴而揚之 是以短攻短

- 老子 -

남의 단점은 간곡히 덮어주어야 한다.
만약 폭로하거나 들추어내면 이것은

나의 단점으로 남의 단점을 공격 하는 것이다.

17. 기쁜 소식

이 글을 쓰고 있는 2011년 7월 7일, 이른 새벽 각 방송매체 에서는 아나운서들의 숨 가쁜 뉴스가 목청을 높여 외쳐 지고 있다.

‘2018년 동계 올림픽 평창유치성공’ 곧 이어 조간신문에는 ‘평창 위대한 승리’ 일면 톱기사였다. 이날 한국은 독일과 프랑스와의 개최지 유치 경쟁에서 월등한 표차로 유치에 성공한 것이다.

이로써 한국은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일본에 이어 지구촌 주요 스포츠 이벤트인 월드컵, 동, 하계올림픽, 세계육상선수권, 세계자동차 경주 대회를 모두 개최하는 사상 다섯 번째 나라가 된 것이다.

국제 올림픽 위원회(IOC)는 7월6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123차 총회에서 평창을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했다.

그 순간 지구 반대편 평창을 비롯한 전국 각 지방마다 감동과 환호의 만세소리가 동시에 울려 퍼졌다. 역동적인 세계일류국가 반열에 성큼 다가서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긍지를 느낀다.

그러나 7년 후 내가 이 동계올림픽을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苛政猛於虎 可懷以德 難屈以力

- 論語 -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

덕으로써 회유할 수는 있으며,

힘으로써 굴복시키기는 어렵다.

18. 마을 이장

이제까지 우리는 농토를 남에게 임대를 주었었다.

60년대 초반 무렵 향간에는 지주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논은 土地改革이 되어 소작하는 사람에게로 농토가 넘어간다는 설이 돌았다.

그래서 나는 직장생활을 접고 농사를 지어볼 생각으로 저수지 아래 농토 가까이에 있는 학동이란 마을로 이사를 했다.

이른 봄이면 아지랑이 물결 따라 종달새 날아오르고, 여름이면 아카시아 향기 풍겨나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다.

이곳 마을에서 나를 건너 향림들에 농토가 있다. 당초에는 꽤 넓은 면적 이었는데 전에 아버지께서는 삼촌을 분가 시키면서 서마지기를 떼어 주었는데 삼촌은 농사도 짓지 않고 논을 팔았다. 근래에 와서 내가 또 막내 동생에게 서마지기를 주었는데 역시 서울에 잡사는데 보탠다며 바로 팔아버렸다.

그 후로는 경지정리(耕地整理)를 하면서 또 면적이 많이 줄었다.

이사를 한 집은 전에 자수성가 했다는 이 고장 부잣집 윤종옥씨가 평생을 살려고 좋은 재목을 골라 마음먹고 심혈을 기울여 지은 집으로 당시 마을에서는 제일 나은 기억자 한옥기와집이다. 그때 시세로 쌀 60가마를 주었다.

이집에 살면서 아이들 삼형제를 모두 공부시키고 건강하게 키워낸 정겨운 보금자리이고 앞으로 내 한평생을 여기서 마칠 집이다.

이사를 내려온 다음해 연말 마을 대동총회에서 마을 이장에 추대되었다.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마을을 위해 한번쯤 젊음을 불살라 봉사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었다.

그러나 당시 이장은 심심풀이가 아니었고 복잡하고 힘든 일이 많았다.

우선 농촌에서 농사짓는데 필요한 비료가 배급제여서 농협에서 비료를 수령 해다 농가별 경지면적별로 할당해서 배급했고, 가을이면 농가별로 일일이 비료대를 계산해 수금해서 농협에 대금을 정산해야했다. 각종 농자재도 역시 같았다. 가을 추수가 끝나면 농가들은 벼를 건조해서 매 5일장마다 정부에서 수매하는 공판을 해서 농지세, 수세, 대여양곡, 비료대, 등등의 일 년 농사 부채를 상환한다.

이장은 마을 전체의 수매가 끝나면 수매 일계표를 수집해 개인별 부채

를 농협에 정산을 마치고 나면 캄캄한 밤이 돼서야 집에 돌아가기 일쑤였다.

농사철 농사일은 마을 전체가 함께 공동 작업을 했다. 소위 말하는 두레작업이다.

경지정리가 되어있지 않은 당시는 농기계도 없었으므로 손발과 힘으로 해야 하는 일이 무척도 힘들고 어려웠다. 내가 마을 이장을 보는 동안은 마을 분들이 공동 작업으로 내 농사를 맡아서 함께 지어주었다.

60년대 중반 식량이 전적으로 부족했던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쌀을 아끼기 위해 혼식과 분식을 장려했고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도시락을 검사하기도 했다. 부족한 식량을 메우기 위해 미 공법에 의해 원조된 밀가루를 지급하며 산을 개간시키기도 했다.

이렇게 백성들이 하루 세끼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할 무렵 박정희 대통령은 ‘농촌이 잘 살아야 나라가 잘 산다’는 일념으로 농촌 혁신운동을 퍼창청북도 몇 개 마을을 선정해서 ‘농기업선도부락(農企業先導部落)’을 육성했는데 당시 奉益根 面長은 이 사업을 우리 마을 학동 부락에 지정을 했다.

당시 이 사업은 청와대에서 직접 관할하는 사업이어서 도, 군, 면의 새 마을 담당 공무원들이 중점업무로 취급되는 사업으로 며칠만끔씩 사업현황을 청와대에 보고하곤 했었다.

청주 종축장에서 부화된 유추 병아리를 당시 구본행 축정과장과 같이 가서 수령해서 마을 농가에서 육계사업을 했고,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특용작물재배를 권장하고 뽕나무를 심어 양잠사업을 장려하고, 소채저장고 및 고추건조실을 두동을 짓는 데는 많은 애로가 있었다. 매일저녁이면 내일 작업할 인부를 수배해야했기 때문이다. 매일매일 수 십 명씩 인원을 동원해서 건조실과 소채 저장고 신축공사를 독려하고 감독해야했다.

담당공무원들도 사업추진 독려를 위해 거의 매일 출장을 나왔다. 때가 되면 아내는 손님접대를 위해 매일 부엌과 안방을 오가며 분주하게 움직여야하는 어려움을 감수해야했다.

농가에 통일벼가 보급되면서 수확이 월등하게 증산 되었다. 소위 ‘녹색혁명(綠色革命)’이다. 한해는 ‘노풍’ 이란 신품종 통일벼가 보급 되었는데

가을 추수기에 느닷없이 우박이 쏟아져 벼 알이 타작한 것처럼 논바닥에 누렇게 쏟아져 농민들은 모두들 비를 들고나가 벼 알을 쓸어 담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마을에서 이월소채지를 오르내리는 안산천에 비가 올 때마다 밭을 벗고 건너는 불편을 해소키 위해 교량 두 개를 놓아 불편을 해소했다.

이렇게 마을사업을 늘어놓고 발로 뛰어다니며 다른 어느 마을이장 보다 고달프고 힘든 업무를 감내하며 동분서주하는 사이 70년도 말 드디어 우리 마을 ‘농기업선도부락’ 사업마무리 실적 평가대회(評價大會)가 있었다.

이 행사에는 당시 金孝榮 道知事를 비롯한 도. 군. 면 새마을관계 공무원과 그리고 우리지역 각 기관장들과 동민 등 많은 인원이 참석한가운데 마을회관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이 자리에서 나는 3년간에 걸친 사업효과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그간 사업추진에 따른 애로사항, 및 개선해야 할 점 등의 현황을 설명했다.

브리핑이 끝나자 참석한 모든 분들의 많은 박수를 받았다. 그때 앞에 앉았던 김효영 지사가 별떡 일어나 앞으로 나오며 ‘이장님 수고 많았다’며 큰 손으로 내손을 덥석 잡아주었다. 순간 나도 감격했다. 이렇게 모든 행사는 성공리에 마쳤다.

3년간의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한꺼번에 확 풀리는 듯 했다.

농기업선도 사업을 성공리에 마치고 그간 많은 애로와 난관을 무릅쓰고 차질 없이 사업추진에 고생이 많았다며 내무부장관의 감사장을 받았다.



人之有德於人也 不可忘 吾遺德於人也不可不忘

有善必聞 有惡必現

-老子-

남이 나에게 베푼 덕은, 잊어서는 안 되고
내가 남에게 베푼 덕은, 잊지 않으면 안된다
착한 일을 하면 반드시 소문이 나고
악한 일을 하면 반드시 드러나느니라.

19. 농지개량조합

개나리 진달래가 양지바른 언덕에 곱게 피어나는 아직은 아침 공기가 쌀쌀한 어느 해 이른 봄, 이월 農地改良組合에서 직원 한분이 집으로 찾아왔다.

조합장님이 나를 만나고자 하신다며 지금 바로 같이 조합으로 가자고 했다. 영문도 모른 채 같이 조합으로 내려가 조합장실을 노크했다.

조합장님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반갑게 손을 내밀어 맞으시며 소파에 앉기를 권했다.

여직원을 시켜 차를 한잔 권하시며 ‘신 이장님 어제는 마을 큰 행사 치르느라 수고 많았다’며 그간 3년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담소의 말문을 열었다.

우리 조합에서는 ‘농사지도원’(農事指導員) 직을 새로 신설해서 지역민 중에 적임자를 물색하고 있었는데 어제 직원들과 상의를 한 결과 신동인 이장님이 우리조합에 와서 어렵겠지만 같이 일을 좀 해주었으면 하는 제의를 했다. 전혀 예기치 못했던 뜻밖의 제의였다.

사람이 세상을 살다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나 고난의 상황에 마주치는 때가 있다. 이럴 때 좋은 이웃이나 선 후 배 또는 친구들이 찾아와 따뜻한 위로나 격려의 한마디를 듣는다면 천군만마(千軍萬馬)를 얻은 듯 삶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얻게 된다.

나도 세상을 살아오며 오늘이 있기까지 많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또 도움을 주며 살아왔다.

인생행로의 길 앞에 높은 벽에 부딪혀 앞이 막혔을 때 어깨를 감싸주던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이 절망의 늪에 빠진 나를 일으켜 세우는데 큰 힘이 되어주었다. 비록 그것이 돈이나 물질이 아니더라도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준다면 한사람의 인생길에 큰 용기와 활력을 불어넣어 주게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김용식 조합장님의 조합에 와서 같이 일 하자고하는 한마디는 나를 인정해주는 의미의 따뜻한 활력소가 되었다.

지금의 農地改良組合은 처음엔 水利組合이었고 그 뒤 土地改良組合으

로 개명했다가 후에 農地改良組合으로 간판을 바꾸었다.

당초 이월 단위 조합이었는데 1郡 1組合이란 정부 시책으로 진천 농조에 통합되어 이월 만승을 아우르는 이만 출장소가 되었다. 이만 출장소에는 저수지가 이월에 화산제 송림제 광혜원에 무수제 와 광혜제 등이 있는데 안산에 송림제와 광혜제는 내가 근무할 당시 축성됐다. 생각해보면 나의 집과 나의 마을은 이 조합의 저수지로 인해 집과 마을이 수몰되는 악연이었는데 지금 내가 여기에 몸을 담게 되다니 전화위복(轉禍爲福)이랄까 새옹지마(塞翁之馬)랄까 운명이란 이런 거로구나하고 새삼 생각하게 된다.

조합의 주요업무로는 농번기의 이른 봄 논갈이며 벼 이앙 작업이 시작되는 때부터는 수로감시원을 채용해서 저수지 수문을 열어 급수를 시작해 영농이 끝나는 수확기에 단수를 하게 되는데 여름 한밭이 계속되거나 폭우가 오거나 하면 직원들의 철야 작업을 하기도 한다.

추수 후에는 조합비 부과 업무에 들어가는데 조합원 별로 경지면적을 등급별로 집계해서 조합비를 부과해 고지서를 발부한다. 컴퓨터나 전자계산기가 없던 시절 조합비 부과업무는 참으로 고달프고 일거리가 많았다. 등급별 면적 집계에서부터 부과량 일체가 수판으로 수작업이었기 때문에 며칠씩 밤을 새워야했다. 조합비 고지서가 완료되면 각 리·동 별로 흥농계장을 두어 조합비 징수를 협조 받는다.

매년 팔월이면 병충해 박멸을 위해 항공방제를 실시한다. 내가 근무하고 있는 동안 이월에는 장양들 내촌들 중산들 향립들 등 경지정리를 해서 영농 기계화에 일조했다.

농지 개량 조합은 근년에 다시 정부 시책으로 農漁村 公司로 간판을 바꾸어 달았고 조합비징수도 폐지되었다.



孫真人 養生銘云 怒甚偏傷氣 思多太損神
神疲心易役 氣弱病相因 勿使悲歡極
當令飲食均 再三防夜醉 第一戒晨嘔
-明心寶鑑-

손진인 양생명에 말하기를 노여움이 심하면 기를 상하게 되고
생각이 너무 골돌하면 정신을 상하게 하고 정신이 피로하면 마음이
사역하며
기가 허약하면 병이 서로 일어나게 되나니, 슬픔과 기쁨을 극진히 하지
말며
음식을 고루섭취하며 밤 술 취하는 것을 방지하고
제일은 새벽에 성내는 일을 삼가야한다.

20. 27친목회와 총동문회장

‘60년대 중 후반 까지도 나라와 백성들은 너와 내가 없이 모두가 가난
하고 배고팠다. 금수강산(錦繡江山)은 어디를 막론하고 붉은 흙 속살을
들어내어 민등산이 였다.

밥을 끓여 먹기 위한 수단이 오직 나무에만 의지해야했으니 산에 나무
가 배겨 날 수가 없는 것은 당연지사다. 밥을 먹고사는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아침밥만 먹으면 모두들 지계를 지고 소바리나 마차를 끌고 산
으로 산으로 올라가 나무를 베어다 불을 때야 밥을 먹고사는 시절이었으
니 오로지 먹고사는 문제 이외에는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다.

식량은 한계에 부딪쳤고 인구는 팽창해서 정부는 고민 끝에 가족계획
부서를 새로 신설하고 아이 덜 낳기 운동을 열심히 폈다.

‘덜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 후로는 더 다급해져서 ‘둘도 많다’라고 외치며 예비군 훈
련장에서는 정관수술을 시술하고 특혜를 주어 장려하고 지도요원들은 마
을마다 부녀들을 상대로 루프시술 등 산아제한을 적극 권장했다.

부족한 쌀 소비를 줄이기 위해 음식점마다 분식을 장려하고 가정마다
혼식을 권장하며 학교마다 혼식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며 도시락을 점검
했다.

그 시절 미 공법 480호에 의한 밀가루와 양곡 배급은 굶주리는 국민에
게 생계를 이어주는 큰 역할을 했었다.

마을 이장을 보던 이 무렵 면소재지를 자주 드나들던 때라 면사무소나
시장골목에서 가끔 마주치는 사람들이 낮이 많이 익고 어디서 많이 보았

던 사람이다 하며 무심코 지나치곤 했는데 결국 알고 보면 竹馬故友 학교 동기생들이었는데 너무 오래 소 닭 보듯 지내다보니 좋은 친구들이 점점 남남처럼 서먹하게 돼 가는 것이 몹시 안타까워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문득 좋은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새로운 친구도 사귀려고 모두들 애를 쓰는데 옛 좋은 친구들을 버려서야 되겠는가? 라고 이렇게 잊혀져 가는 옛 친구들을 불러 모아보자 그래서 옛 우정을 다시 이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좋은 생각은 바로 실천해야한다. 쇠뿔도 단결에 뽑아야 한다지 않는가 말이다.

바로 다음날 몇몇 친구를 불러 각 마을을 순회하며 동기생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물론 여기 시골엔 당시 차도 없고 전기도 없고 전화도 없던 때여서 낮에는 일하고 주로 밤마다 칠후 같은 밤을 두발로 걸어 열심히 친구들을 찾아다니며 설득하고 설득했다. 옛 친구들을 다시 만나자는데 누구도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

진땀을 흘리며 동분서주 고군분투 한 보람 있어 결과는 대 성공이었다. 68년 여름 우리는 거북산에서 30여 명의 회원이 모여 대망의 첫 창립 총회를 열었다.

이 모임에서 회원 모두의 만장일치로 추대되어 회장을 맡게 되었다.

27회 동창생이니 27친목회라 이름을 정했다.

그로부터 우리는 매년 봄가을 부부동반 전국 관광 및 명승고적 유적지 탐방을 하며 오래 흠어져 서로가 멀고 서먹 했던 우정을 더욱 돈독히 하고 친목과 화합을 다지며 회원들의 가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당시 우리 학교 동기생들의 모임은 우리가 처음시도해서 성공을 거둔 것이다. 그로부터 해를 거듭하면서 다른 선후배들이 하나 둘씩 너도나도 하며 동기생들이 모임을 갖기 시작했다.

천신만고 끝에 소망했던 동기생 모임을 다년간을 책임을 지고 이끌었다.

그 후 90년대 들어 이월초등학교 총동문회장에 선임됐다. 朴憲默 교장 재직 시였다 매년 동문선후배 상호간에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총동문 체육대회를 진행하고 그간 사회에 진출하여 모교의 명예를 빛낸 동문에게 수여되는 자랑스런 동문패를 제정해 첫 대상 선배의 금메달을 선배 동문

인 전 대통령 후보였던 李丙昊씨와 그리고 다음해에는 서울에서 도량형
기 제조 사업을 하시는 林淳元씨에게 증정했다.



耳不聞人之非 目不視人之短 口不言人之過 庶幾君子
可與言而 不言 失人 不可與言而 言 失言
-孔子-

귀로는 남의 그런 소리를 듣지 말고, 눈으로는
남의 단점을 보지 말며,
입으로는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으면, 거의 군자라 할 것이다..
말해야 할 때에 말하지 않으면, 사람을 잃고,
말하지 말아야 할 때에 말을 하면 失言이 되는 것이다.

21. 화랑 산악회(花郎 山岳會)

‘산은 옛 산 이로데 물은 옛 물이 아니 로다. 주야로 흐르니 옛
물이 있을 소냐..’

70년대 들어 연탄이 농촌까지 보급되면서 가정마다 나무를 때는 부엌
아궁이는 연탄아궁이로 바뀌었고 온돌은 연탄보일러로 바뀌었다.

이제 아궁이에 나무를 땔 필요가 없으니 산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푸르러 갔다. 이로써 산 역시 옛 붉은 산이 아니고 삼천리금수강산의 제
모습을 되찾아 푸르게 푸르게 변해갔다.

누가 말 했던가 ‘한나라의 부를 가늠해 보려거든 그 나라의 산을 보라’
했듯이 우리의 강산은 해를 거듭하면서 하루가 다르게 울창한 숲으로 변
해갔다. 나라의 발전 속도도 비례해 커져만 갔다.

공자는 논어에서 이런 말을 했다.

‘지자는 요수하고 인자는 요산하니, 지자는 동하고 인자는
정하니, 지자는 낙하고 인자는 수하니’

知者樂水 仁者樂山 知者動 仁者靜 知者樂 仁者壽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어진사람은 산을 좋아하니, 지혜로운 사람은 동적이고, 어진사람은 고요하여 정적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즐겁게 살고, 어진사람은 장수한다.’

나는 지자이건 인자이건을 떠나서 물 보다는 웬지 선천적으로 산을 좋아하는 편이어서 기회만 되면 산엘 간다. 산은 모든 것을 포용하고 관용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고 예방해 주는 종합병원이기도 하다.

예컨대 몸이 찌뿌듯하고 컨디션이 나쁘다거나, 속이 거북하거나, 소화 에 이상이 있을 때 마을 앞 거북산 이라도 한번 올랐다 내려오면 온몸이 개운하면서 언제 어디가 어땀터냐는 듯 몸이 상쾌해진다. 몸에 열이 있거나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누워있으면 끄끙 앓아야하지만 산에 한번 올랐다 오면 머리가 맑아진다. 나는 어느 아파트를 가든, 어느 고층건물엘 가는 때에도 가끔적 엘리베이터 보다는 걸어 올라간다. 고유가 시대 에나지를 절약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차원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권고하고 싶은 일이다.

인간의 모든 신체적 생리와 아울러 건강 문제는 주기가 있어서 한때 내리막이 있으면 반드시 오르막이 있다. 다소 컨디션이 언짢다고 바로 병원부터 뛰어가기보다는 심신과 리듬을 조절하고 인내력으로 극복하다보면 자연 치유라는 천혜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인체는 자연치유 능력이 반드시 있다.

山行은 외로운 獨行(독행)보다는 衆行(중행)을 권한다. 그래야 안전하고 희희낙락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지역에 衆行(여럿이 함께 행동함) 할 수 있는 산학회의 필요성을 느꼈다.

80년대 중반 추운 겨울을 보내고 활기 넘치는 새봄 산을 좋아하는 요산회원 70여명의 회원가족을 모아 산악회를 조직했다. 이름 하여 ‘민주산악회’라 칭하고 전 회원의 요청에 따라 회장이 됐다.

1년 후 민주란 단어가 정치 냄새가 난다고 해서 ‘花郎山岳會’로 명칭을

바꾸어 30여 년이 흘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매월 일회 23일을 못박아놓고 등산행사를 한다. 오랜 세월 산악회를 이끌어오면서 전국의 크고 작은 유명한 산이나 관광지는 저 북쪽 강원도 설악산에서 부터 남쪽 전남 영암 월출산까지 거의 다 더듬었다. 아니 이 중 삼중으로 거듭해 등산했다. 그중 농지개량조합근무시절 직원들과 처음 설악산 울산바위를 오른 이 후 통산 일곱 번을 올랐다.

장기간 화랑산악회를 이끌어 오면서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협조해주신 여러분 중에도 특히 여성회장 김정식, 총무 안상례, 유옥난 등의 임원들에게 오늘 고마움을 표한다. 그리고 광혜원 안덕근 회장님, 윤정학 회장님, 그리고 김중식 회장님, 덕산에 안연진 여성회장님, 초평에 윤찬근 전 군의원님, 그리고 진천에 민문부 회장님, 박홍순 회장님 등 산악회를 통해서 얻어진 좋은 분들이다.

내가 나후년이면 팔십의 나이를 바라보면서 아직도 건강하게 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것, 또한 산악회 시절 등산으로 다져진 운동 효과가 아닌가 싶다.

노부부가 서로 손을 잡고 땀을 흘리며 산을 오르다 옆에 젊은 남녀들이 희희낙락 깔깔대며 산을 오르는 것을 굽어보며 말했다. ‘너희들 참 좋은 때다.’

노부부가 숨을 헐떡이며 산 정상에 올랐다, 옆에서 쳐다보든 천년 묵은 주목이 노부부를 굽어보며 말했다. ‘너의 들 참 좋은 때다.’

움직일 힘이 있는 한 역시 산은 가까이 하고 자주 오르는 것이 심신단련의 제일가는 건강단련법이라고 권하고 싶다.

나는 최근 캐나다 밴쿠버에 갔을 때 우리 내외 아들 손녀딸과 같이 그라우소 마운틴에 등산했다, 세계 각국에서 온 등산객들이 모두 섞인 형형색색의 그야말로 무지개 인종들이 함께하는 즐겁고, 뜻있고, 재미있는 등산 이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우리 내외가 최고령인 것 같았다. 힘들어 하는 아내의 손을 잡고 정상을 정복 했던 일은 내 인생의 큰 추억거리로 기록되리라.

산을 오르다 보면 숨이 헉헉 턱밑까지 차올라 가슴이 터질 듯 힘든 오르막길도 있지만, 또 가다보면 숨을 고를 수 있는 평지도 나오고, 또 가다

보면 내리막길도 나온다. 그런 반복이 바로 인생길과 비슷한 모습임을 어렵듯이 느끼게 한다. 산은 우리 인생의 스승이요, 어머니 같은 존재임을 부인 할 수 없다. 평생 산을 통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며 살아간다.



知足可樂 務貪卽憂 知足者貧賤亦樂 不知足者富貴亦憂

知足常足 終身不辱 知止常止 終身無恥

-景行錄-

족함을 알면 가히 즐겁고, 힘써 탐하면 근심이 온다.
족함을 아는 자는 빈천해도 또한 즐겁고,
족함을 알지 못하는 자는 부귀해도 또한 근심 하느니라.

족함을 알아서 항상 만족하면 종신토록 욕되지 아니하고,
그칠 때를 알아서 항상 제때에 그치면
종신토록 부끄럼이 없게 된다.

22. 새마을 문고 회장

동문회장을 맡으면서 공적이거나 사적으로 모교를 자주 출입했다.

당시 박헌묵 교장은 초평이 고향이었는데 55년 논산 훈련소에 같이 입대한 군대 동기이고 갑술생 동갑 내기였다. 학교사택에 살면서 같은 조강 회원으로 매일 아침 만나고 휴일이면 등산도 같이 하는 막역한 친구였다.

박 교장은 국화 기르는 취미가 남달라 한해 가을이면 수백 개씩 화분을 재배해서 면내 각 기관에 그리고 친지들에게 국화 화분을 선물로 돌려주곤 했다.

또 그는 전교생에게 ‘일기쓰기’를 권장해서 매일 일기장을 교장실에서 직접 점검하여 잘 된 작품을 시상하기도 했었다. 그렇게 박 교장은 학교 내외적으로 성실하고 자상한 인품의 소유자였다.

하루는 일과가 끝나고 저녁 시간에 차나 한잔 하자며 나를 불렀다. 사모님도 안계셨는데 손수 차를 끓여 내오며 애로사항이 있다고 흥금을 터

놓고 말할만한 대가 신 회장밖에 없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야기속의 문제의 요점은 학교학생들 중에 문제인 비행소년학생이 있어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늘 말썽을 일으켜 교장이나 모든 선생님들도 불려다 이런저런 훈계를 해 보지만 막무가내로 효과를 보지 못해 골치를 앓고 있어 학교를 떠나 제삼자에게 교육을 의뢰 했으면 하는데 신 회장이 마침 청소년 수련활동을 하고 있으니 수고스럽지만 인성교육을 시켜 주었으면 하는 제의를 했다.

교장 선생님의 애로사항에 대한 제의를 받고 당연이 내가 나서서 도와 주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

이들 비행소년들도 다 같은 내 고장의 동문 후배가 아닌가. 더욱이 지금 나는 이 학교 동문회 회장을 맡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당연히 내게도 일부는 책임을 느껴야 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쾌히 승낙하고 다음날부터 내가 일하고 있는 2층 수련 실을 교실로 꾸미고 칠판과 교탁 등은 학교에서 지원했다.

학생들의 인성 교육 교재는 사자소학이 안성맞춤이었다. 그리고 조금은 틀이 잡혀 가면서 명심보감을 가르쳐나갔다.

저 학년의 인성교육 교재로는 ‘사자소학’과 ‘명심보감’이 간단명료하면서도 사람이 살아가면서 행해야 할 일거수일투족 모든 행동 윤리 강령이 설득력 있게 잘 정리 돼있다.

즉 나라에는 충성하고 부모에는 효도하며 동기간엔 우애 있고 친척 간에 서로 돕고 친구 간엔 신의 있고 이웃 간엔 화목하고 어른을 존경하고 어린이를 사랑하고 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길을 안내해주는 어린이 필독서로 꼽힌다.

인성교육을 열의를 다해 가르치고 진행하면서 항시 입버릇처럼 입만 열면 욕이 먼저 튀어나왔던 아이들의 언행부터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고 아이들의 한문 실력 또한 일취월장이었다.

다음으로는 아이들의 정서교육으로 서예를 시작해 익혀가면서 정좌해 앉아 붓을 잡고 침착하게 글씨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며 아이들이 대견스럽고 귀여워 보였다. 물론 이 아이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침착하고 조용해진 않았다. 잠시도 제대로 앉아있지 못하고 정서가 몹시 불안한 상태였다.

몇 개월의 교육효과는 성공이었다. 학교에서나 학부모들은 감탄하며 고마움을 표했다.

어느 날 한참 아이들 교육을 진행하고 있을 때 중학교 정의양교장 선생님이 오셨다. 학생들의 인성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견학을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중학교 학생들도 좀 보살펴달라는 제의를 했다.

그 뒤로 초급반과 중급반을 나누어 수업했다.

교양서적을 읽고 독후감을 쓰게 하고 심사하고 서예를 공들여 정성껏 써서 우수작품을 골라 시상하니 더욱더 열심히 들 했다. 학생들의 많은 독후감 작품 심사를 혼자서 하기가 어려워 당시 군 새마을 문고회장이신 송재섭 회장의 협조를 많이 받았었다. 오늘 다시 한 번 고맙다는 인사를 전한다.

수련활동이 일취월장 잘 나가고 있었다. 군 예산 지원으로 이월중학생들을 관광버스 두 대로 초평 청소년 수련원에 2박 3일 수련활동을 인솔해 갔다.

그때 잊혀 지지 않는 기억이 있다. 마지막 날 밤 캠프 화이어 불꽃놀이가 한창이었는데 하늘 높이 불꽃을 쳐다보고 있던 학생의 눈에 불꽃재가 떨어져 눈을 감싸고 뒹굴며 고통을 호소하고 울고 있었다. 당황한 우리 인솔자들은 밤에 진천병원까지 차에 태워 응급실로 갔었다. 행여 혹시라도 어린 학생이 실명되는 게 아닌가하고 중학교 정의양 교장선생님과 나는 큰 걱정을 했었다. 며칠 후 교장선생님과 같이 궁급해 그 학생 집을 방문했는데 그 학생은 멀쩡하게 뛰놀고 있어 조렸던 가슴을 펼 수 있었다. 행여 그 학부모가 우리를 원망하지나 않을까 하였으나 기우였다. 오히려 공연히 못한 자식 놈 때문에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대문 밖길가 까지 나오며 미안하다는 인사를 했다.

그 후 우리지역 청소년 수련활동은 계속되었고 이월의 문고에도 약 4,500여 권의 도서를 비치하면서 먼단위 지역의 작은 문고로 우뚝 섰다.

그 해 연말 군내 새마을 문고 정기총회에서 송재섭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후임 진천군 새마을 문고회장에 추대되었다.



人雖至愚 責人明 雖有聰明 恕己即昏
 但常以責人之心 責己 恕己之心 恕人即
 不患 不到 聖賢之位也
 -范忠宣公-

사람이 비록 지극히 어리석으나, 남을 책망 하는데는 밝고.
 비록 총명하나, 자기를 용서함은 어두우니, 다만 항상
 남을 책망하는 마음으로 나를 책하고. 나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남을 용서한즉, 성현의 지위에 이르지 못함을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23. 상산축전과 군민대상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혈연이요, 가족이 아닌가 싶다.

아들 삼형제를 두고, 딸 하나만 있었으면 하고 늘 조금은 아쉽기도 했지만 그 시절 정부의 가족계획 정책은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아니 ‘둘도 많다.’였다.

나는 인생 말년에 들면서 내 인생의 자취를 돌아보면 많은 재산은 없어도 자식들 삼형제가 있어 늘 든든하고 행복했고, 반듯하게 자라주어 더 더욱 고마웠다.

‘走馬加鞭(주마가편)’이라 했던 가 달리는 말에도 채찍을 가 한다, 했듯이 세상 살아가며 남에게 폐 끼치지 말고, 봉사하고 베풀며 살기를 입버릇처럼 강조하며 살아왔다.

옛날 성현들의 말씀에도 ‘하루 착한 일을 했다고, 그날 바로 복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로되, 화는 스스로 멀어질 것이요. 하루 악행을 했다 해서 그날 바로 화가 미치는 것은 아니로되, 복은 스스로 멀어질 것이요.’라 했고 ‘착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봄 동산에 풀과 같아서 그 자라는 것이 눈에 잘 보이지 아니하나 날로 자라는 바 있고, 악행을 하는 사람은 칼 가는 숫돌 같아서 그 닳아서 손실되는 것이 눈에 잘 보이지 아니하나 날로

이지러지는 바 있느니라'하였다. 또 말하기를 '나에게 착하게 하는 자에는 물론 착하게 대하지만 나에게 악하게 하는 자에게도 나는 또한 착하게 대하라. 내가 먼저 남에게 악행을 하지 않는 한 남들이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했다.

유사 이래 농촌은 늘 가난했다. 그래 우리는 보리 고개란 단어를 오래 전부터 늘 이고 살았다.

우리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없는 살림에 아이들 학비나 용돈 한번 넉넉히 주지 못한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남들처럼 땀땀하게 하숙 한 번 제대로 시키지 못하고 쪽방이나 지하 단칸방에서 제 손으로 밥을 끓여먹게 했지만 짜증내거나 불평 한번 없이 성실하게 부지런히 공부해서 모두들 살아가기 힘들다는 세상에서 지천명의 나이를 넘기며 거친 세파를 건디어 가고 있다.

옛말에 '말을 물가까지 끌고 갈수는 있으나 물은 역지로 먹일 수 없다'는 속담이 있듯이 부모가 넉넉해서 흥청망청 돈을 대 준다고 공부를 다 잘 하는 것은 아니다. 말에게 물을 역지로 먹일 수 없듯이 본인 스스로 알아서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거늘, 넉넉지 못한 가운데에도 스스로 노력하고 분발해서 큰 아이 원섭은 캐나다로 유학해서 토론토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아 현재 충북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며, 둘째 광섭은 홍익대학교에서 기계공학 박사학위를 받아 모 기업 기술연구소장이며 충주대학교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막내 옥항이는 뜻한 바 있어 자영업 을 하며 열심히 살고 있다.

96년 가을에도 예년과 다름없이 진천군에서는 군민 대화합을 위한 '상산 축전'이 군 종합운동장에서 화려한 막을 열었다.

이 행사장에서 부끄럽게도 김영완 군수로부터 자녀들을 잘 길러 타의 모범이 된다는 '장한 아버지'부문 '군민대상'을 수상했다.

이런 명예로운 일이 있기까지는 자식들이 평소 성실하고 근면한 생활관과 아내의 이바지한 내조의 공이 컸기에 이루어진 결과가 아닌가 싶어 그 공을 아내와 아이들에게 돌리고 싶다. 몇 년 전에는 아내가 대장암 수술을 받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입원 치료를 받았을 때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아내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정신과 육체적

으로 헌신하고 베풀기만 하고 받지는 못하고 살아왔는데 하늘은 왜 이런 사람에게 어려운 고통을 주시는 것일까? 나는 아내가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아들 며느리가 저의들이 수발하겠다고 제의를 물리치고 아내의 병실에서 침식을 같이하며 모든 수발을 정성껏 다 했다. 아내가 평생을 나와 가족을 위해 베풀었던 수고의 백분의 일이라도 보답해야겠다는 일념으로 최선을 다해 간호했다. 그런 보람이 있어 아내의 병세는 빠르게 회복세를 보였고 음력 선달그믐 설 명절이 다가올 무렵 우선 서울 둘째 광섬이네 집으로 퇴원했다.

며칠 후 마침내 새해 설날 아침이 닳아 왔다. 중부인 아내의 건강문제로 나는 평생 처음 조상의 차례를 올리지 못했다

둘째 아들집은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학교 옆이다. 설날 아침 나는 둘째와 함께 관악산으로 등산을 갔다. 눈이 수북이 쌓이고 매서운 칼바람이 몰아치는 설날 아침이었는데 등에 땀이 축축이 날 정도로 강행군을 하며 걷고 또 걸어 마침내 관악산 정상 눈 쌓인 높은 바위 위에 올랐다. 그리고 하늘과 천지신명께 큰 절을 올리고 기도했다. 평생을 우리 가족을 위해 땀 흘리며 고생하다 이제 겨우 한숨을 돌리고 막 재미있게 살려는 아내를 먼 곳으로 먼저 데려가지 마시고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정성을 다해 간청했다.

하느님과 천지신명과 그리고 조상님들께서 긍정으로 받아들여 주셔서 그 후 아내는 일취월장 빠른 속도로 건강이 회복되어 아직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 큰 은혜에 감사하며 열심히 살아간다.

옛 말에 사람은 초년고생은 금을 주고라도 사서 한다 했던가. 말년에 자식들 걱정 근심 없이 제 밥벌이하며 건강하게 살고 있고, 많이 쌓아 놓은 것은 없어도 남에게 아쉬운 소리 안하고 우리 두 내외 산수를 바라보며 건강하게 해로하고 있으니 더 바랄 것 없는 행복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

모두가 조상의 은덕이며 평생을 살면서 남에게 악하게 안하고 살았고 또한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의 덕으로 알며 항상 고마움을 느끼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



時俗人有耳 不自聞其過
千人所指 無病而死
-道德經-

시속 사람들은 귀가 있어도 자기의 허물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천 사람이 손가락질을 하면 병이 없어도 죽게 된다.

24. 넓은 세상 캐나다에 가다

인천 공항에서 캐나다 밴쿠버 공항까지 꼬박 11시간 걸려 도착했다. 바꾸어 말하면 태평양을 횡단하는데 비행시간이 무려 11시간 걸린다는 얘기다. 태평양은 과연 크고도 넓은 바다로구나 하는 느낌을 새삼 떠올리게 한다.

인천공항에서 오후 5시 30분 비행기를 탑승하고 8시에 기내 저녁식사를 했다. 심심풀이 기내 영화 한편을 보고 자정이 가까워 올 무렵 눈을 붙일까 했는데 이게 웬일일까 창밖으로 흰히 먼동이 트고 있는 게 아닌가.

집에서 같으면 한참 쿨쿨 잠을 잘 시간인데 벌써 날이 새다니 태평양 한가운데 일자 변경선을 넘고 있다고 안내양이 귀 뚫었다.

아 참, 지구는 둥글다고 했지, 순간 학교에서 배운 지구 과학 지식이 떠올랐다, 나는 지구가 둥글다는 학설을 이제 실감하는듯했다.

밴쿠버 공항에 내리자마자 입국 수속 절차를 밟는 이동거리를 소형차에 승차 시켜주는 배려는 동방예의지국 못지않은 경로우대에 첫 입국하는 나에게 큰 호감을 주기도 했다.

입국 수속을 마치고 공항을 빠져나오자 아들과 손녀가 마중 나와 대기하고 있었다.

여기 밴쿠버에는 큰아들이 교환교수로 있으면서 집을 장만해서 며느리와 손자들이 그곳에 살고 있어 초청을 받고 우리내외가 같이 간 것이다.

캐나다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다. 서쪽으로 태평양, 동쪽으로 대서양, 북으로는 북극해, 남으로는 미국과 접해있으면서 다양한 자원과

풍부한 산림자원은 세계 유수의 자원 부국이다. 그런 이유에서일까 캐나다의 밴쿠버, 토론토, 캘거리, 몬트리올 등 도시들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손꼽힌다. 백만 개 이상의 호수, 원시림을 방불케 하는 밀림 속 야생동물을 볼 수 있는 국립공원은 그 자체만으로도 돈으로 환산 할 수 없는 천연자원들이다.

제일 먼저 놀랐던 것은 크고 넓은 공원마다 큰 아름드리 측백나무들이 빼곡히 하늘을 찌르고 햇빛을 가려 원시림을 이루고 있어 대낮인데도 초저녁처럼 칙칙했다. 마을 들은 도로를 제외하고는 모두 파란 잔디가 깔려 있어 잔디관리를 시나 구청에서 전담해 깎고 관리한다고 한다.

다음 날부터 아이들의 주선으로 관광을 나섰다.

캐나다 서쪽 밴쿠버에서 동쪽 토론토까지는 비행시간이 네 시간 걸린다.

캐나다 수도 오타와 그리고 몬트리올 토론토 등의 동부지역은 대서양 건너유럽 지역과의 경제교류 관문이어서 큰 금융 무역 등의 경제가 발전한 곳이다.

여기 토론토에 와서 나는 감동 깊게도 내 아들이 공부하고 그리고 학위를 받은 토론토 대학교가 관광 코스로 들어있어 그 학교를 볼 수 있게 된 것이 의외로 감사하고 행복했다. 교문을 들어서니 푸른 잔디 위에서 학생들이 공을 차며 축구를 즐기고 있었다. 운동장 건너 저 안쪽으로 보이는 교사 건물은 담쟁이 넝쿨로 푸른 옷을 입고 있었다. 그 바로 옆에는 토론토 시청과 의회건물이 있었는데 건축방식이 타원형을 이루고 있어 아주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되어 그 주위는 항상 관광객들로 붐비는 곳이었다.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타워는 수백 미터 상공 층에서 밑을 내려다 볼 수 있게 유리로 되어있어 고소공포를 느끼게 했다.

다음 코스로는 ‘나이아가라’ 폭포였다.

우선 그 규모면에서 가위가 눌릴 정도로 웅장했다. 엄청난 양의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는 그 위력은 과연 일생에 한번은 꼭 보아야할 세계적 관광 명소라 할만하다. 어마어마한 폭포는 물보라를 일으키며 항상 쌍무지개가 살아지지 않고 늘 빛을 발했고 웅장한 물 쏟아지는 소리는 지축을 흔들었다.

폭포의 주변 모든 상가들은 폭포에서 부딪쳐 흩어져 나오는 물보라에

항상 소나기가 오고 있었다.

‘나이아가라’ 폭포는 미국과 캐나다 국경지점에 위치해 있는데 미국 쪽에서는 사각지대여서 정면으로 보기가 어려워 육지에서 다리를 바다 쪽으로 길게 놓아 관광객들이 그 다리위에 들어서서 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모든 관광객에게 비닐 우비를 지급해 주고 유람선에 태워 쏟아지는 폭포 바로 밑까지 들어갔다. 폭포의 실체를 오감으로 느끼며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배려해 주었다.

점심시간에 불고기집 식당을 들어갔는데 한인 식당이란다.

어느새 말 빠르게 이런 국제적 큰 관광지에 와 한국 사람이 터전을 잡았을까 생각하니 참으로 경제에 도가 튼 선각자 들 이로우나 생각되었다.

가이드 말에 의하면 이 ‘나이아가라’ 폭포의 이름은 옛날 우리 선조들이 여기에 관광을 와서 처음 이름을 지어 주었다고 한다. 캐나다 사람들이 처음엔 폭포의 이름이 없어 고민했는데, 마침 한국 선비들이 폭포가에 앉아 술잔을 비우며 가는 세월에 나이가 들고 늙는 것이 억울하고 안타까워 큰 소리로 브라보 하며 ‘나이아 가라’ 라고 외쳤는데, 그 쪽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나이아가라’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했다.

일설에 의하면 콜럼버스 역시 미 대륙을 발견해 놓고 마땅한 이름이 없어 짓지 못하고 고민 고민 하다가, 한국에 금강산 도사 작명가를 찾아왔는데 도사가 말하기를, ‘아무러케나 저’ 라고 해서 ‘아메리카’라고 지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우리 내외는 5년 후인 지난해 6월 말, 두 번째 다시 캐나다에 갔다.

이번에는 캐나다 북쪽 ‘로키산맥’으로 여행했다.

7월 초 OK TOUR 관광버스로 우리 내외는 대망의 로키 관광길에 올랐다. 우리가 제일 고령이려니 했는데, 관광버스에 오르니 맨 앞 의자에 백발의 노 신사분이 홀로 앉아있어 같이 앉아 인사를 나누며 많은 젊은 사람들 틈에서 무척 반가웠다. 건네준 명함을 보니 모 대학 퇴직 교수인 서울에 사는 권오균 씨였는데 나보다 두 살이나 위였다. 그는 여행을 큰 취미로 사는 분이어서 지난겨울에도 로키를 다녀갔는데 여름 로키풍경을 보고 싶어 다시 왔다고 했다. 그의 전번 여행 경험을 얘기하며 나의 로키관

광에 많은 도움이 되어 3박 4일간의 여행에 좋은 파트너가 되어 주었다.

로키는 원래 바위산이란 뜻이다. 43명 정원 버스가 아침 8시 30분에 출발했다 가이드는 한국 장호원이 고향이라는 신부장이라 했다.

로키산에는 해발 3,000미터이상의 산봉우리가 33개나 있다고 한다.

바위산과 빙하와 호수들이 어우러진 천하의 절경 로키는 지구가 형성된지 45억 년 이래 자연환경이 세계 제일로 가장 잘 보존되어있는 나라가 캐나다란 말에 감탄했다.

로키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세계 제일의 청정지역이다.

국립공원으로 이동했다. 아름다운 옥빛색깔이 돋보이는 '에메랄드 호수'는 산과 물이 조화를 이루는 영화에서나 봄직한 아름다움이 천하절경 이었다.

다음으로 이동한 곳은 선택 관광으로 되어있는 '만년 빙하'다. 설상차를 이용하는데 성인 52불 우리 돈 약 65,000원이다.

해발 3,750미터 콜롬비아 빙원에서 흘러오는 빙하를 직접 체험하는 로키 관광의 하이라이트다. 바퀴가 성인 체격의 두 배는 뭉직한 어마어마하게 큰 설상차를 타고 만년 빙하를 주행해 올라갔다. 일행들은 이 한여름에 빙하를 밟아보다니 환호했다. 드디어 만년 빙하 어름 벌판 위에 내려져 빙판을 밟았다. 우리는 태극기를 앞에 펼치고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그리고 만 년 전의 무공해 팔각수를 마셔볼 수 있었다. 준비해 간 페트병에 빙수를 한 병 담았다. 우리 한국은 지금 삼복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30도를 웃도는 찌는 듯한 불볕더위인데 우리는 여기 빙하 위에 서있다.

캐나다 첫 번째 국립공원 고색창연한 밴프모 이동 시내관광 100여년 전통의 밴프 스프링스호텔 보우 강 1954년 작품인 '돌아오지 않는 강'의 촬영지 '보우폭' 아름답고 웅장함에 모두들 탄성이 흘렀다.

그날 저녁 식사에서 그날 일정도 끝났고 하니 피로도 풀 겸 술이나 한잔 하자고 권오균 교수와 그간 정겨웠던 분들과 같이 무심결에 소주를 한 병을 청했는데 소주 한 병 값이 자그마치 삼 만원이었다. 나는 그때 '우리나라는 과연 술의 천국'이로구나 하고 느꼈다. 그날 숙소인 호텔은 G-8정상회의가 열렸던 델타텔 호텔에서 3박 4일 꿈같은 여행 일정의 마지막 밤을 보냈다.



우리내외는 저녁식사가 끝나면 가끔 아들, 며느리, 손자들과 태평양 연안을 산책했다.

저녁노을이 붉게 물들은 잔잔한 물결 태평양을 오가는 유람선 그 위로 나는 갈매기 떼들을 보며 홀로 감격에 잠겼다. 우리가 이역만리 태평양을 바라보며 푸른 물에 손을 적시며 아들 며느리 가족과 함께 우리 내외가 산책을 즐기다니 참으로 만감이 교차했다.



恭則不侮 ; 공손한즉 수모를 당하지 않고
寬則得衆 ; 관대 한즉 무리사람을 얻고.
信則人任 ; 신의가 있는즉 남들로부터 맡김을 받고.
敏則有功 ; 민첩한즉 어려운 일을 성취할 수 있고.
惠則使人 ; 은혜로운즉 남들을 부릴 수 있게 된다.
-道德經-

25. 생거진천(生居鎭川) 사거용인(死去龍仁)

일설에 의하면 먼 옛날, 용인 땅에 살던 과객이 아들 하나를 집에 남겨둔 채 진천 땅으로 재가해 와서 아들딸 낳고 알콩달콩 단란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용인 아들이 혼자 살다 보니 외롭고 쓸쓸해 어머니가 보고 싶어 진천에 어머니를 찾아와 어머니를 모시고 가겠노라고 성이 다른 어머니가 낳은 형제들과 옥신각신하며 어머니 쟁탈전이 벌어졌답니다.

진천 아들들이 어머니를 선뜻 내어 주지 않자 급기야 용인 아들은 진천 원님께 어머니를 데리고 갈 수 있게 해 달라며 탄원서를 냈답니다. 그랬더니 진천원님의 탄원서에 대한 판결문이 이렇게 내려졌답니다.

生居鎭川(생거진천)하고 死去龍仁(사거용인)하라.
살아서는 진천에서 거주하고 죽어서는 용인으로 가라.

지금 내가 생각 해봐도 그때 진천원님은 매우 슬기롭고 현명한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 후부터 진천지방에서는 생거진천이란 고사성어가 전해 저 내려오는데 진천은 과연 산 좋고 물 맑고 인심이 후한 고장임에 틀림없는 고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아보니 우순풍조(雨順風調)해서 우리고장에는 큰 가뭄이나 큰 장마가 없다. 악랄하고 무서운 태풍도 진천 땅 만은 할퀴지 않고 조용히 머리 숙이고 암전하게 지나간다.

올여름 장마만 해도 경기 북부지방을 거쳐 서울까지 강타하고 물난리를 일으켜 가옥을 침수시키고 많은 인명 피해까지 발생시키고 남쪽으로 서서히 내려오고 있다는 방송을 듣고 매우 걱정을 했는데 우리 진천에서는 아무런 문제없이 조용히 아니 적절히 비를 뿌리고 남으로 내려가면서 전라도와 경상도 부산지방에서는 또 다시 물난리를 강타하고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내고 지나갔다.

이번 태풍 무이파 역시 제주와 남쪽 지방에서는 가로수가 뽑히고 지붕이 날아가는 등 무서운 위력을 보였지만 우리 지방에서는 숨소리도 크게 내지 않고 언제 왔다 언제 갔는지도 모르게 소리 없이 암전하게 비껴지나갔다. 과연 생거진천이다. 하늘도 아마 양반의 고장을 알아보는가?

가뭄 또한 매년 농사철이면 가뭄 없고 장마 없는 해가 없었지만 우리 진천에는 수리 시설이 전국 어느 지역 못지않게 잘 되어 있어서 가뭄을 극복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우리 지역에는 각 면마다 저수지가 한두 개 씩 설치되어있어 농업용수 공급에 큰 도움을 준다.

이런 천혜의 고장 진천 땅에 태어나서 아무런 탈 없이 건강하게 오늘에 이르고 있어 행운이라고 자부하며 살아간다.



不患位之不尊 患德之不崇

-老子-

지위가 높지 못한 것을 근심하지 말고,

덕이 높지 못한 것을 걱정하라.

可以取 可以不取 取傷廉

-老子-

받을 만도하고 받지 않을 만도한데 받는 것은 청렴을 해친다.
주어도 되고 주지 않아도 될 경우 주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26. 明心寶鑑을 강의하며

내가 어려서 클 때는 증조할아버지를 모시고 열 대여섯 식구 4대가 한 집에 모여 살았다.

그런데 요즘은 그것도 서양 바람이 분 탓인지 결혼만하면 너 나 없이 분가 해 나와 따로따로 핵가족을 이루며 산다. 그러니 주택난이 겹치고 집은 지어도 연일 모자란다. 그런 탓에 할아버지 할머니는 자연 외톨이로 떨어져 살거나 아니면 독거노인이 되기도 한다.

젊은 부부는 맞벌이에 나서면서 출퇴근 시간마다 허둥대며 아이들 가정교육을 돌볼 여유마저 없다. 학교는 학교대로 학생들을 일류학교 명문 학교로 진학시키는 것만이 우선이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인성교육은 뒷전이고 그저 知識教育(지식교육)이 우선순위에 있다.

이렇게 되니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아이들의 인성교육문제는 공중에 떠있어 사각지대여서 지식교육 우선이지 사람 만드는 인성교육이 실종된지 오래다.

그러다 보니 근래 학교의 학원가에서는 웃지 못 할 심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단다.

수업시간에 교사의 정당한 교편 지도에 여학생이 여선생의 머리채를 낚아채는가 하면, 술이 얼근하여 교무실을 들락거리는 학생, 버릇없는 학생을 꾸짖었더니, 한잔한 학부모가 교무실로 쫓아와 자기 자식에게 스트레스 주었다고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 비행학생을 나무랐더니 네가 뭘데 xx 새끼하며 대드는 학생도 있다고 한다.

공부를 앓고 버릇없이 구는 학생을 선생님이 바로잡아 사람 되라고 질책하면 곧바로 112에 전화해서 경찰을 불러 선생님이 학생들 인권 침해한다고 신고한단다.

그러니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공부를 앓고 장난을 치든 낮잠을 꿀꿀 자든 버릇없이 못되게 굴든 학교에서는 오불관언이겠조.

이러니 학생의 인권은 천정에 닿고, 교사의 교권은 행방불명이다. 이리다가 교실 기둥이 뿔히고 천정이 내려앉는 게 아닌 가 심히 염려스럽다.

내가 어려서 클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조식으로 밥상을 대할 때면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드신 후에 수저를 들어야하고, 어른이 식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일어서라. 식사할 때 에는 함부로 떠들거나 판전을 피우지 말고 조용히 푹푹 오래오래 씹어서 삼켜라. 어른 앞에서는 발을 뺀고 앉지 말고 무릎 꿇고 앉아라. 방안에서는 벽이나 가구 등에 몸을 기대앉지 마라. 말을 할 때는 어른의 말씀이 끝난 후에 말을 해라, 어른이 서서 말하면 서서듣고, 어른이 앉아서 말하면 앉아서 들어라. 혹은 밥을 먹는 중에라도 어른이 밖에서 부르시면 밥이 입에 있거든 뱉어내고 곧장 달려 나가라. 집을 나갈 때는 반드시 고하고 돌아와서는 반드시 얼굴은 붉고 인사해라. 학교에서 선생님은 부모와 같이 존경하고 섬겨라.

이렇게 어려서 일상 들어온 얘기들은 머릿속 깊은 곳에 진하게 입력되어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평생 잊혀 지지 않고 아직껏 남아있다.

1994년 동문회 일을 맡아보며 청소년 수련실을 운영할 때 학생들의 인성교육 수업 시간에 학 자모 들이 학생들 수업 듣는 상황을 견학하러 왔었다.

첫 시간 사자소학 들썩시간 명심보감 수업을 모두 듣고 난 어머니들이 명심보감 해설내용을 듣고 이렇게 훌륭한 인성교육 자료가 어디 있겠느냐며 같이 공부를 했으면 했다. 어머니들이 공부를 해서 알아야 집에서 가정교육이 이루어 질수 있다는 논리였다.

그 후 자모들이 서로서로 연락해서 많은 주부들이 몰려들었다. 어머니들은 사자소학이나 명심보감 내용이 너무 마음에 와 닿는다며 진작 공부를 했어야 할 것인데 너무 늦은 것을 한탄하고 만학도의 열의를 유감없이 발휘하며 열심히 공부했다.

속담에 ‘가정보다 더 큰 학교는 없고, 어머니보다 더 큰 스승은 없다’고 했던가. 우선 어머니들이 가정교육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많이 배우고 익혀 많은 교양을 쌓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라도 더 알려고 읽고 쓰고 노력했다.

그 당시, 진천읍에서 꼬마 아이를 한 놈은 업고, 한 놈은 걸리며 두 아

이를 데리고 원거리에서 배우겠다는 일념으로 버스를 타고 통학을 했던 김인자씨 그도 그 중간에 끼여 같이 공부했다. 중간에 아이들 키우고 공부시키는 일 등으로 분주하여 한동안 쉬었다, 요즘 청주 모 대학 국어 국문학을 만학으로 전공하며 또 다시 도서관에 나와 누구보다 열심히 한문학에 열중하고 있다. 그의 해내고야 말겠다는 고집스런 집념과 학구열은 많은 학도들의 단연 모범이 되고도 남는다. 그가 부지런하고 성실함을 주위에서 인정받아 한문반 총무를 맡아 화합된 분위기를 이끌고 있다. 무려 20년이 가까워오는 결코 짧지 않은 인연이다. 역시 ‘지성이면 감천’이란 단어가 여기에도 통할 수 있으리라 우리말의 80% 이상이 한문에서 나온 용어이기에 국문학을 전공하려면 한문학 공부는 많은 도움을 주는 필수 요건이다.

靑出於藍(청출어람)이라 했던가. 그의 영특한 지혜와 국문학으로 쌓여진 지식으로 글을 쓰는 나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 서로 상부상조하고 있다. 참 묘한 인연 인 것 같다.

원래 ‘명심보감’은 고려 충렬왕 때 문신이었던 추적이 저술한 책으로 오늘날 초학자들의 기초한문 공부에는 단연 명심보감이 일순위로 꼽힌다.

이 책에 실린 성현들의 금지옥엽 같은 교훈들은 시대를 초월한 동서와 고금을 막론하고 인간 도덕성 회복이 절실히 요구되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의 忠, 孝, 禮, 義(충효예의)에 교양과 덕망을 쌓아 지식인을 양성하는 마음의 양식이 될 것이며, 한 사람의 인격수련에서부터 가정을 올바르게 이끌고 사회의 중견인물로 키워 주는 修身齊家治國 平天下(수신제가 치국평천하)의 올바른 길잡이가 될 것이다. 누구나 세상을 살아가며 한 번쯤 음미해 볼만한 지침서라 확신한다.

그 후 96년 봄 진천도서관을 자주 출입하던 독서광 김인자 씨의 추천과 당시 김학현 관장님의 배려로 진천도서관 평생교육 한문반 강의를 맡아 진천도서관에서 강의한지도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언 15년의 세월이 흘렀다.



진천도서관에서 한문 강의 모습

98년엔 충청북도 각 시, 군 백여 명의 남녀 강사들이 모인 교육봉사단이 조직 됐다. 이름 하여 ‘금빛 교육봉사단’이다. 회원들은 수시로 청주 중앙도서관에서 많은 연수교육을 받아 교양과 지식을 넓혀 가는데 일조했다.

2006년부터는 진천 노인복지회관 한문 반 한문강의를 맡아 오늘에 이르렀다.

소위 맹자의 ‘君子三樂’(맹자군자삼락)에서 말하는

부모구존은 아니지만 지방에서 훌륭한 분들을 만나 함께 공부하고, 학문을 연구하며,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건강하게 살고 있으니 이게 행복이 아니라.



口舌者 禍患之門 滅身之斧

賢婦令夫貴 佞婦令夫賤

-明心寶鑑-

입과 혀는 화를 부르는 문이요, 몸을 망치는 도끼다.

어진 아내는 남편을 귀하게 만들고,
간악한 아내는 남편을 천하게 만든다.

27. 한문학과 인성교육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했던가.

나는 젊어 평생을 불운하게도 내가 하고 싶었던 취미나 전문 분야를 체험해 보지 못하고 살아왔다.

환갑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평소 하고자 했던 한문강의를 시작하며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지역사회의 선후배들을 위해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원하는 그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게 된 것을 큰 보람으로 느낀다.

그것도 강산이 두 번이나 변해가는 20년의 세월이 다가오는 요즘 내 스스로 감회가 새로워짐을 느낀다. 더욱이 大器晩成(대기만성)의 풍요로운 꿈을 안고 晩時之歎(만시지탄)을 외치며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한 단어 한 글자도 놓칠세라 파고드는 학생들이 있음에 더할 나위 없다.

세월이 흘러도 인간이 살아가는 도리는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 선현들의 남겨 놓은 글들이 오랜 세월이 흐른 오늘날에도 우리의 가슴을 찢히게 울려주며 자타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에 감탄해 마지않는다.

그러나 심히 안타까운 일은 박대통령 시절 ‘한글전용’이 시행되면서 한자문맹만이 아닌 학문문맹, 문화문맹, 지식단절,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이 안타깝다.

학문의 요람이라는 대학에서조차 품격 있고 함축성 있는 단어를 쓰면 학생들이 알아듣지를 못해 우리 고래의 전통과 지식전달이 단절되는 기현상은 어찌면 현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미래가 걱정되는 바 크다.

예컨대, 대학 강단에서 교수가 열심히 강의를 하는 도중 ‘도량형’이란 단어가 나오자 학생들의 표정이 난감한 눈치여서 한자로 ‘度量衡’이라고 칠판에 크게 써주어도 그 뜻을 모르기는 마찬가지여서, 석사과정 15명 학생 중 도량형이란 단어를 제대로 인식하는 학생이 한명도 없었다니, 문명과 지식을 이어가야 할 미래의 나라 기둥이요, 주역들이라면서 문명, 지식을 계승할 젊은이들의 앞날을 내다보며 절망감에 몸에 힘이 빠진다.

도대체 세상만사가 溫故(온고)를 해야 知新(지신)을 할 것이고, 法古(법고)를 해야 創新(창신)이 될 수 있음이거늘, 대오 각성하여 한자공부를

부활해야 마땅할 것이다.

더욱이 동양 삼국이란 韓·中·日의 3국이 千年이 넘는 한자문화권을 공유하면서 13억 중국과, 1억 3천의 일본은 아직도 한자를 공유하면서 21세기를 경제 문화 대국으로 박자를 맞추어 가거늘, 이들 나라와 지적의 생활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는 듯 그들과 소통할 문자를 외면하고 있으니 참으로 우물 안 개구리의 무지이며 고집이 아니고 무엇이라.

역사, 문화, 세계관이 이정도이면서 입으로는 어제도 오늘도, 국제화시대니 다문화시대니 다원화시대니 하며 공염불을 늘어놓고 소란을 떨고 있다.

심히 안타까운 일이다.



默而識之 學而不厭 誨人不倦

- 論語 -

묵묵히 배워 지식을 쌓되,
학문을 하는 사람은 염증을 느껴서는 안 되며,
가르치는 사람은 게을러서는 안 된다.

28. 토끼의 해 신묘년

누가 말 했던가 ‘지는 해는 뜨는 해보다 아름답다’고 나는 살아가는 한 해 한해를 내 인생에 최고의 전성기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 그런 맥락에서 금년이야말로 내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라 말하고 싶다.

금년은太歲(태세)로는 辛卯(신묘)년이고 檀君紀元 4344년 서기로는 2011이다. 辛卯는 六十甲子중 스물여덟째이고 卯는 12지의 子.丑.寅.卯.辰.巳.午.未.申.酉.戌.亥(자.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해)의 제4위이고 방의는 東이고 시간은 오전 5시에서 7시 사이 이며 떠로는 토끼(兎, 토끼 토)의 해이다. 兎자는 토끼가 귀엽게 꼬리를 내리고 앉아있는 모양의 형상을 본뜬 글자이고 卯(토끼 묘)자는 좌우로 활짝 열린 大門 짝을 본뜬 글자이다.

토끼는 우리 인간 정서 속에서 가장 친근하고 사랑스런 동물의 하나이며 자그마하고 귀여운 생김새와 놀란 듯한 표정에서 연약하고 착하고 순박하며 재빠른 움직임에서 영특한 동물로 인식된다.

옛사람들은 밤하늘의 달을 보며 옥토끼가 계수나무 아래에서 不老長生(불로장생)의 不死藥草(불사약초) 방아를 찧고 있다고 여기며 千年萬年平和(천년만년 평화)롭고 豐饒(풍요)롭게 걱정 근심 없이 살고 싶은 이상 세계를 꿈꾸어왔다. 그러므로 토끼는 長壽(장수)의 상징이기도 하였다. 토끼는 또한 靈(영)적 이어서 용궁에서 온 자라의 껌에 빠져 잃어버릴 뻔한 肝(간)을 지키고 용궁의 용왕을 속이는데 성공한 지혜로운 동물이기도 하다. 예로부터 전해오는 토끼에 대한 묘도자성어(卯兔字成語)를 살펴보자.

- 脫兔之勢(탈토지세) : 토끼우리를 탈출한 토끼의 재빠른 기세
- 見兔放狗(견토방구) : 토끼를 발견 후 사냥개를 풀어놓는다는 말로 때를 맞추어 일에 대응함을 이르는 말
- 兔走鳥飛(토주오비) : 세월의 빠름을 이룸, 兎는 月. 鳥는 日을 말함
- 兔死狐悲(토사호비) : 토끼가 죽으니 여우가 슬퍼한다. 같은 처지끼리의 불행을 슬퍼함
- 卯申怨嗔(묘신원진) : 토끼는 원승이를 원망하고 싫어한다. 원승이 빨간 궁둥이가 자기 빨간 눈을 닮아서.
- 兔死狗烹(토사구팽) : 토끼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는 삶아먹는다. 요긴하게 부려 쓰고 매정하게 버린다는 뜻
- 角龜毛兔(각구모토) : 토끼의 빨과 거북의 털이란 뜻으로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을 뜻하는 말

-한글과 한자문화에서-



兒曹 出千言 君聽常不厭 父母 一開口 便道多閑管
 非閑管親掛牽 皓首白頭 多諳練 勸君敬奉老人言 莫教乳口爭長短
 -明心寶鑑-

어린아이들은 천 마디 말을 해도 그대가 항상 듣기 싫어하지 않고

부모는 한번 입을 열면 쓸데없는 참관이 많다고 한다
그것은 참견이 아니라 진히 마음에 걸리고 사랑에 끌려서이니
흰 머리가 되도록 긴 세월에 아는 것이 많으니라
그대에게 권하노니 늙은 사람의 말을 공경히 받들고
젓 냄새나는 입으로 함부로 장단을 다투지 말라.

閑管; 쓸데없는 참견

29. 진천도서관

한나라의 과거를 보러거든 박물관에 가고, 미래를 보러거든 도서관엘
가보라 했다.

진천 상산 초등학교 교정 남쪽 양지바른 언덕위에 3층 건물인 진천도서
관이 아담하게 자리하고 있다. 우리 지역 진천의 문화와 정보의 중심이다.

여기 도서관에 몸담고 인연을 맺은 지도 어언 강산이 한번 변하고도
남으리만치 내게는 따뜻한 온기를 느끼게 하는 정든 고향 같은 곳이다.

어린 초등학생부터 중, 고, 대학생들 그리고 취업준비생까지 다양한 부
류의 독서 고객들로 늘 독서열은 활활 열기가 달아오른다.

儒敎傳統社會(유교전통사회)에서 현대사회로 옮겨오는 과정에서 여성
들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고 많은 일자리가 여성들에게 돌아가고 女權
(여권)이 신장되면서 여성인력 활용이 국가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
는 실정이다 보니 여성이용고객들이 현저하게 눈에 많이 띈다.

대개의 경우 가정 밖에서의 직업전선에서 동분서주하는 아버지, 그리
고 취미 활동이나 맞벌이에 나선 어머니, 이리다보니 가정에서 아이들에
게 역할을 해 주어야할 부모의 자리에 공간이 발생한다.

이런 환경 속에 청소년 범죄 발생 원인이 거의 가정에서 부모의 무관
심 속에 발생하는 예가 허다하다.

더욱이 근간 가정교육권이 어머니에게로 넘겨진 상황에서 어머니들의
가정교육부재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知識敎育 위주로 학교에서 손을 놓고 있는 인성교육은 결국 가정의 몫
이요 어머니의 몫이 된다.

어머니 뒤편 인성교육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아이들의 탈선은 어찌 보면 명약관화한 일이 아닌가도 싶다.

이런 여건아래 先見之明이 있는 현명한 주부들이 여기 진천도서관에 모였다. 鎭川圖書館 平生教育院 漢文班(진천도서관 평생교육원 한문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들은 학문교육을 통한 절차탁마(切磋琢磨)를 몸소 실천하며 어찌면 피보다도 진한 인연의 가족들로 따뜻한 애정이 넘쳐난다.

강의실의 첫 아침 인사는 따끈한 차 한 잔으로 화기에애한 가족분위기가 조성된다.

논어의 첫 학이(學而) 편에서 공자는 이런 말을 했다.

子曰 學而 時習之 不亦悅乎

공자가 말하기를 ‘배우고 그 배운 것을 때때로 복습하면 또한 기쁘지 아니하라’.

有朋自遠方來 不亦樂乎

‘벗들이 있어 먼 곳에서 찾아와 같이 만나면 또한 즐겁지 아니하라’.

人不知而 不慍 不亦 君子乎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노여워하지 않는다면, 또한 군자가 아니라’.

오늘도 3층 한문강의실에는 晚學徒(만학도)이자 제2의 신사임당(申師任堂)후예들의 글 읽는 소리가 낭랑하게 아침공기를 가르다.

수업이 지루하다 싶으면 막간을 이용해 오락반장의 선창에 따라 班歌(반가) 음악으로 흥을 돋운다. 마치 초등학교 음악시간인양 동심으로 돌아간다.

오늘 수업한 강의내용의 일부를 아래에 적어본다. 명심보감 성심편의 한 구절이다.



遠非道之財(원비도지재)하고 戒過度之酒(계과도지주)하며 居必擇鄰(거필택인)하고 交必擇友(교필택우)하며 嫉妬(질투)를 勿起於

心(물기어심)하고

讒言(참언)을 勿宣於口(물선어구)하며 骨肉貧者(골육빈자)를 莫疏(막고)하고

他人富者(타인부자)를 莫厚(막후)하며 克己(극기)는 以勤儉爲先(이근검위선)하고 愛衆(애중)은 以謙和爲首(이겸화위수)하며 常思已往之非(상사이왕지비)하고 每念未來之咎(매년미래지구)하라 若依朕之斯言(약의짐지사언)이면 治家國而可久(치가국이가구)니라.

도리가 아닌 재물을 멀리하고, 과도한 술을 경계하며, 거처할 때는 반드시 이웃을 잘 선택하고, 친구는 가려 사귀고, 질투하는 마음을 마음속에서 일으키지 말며, 남을 헐뜯고 참소하는 말은 입에서 내지 말며, 혈육 간에 빈천한 자를 서이 하게 대하지 말고, 타인부자를 후대 말며, 나를 다스리는 데는 근검을 우선으로 하고, 모든 이를 사랑함은 겸손과 화합을 으뜸으로 하며, 항상 지난 잘못을 뉘우치고, 매양 미래에 허물이 없도록 노력하라, 만약 나의 이 말을 의지하면, 가정과 나라를 다스림에 오래 오래 지속 될 수 있으리라.

진천도서관 한문반에서는 매년 꽃피는 봄과, 가을 단풍철을 맞아 상호 친목을 도모하고 화합을 다지기 위한 연중행사로 산행을 한다.

금년은 10월 26일로 일정을 잡았다. 박영숙 팀장님과 김인자 총무의 주선으로 각자 배낭(背囊)을 메고 아침 10시 도서관을 출발 진천읍 백곡 수녀원에 도착했다. 상강을 지난 가을 날씨는 아침공기가 조금은 쌀랑했지만 유난히도 맑고 화창했다. 삼국통일의 위업을 달성한 김유신 장군은 아버지 만로군 태수 김서현 장군과 어머니 만명 부인과의 사이에서 서기 596년 위대한 영웅이 진천 상계리에서 태어난 것이다. 마을 입구 장군 터라 불리며 지는 곳에 1983년 유허비가 건립되어 우리고장 사적 414호로 지정된 곳이다.

우리 일행은 가톨릭 수녀원 입구에 주차했다. 뒤따르던 차량이 길을 잃고 따라오지 못하고 있어 먼저 온 차들이 되돌아 찾으러 가고 어수선한 사이, 관장님이 우리들의 산행을 격려해 주시기 위해 직원들과 함께 봉성을 한 아름 싸들고 멀리까지 와 주셨다. 우리 모두는 관장님의 따뜻한 배

러에 다 함께 감사 했다. 얼마나 기다렸는지 한참 후에야 뒤쳐진 일행이 숨소리도 거칠게 몰아쉬며 험레벌떡 도착했다. 우리 일행은 수녀원 옆길을 따라 가파른 등산로를 누비며 모처럼의 동심으로 돌아갔다. 중간 중간 쉴 참에 낙엽을 깔고 앉아 막걸리도 한잔씩 나누며 흥에 겨워 노래 소리도 흘러나왔고 사방의 산 계곡은 늦가을의 정취가 한껏 무르익어갔다.

태실은 태령산 정상에 위치해있는 김유신 장군의 태를 묻은 곳이다. 여기가 오늘 우리들의 산행 목적지이다. 일행들은 배낭을 메고 땀을 흘리며 한발 한발 정상을 향해 발걸음을 옮겨갔다. 벌써 이마와 등에서는 땀이 촉촉이 흘렀지만 왁자지껄 떠들며 깔깔대는 소리는 흥겨움이 넘쳐났다. 역시 산행은 함께 즐기는 좋은 동료가 있어야 더욱 흥미 있는 산행이 된다. 한발 한발 걸음을 옮기다보니 정상에 다다랐다. 모두 집결해 심호흡을 하고 짐을 풀었다. 티 없는 하늘은 한없이 높았고 사방의 산들은 색동 카펫을 깔 듯 화려한 단풍으로 절정을 이루었다.

정상에 오른 우리는 숨을 고르고 목청껏 야호를 외쳤다. 오래 묵은 스트레스를 일순에 날리는 듯했다.

정상의 소나무 그늘에 돛자리를 깔고 각자 메고 온 배낭을 열었다. 송편을 비롯한 각종 떡, 빵, 대추, 배, 감, 사과, 찐 밤, 석류, 무화과, 토마토, 치킨, 수육, 맥주, 막걸리, 특히 김철목씨가 가져온 覆盆子술은 진미였고, 임소자씨가 요리해 온 곁절이는 일품이었다.



정상에서 우리는 시 한수를 읊었다

靑山은 나를보고 말없이 살라하고
蒼空은 나를보고 티없이 살라하네
貪慾도 벗어놓고 성냄도 내려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하네
高麗 懶翁禪師



待善人宜寬 待惡人宜嚴 待衆人寬嚴互存
處世讓一步僞高 退步卽 進步的張本

待人寬一分是福利人 實利己的根本

- 老子 -

착한사람을 대할 때는 마땅히 관대해야하고,
악인을 대할 때는 마땅히 엄격해야하며,
일반대중에게는 寬(관)과 嚴(엄)을 함께하라.



처세를 함에는 한 걸음 양보 하는 것이 최고의 수완이다.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은 한 걸음 나아가는 밑천이 된다
사람을 대함에는 관대함이 복이 된다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은 곧 나를 이롭게 하는 근본이 되는것이다.

30. 진천 노인복지관 - 황혼 길에서 만난 정겨운 인연들

온 나라가 몸살을 앓던 왜정 식민지의 나라에서 태어나 처절한 2차 대전의전화 속에서 압박과 설움을 겪으며 기사회생으로 광복을 맞아, 희망의 불빛이 보이게 싶더니, 또다시 닥쳐온 동족상잔의 비극 한국전쟁 6.25의 참화는 실낱같은 희망을 짓밟으며 삼천리강산을 온통 피로 얼룩지게 만들었다.

포화의 불바다 잿더미 속에서 죽느냐, 사느냐를 외치며 아비규환의 피난길을 재촉 했던 그 시절은 차라리 죽느니만 못한 삶을 살아야했다. 조국은 ‘풍전등화’의 혼란 속에 젊은 시절을 일본군으로, 보국대로, 정신대로, 또는 의용군으로, 다시 국군으로 이리저리 한치 앞도 제대로 내다보지 못하는 오리무중의 가시밭길을 헤매다 세상에서 제일 빈국으로 전락한 나라에 살면서 온 몸을 도끼삼아 가족들 부양에 청춘은 시들고 백발이 성성한 그들, 불운의 젊음을 구사일생으로 가난을 숙명처럼 운명이라 여기며 다양한 종류의 직업들을 평생의 업으로 살았던 세대들이 백세를 내다보는 장수시대를 맞아 지금 여기 진천노인복지관에 모였다

사람은 누구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한다. 그

리나 허약하고 병든 몸으로 오래 산다는 것은 축복이기 보다는 오히려 본인이나 가족들이 큰 불행을 겪는다.

또 사람은 누구나 생로병사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래 나이 들어가며 老(노)와 病(병)을 멀리하려는 노력으로 식생활과 건강비결의 노하우를 찾기에 모두들 역량을 기우린다. 반면 백세시대가 눈앞에 다가 왔는데도 이를 반기지 않는 것은 대다수 노인들이 貧苦(빈고) 病苦(병고) 孤苦(고고) 無事故(무사고)에 휘말려 빠져 나오지 못하고 우울하게 노년을 죽지 못해 쓸쓸이 보내고 있는 노인이 많다.

젊어 평생을 가족부양, 자녀 교육, 자녀 혼사 모두 치르고 나니 내 몫으로 남은 것은 극히 작거나 아예 없어 빈털터리가 되기 일쑤다. 그렇게 가난을 숙명처럼 알고 힘겹게 살았던 우리 세대가 지금 21세기를 맞아 2만 불 시대를 살면서 컴퓨터, 스마트폰을 만지며 살아가고 있으니 실로 우리는 초근목피, 보릿고개 등의 크고 작은 굴곡을 겪으며, 많은 변화를 온몸으로 체험하고 격세지감을 느끼면서 말년을 그런대로 행복감에 젖어 살아간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세대들은 아마 단군 이래 가장 호화로운 의식을 누리며, 장수시대를 맞아 살고 있다.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5%로 OECD국가 중 가장 높다고 한다.

시대조류의 변화로 부모 부양의 효사상이 점차 퇴색 돼가는 마당에 노인복지 제도가 牛步(우보) 상태이기 때문이다.

설상가상 나이가 들어가면서 거의 모든 노인들이 고혈압 당뇨 같은 노인 질환을 안고 살아간다. 급격한 신체적 노쇠에다 젊은이들로부터의 소외는 인생 후반에 들어 더없는 마음고생이고 삶의 의미를 잃게 한다.

요즘 방송 매체에서는 심심찮게 ‘노인 학대’란 신조어가 유행처럼 떠돌고 있다. 병들고 노쇠한 것도 억울한데 힘없는 늙은 몸이 학대를 당하다니, 그것도 먼데 사람이 아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학대를 당한다니 말이다. 오늘 아침 신문기사를 보니 2011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이 55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1%를 넘어섰다고 한다.

옛날 고종황제 밀사였던 미국인 헐버트는 이 세상에서 관습적으로 노인복지가 가장 완벽하게 잘 되어있는 나라는 조선이라고 극찬했고, 또 미

국공사를 역임한 바 있는 샌즈의 회고록에도 ‘나는 노년의 행복을 위해 조선 땅에 다시 태어나고 싶다.’라고 해 우리나라를 노인천국으로 극찬했었다.

동방예의지국으로 불렸던 당시 노인 천국의 관습 중 몇 가지를 예를 보자면, 昏定晨省(혼정신성)으로 해가 지면 아들 며느리가 부모님 처소로 가 요와 이불을 깔아 잠자리를 보아드리고, 새벽에 첫 닭이 울면 일찍 일어나 세수하고 부모님 처소로 가 간밤에 평안히 주무셨는지를 문안드리었다. 매년 햇곡식과 햇과일이 처음 나오면 제일 먼저 부모님에게 차려드렸다. 그리고 주부권을 상징하는 광 열쇠와 안방 주거권은 늙어 죽는 날까지 보존했다.

문중에서는 물론이고 마을에 사는 남들까지도 출타하거나 출타에서 귀가하면, 반드시 노인에게 찾아와 인사를 드렸다. 길가다 노인을 만나면 말을 타고 가다가도 반드시 말에서 내려 어른 앞에 서서 어른이 지나갈 때까지 양손을 공손히 모으고 揖(읍)했다. 또 마을에서 잔치나 행사가 있으면 연고가 없더라도 반드시 마을 어른을 초청해 상석에 앉혀 극진히 대접했다.

노부모를 모신 관리들은 나라에서도 배려해서 직장을 고향 가까이 옮겨주었고, 보다 더 늙으면 유급휴가를 주어 노부모를 편히 모시게 했다. 그리고 회갑이 지나면 고을 현감이, 고회가 지나면 감사가, 백수가 되면 임금님이, 춘추를 가려 의복과 杖(장)을 하사하며 잔치를 베풀고 치하했다

그러다가 부모가 세상을 뜨면 영혼만이라도 3년 동안 한집에서 같이 살며 조석으로 살아 있는 식구들과 똑같이 밥상을 받으면서 공생공존했다. 3년이 지난 후라도 매년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제사를 올리니 죽어도 영생하는 것이 된다.

나도 어릴 때 기억이 한겨울 밤 제사가 끝나면 자정이 넘어서도 마을 어른들을 찾아다니며 모시고 와서 제사 음식을 대접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렇게 노인을 우대 하는 나라가 이 지구상 어디에 있었던가, 이러한 노인 천국의 나라가 오늘날 노인 학대란 단어가 흘러 다니고 있다니 한심하기 그지없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여기 진천 노인복지관은 시의 적절하게 노인 일자리창출의 일환으로 노인 학대 예방을 중점사업으로 책정, 관내 각 노인정을 순회하며 노인 학대 사례 홍보물 배포 및 노인들이 가족 또는 이웃들과의 행여 있을지도 모르는 갈등관계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어려운 일을 겪으며 불행한 노후를 보내는 일은 없는지 상담하며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우리고 있다. 나는 김원중 선생님과 함께 이 일을 맡아 지난 봄부터 관내 경로당을 순회 방문하며 노인들과의 근황을 살피고 대화하며 행여 가족과 이웃 간에 불행한 일을 겪는 사례가 없는지 살핀다.

마을 경로당을 순회하다보면 경로당 주인은 대개 할아버지 보다는 할머니들이 주를 이룬다. 거의 남편을 일찍 하늘나라로 보내고 아들 딸 자식들 모두 짝채워 내보내고 고독하게 홀로 남아 쓸쓸한 여생을 살아가시는 분들이다.

홀로 앉아 천정만 쳐다보고 있자니 외로워 갈 데라고는 경로당 밖에 없다. 젊어 평생을 혹사해온 몸은 관절염, 고혈압, 당뇨 등으로 시달린다. 혼자 힘으로 걷지를 못한다. 유모차에 굶은 몸을 의지해 힘겨운 행보로 경로당에 오면 동요들이 매일 같이 모이지만 오락도 취미도 없다. 그저 서로 쳐다보고 몇 마디 대화를 나누면 할 얘기도 밀천이 바닥나 더할 얘기가 없다. 앉았다 허리 아프면 누었다 일어났다 하는 것이 하루 일과의 전부다. 모든 예비 노인들은 한번 쯤 생각해 볼 문제 같다. 어떻게 품위 있고 존경받는 노후를 맞을 것인지를 말이다.

이월의 모 경로당에는 늘 몰골이 헐쭉한 할아버지 노인 혼자서 방을 지킨다.

몇 번 드나들다 사정을 들으니 퇴직금 등으로 마련해 노후대책 자금으로 소중히 간직했던 것을 자식들 사업자금으로 주었더니 사업이 여의치 않아 부도를 내어 모두 날려 맨몸이 되었단다. 그 후로는 자식들도 염치 없어 찾아오지도 않고, 가족도 없이 홀로 남았고 주머니도 비어 외출도 못하고 경로당에서 혼자 쓸쓸히 지낸다. 복지관에 나와 좋은 친구도 사귀고 같이 소일하자며 나오라고 했지만 아직껏 나오지 않고 있다. 이분은

전직이 교장선생님이었다.



그밖에도 가정환경이 불우하여 배움의 기회를 놓치고 인생의 화려한 청춘을 허무하게 어둠속에 묻혀 보내고 노년을 맞은 아직까지도 글을 읽고 쓰지 못해 한평생을 문맹으로 서럽게 살았던 노인들을 위한 문해교육은 평생을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와 밝은 햇빛을 보게 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을 간과하여 복지관에서는 사업의 일환으로 문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나는 몇 년에 걸쳐 광혜원 바들말 광동경로당에서 열세 명 할머니들과 더불어 더울 때나 추울 때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가 죽처럼 드나들며 한글교육을 실시해서 글을 읽고 쓸 수 있도록 했다. 칠, 팔십대의 고령이었지만 배우겠다는 열의가 나로 하여금 게으름을 떨 수 없게 했다. 칠판에 쓴 글씨를 읽고 보고 쓴 다음, 지우고 나서 받아쓰기를 하는 과정에 다소 막히는 부분은 몇 차례 거듭해서 반복해 쓰고 나면 거의 8~90점을 오르내린다. 어쩌다 100점을 맞게 되면 큰소리로 만세를 부르고 필적뿔며 동심으로 돌아가 어린애들처럼 좋아 하신다.

행여 수업이 지루하다 싶으면 흘러간 노래를 열창한다. 마치 유치원 원아들처럼 손뼉을 치며, 흥겨운 노랫가락이 창을 넘어 멀리멀리 메아리 친다.

그 후 할머니들은 시장에 간판들을 막힘없이 읽고 손자들과 편지도 주고받으며 살 수 있어 행복에 젖어 노후를 보낸다.

특히나 맨 앞자리에 95세의 김만석 할머니는 고령임에도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안경 너머로 글을 읽고 쓰시며 노익장을 과시했다. 수업이 끝나면 얼른 일어나 냉장고 문을 열고 술병을 들고 나오시며, 문 열고 나오는 내 소맷자락을 붙잡아 앉히고는 선생님 수고했다며 한잔을 권해주신다. 그 어른은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술 한 잔씩 하시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라고 하신다. 그래서 그런지 그 어른은 겨울에도 좀처럼 감기 몸살을 모르고 사신다.

그런가 하면 슬픈 일도 있었다.

평소 건강이 다소 좋지 않으셨던 김기엽 할머니는 몸이 언짢으시다며 서울 딸네 집으로 치료받으러 가신 후로 우리 바들말 경로당 가족들의 매일 케유를 빌며 완쾌해서 돌아오시기를 기원했지만 안타깝게도 지병이 악화되어 영영 살아 돌아오시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가셨다. 지금 이 글을 쓰며 나는 경건한 마음으로 다시 한 번 그 어른의 명복을 빌며, 남아 계신 경로당 정겨웠던 분들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떠올려본다. 오래도록 아 니 평생 잊혀 지지 않는 보람 있는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 부디 건강하시 고 오래오래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분들과 더불어 관내 어두운 곳에서 남몰래 신음하는 노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재택 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관 들국화 교실에서는 스포츠를 통한 건강부문, 노래와 춤을 통한 예능부문 등 그 밖의 많은 강좌를 열어 노인들의 여가 활동으로 취미와 소질을 키워가며 좋은 벗들을 만나 사귀고 회회낙락하며 인생후반을 즐기고 있다.

특히 내가 강의를 맡고 있는 한문과목의 明心寶鑑(명심보감)은 노년들 에게 젊은 시절 살아왔던 과거를 돌아보고, 옛 성현들의 전해오는 처세와 인생관을 음미해 보며 미래의 여생을 보다 아름답고 보람 있고 즐겁게 가꾸어 갈 수 있는 지혜를 모으는데 공감대를 느끼며 행복감에 젖어 하루하루를 즐거움에 도취한다.

오늘 공부한 대목을 일부 소개해 본다.



景行錄云 人性如水하여. 水一傾卽不可復이요. 性一縱卽不可反이니
制水者는 必以堤防하고. 制性者는 必以禮法이니라.

경행록에 이르기를 사람의 성품이 물과 같아서
물이 한번 기우러지면 가히 돌이킬 수 없고
사람의 성품이 한번 방종하면 돌이키기 어려우니, 물을 제어하려는 자는
반드시 제방을 쌓아야하고, 성품을 제어하려는 자는 반드시

예법 준수함을 배워야할지니라.
 忍一時之忿이면. 免百日之憂라
 한때의 분을 참으면 백날의 근심을 면하느니라



오곡백과가 풍요롭게 익어가는 중추가절인 9월 23일,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는 추분인 오늘, 우리 한문반 가족 일동은 일상에서 벗어나 대자연을 만끽하고, 상호 친목과 화합을 다지기 위한 야외교육 겸 가을 소풍을 떠났다.

정재택 관장님의 따뜻한 배려로 직접 핸들을 잡고 운전해주시는 복지관 차에 오르는 순간 우리 모두는 모처럼 동심으로 돌아갔다. 수정처럼 맑은 가을하늘은 높았고, 빨간 고추잠자리는 하늘 높이 날며 우리 일행을 하늘에서 호위했으며, 도로변 코스모스는 희고, 붉은 얼굴로 하늘하늘 춤추며 길 양 옆에서 우리를 환송해 주었다. 차 안 동료들의 해맑은 표정에서는 금방이라도 한가락 노래 소리가 나올 법도 했지만, 아직은 동요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가슴마다엔 즐거움과 행복감이 넘쳐나는 순간. 드디어 테마공원 중 박물관에 도착했다.

2005년 건립된 여기 鐘 博物館은 우리 傳統文化遺産인 범종에 대한 예술적 가치와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종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건립 되었으며, 종에 대한 소리 체험 및 음향감상 코너와, 관광객이 직접 종 문양 탁본과 타종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다.

공원에 들어서자 오색찬란한 단청으로 새로 건립된 생거진천 종각과 범종은 웅장하고 우아해서 종 박물관의 위상을 한층 드높였다.

도착한 우리는 공원 한편의 亭閣(정각)에 자리를 깔고 짐을 풀었다. 따끈한 국과 함께 배달된 도시락은 진수성찬 이었다. 모처럼 뜻을 같이한 좋은 동료들과의 야외에서 먹는 도시락 맛은 꿀맛이었다. 야외 소풍 식사에 반주가 빠질 수 있겠는가, 조태순 여사가 가방을 열더니 귀한 술 프랑스 와인을 내놓았다. 돌아가며 모조리 한잔씩 부어놓고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며 우렁찬 목소리로 건배를 합창했다. 일배 일배 부일배 몇순배 술잔이 돌아가자 모처럼의 흥이 절정에 이르렀다. 걱정근심 모두 날

러버리고 오늘하루 마음껏 즐겨봅시다.

참고서 산다고, 운동화 사달라고, 돈 달라며 보채는 놈 없고
시집장가 못 보내, 노심조사 걱정되는 놈 없고
상급학교 못 갈까봐 공부하라 성화 델 놈 없고
세상에 어느 사장, 어느 회장, 부럽지 않은 우리들이다.

인생의 황혼 길에서 만난 정겨운 벗들과의 흥금을 터놓고, 속마음을
열어 놓을 수 있는 정겨운 분위기는 그 옛날, 어느 초등학교나, 중 고등
학교 때의 소풍과는 또 다른 의미의 인생후반의 아늑한 삶의 분위기가
감돌아 가을 햇살과 더불어 무르익어갔다.

논어의 첫머리에서 공자는 이런 말을 했다.

‘벗들이 있어 먼 곳에서 와 같이 만나면 또한 즐겁지 아니 하나’

이런 기회가 아니면 만날 수 없었을 귀하신 분들을 복지관 한문반 에
서 만나 인연이 된 것이다.

비록 짧은 시간이긴 했지만 우리는 오래오래 기억될 즐거운 추억을 남
기고 일정을 마무리하며 종각에 올라 우리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
며 힘차게 타종을 했다. 우렁찬 범종소리는 힘차게 그리고 은은하게 멀리
멀리 황금 들뜰에 메아리쳐 갔다.



有福莫享盡 福盡身貧窮 有勢莫使盡 勢盡冤相逢
福劣常自惜 勢劣常自恭 人生驕與侈 有始多無終

-明心寶鑑-

복이 있을 때 다 누리지마라, 복이 다하면 가난하고 궁해지나니,
권세가 있을 때 다 쓰지 마라, 권세가 다하면 원수와 서로 만나게 되나니
복이 있을 때 항상 아끼고, 권세가 있을 때 항상 공손하여라, 인생에
교만함과, 사치스러움은 처음은 화려하지만 종내에는 허무해 지나나니.

31. 背恩忘德

시경에 이런 구절이 있다.

아버지여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여 나를 기르시니 슬프고 슬프도다. 부모여 나를 낳아 기르시느라 애쓰셨도다. 그 깊은 은혜를 갚고자 할진댄 하늘이 극진함이 없도다.

성현들은 또 말했다.

부모는 비록 자식을 사랑하지 아니하나 자식은 가히 효도하지 아니치 못할지니.

전국 1등 때문에 어떤 모자의 비극
엄마는 ‘서울대 법대가라’.
밥도 굶기고 아들 때려 아들은 그만 엄마를...

서울대 법대를 가야한다. 전국 1등을 해야 한다.

아버지가 가출 한 뒤 어머니 박모(51)씨와 함께 살던 고교3학년 지모(18)군은 중학교 때부터 늘 1등만을 강요하는 어머니의 잔소리에 시달렸다. 사내자식은 강인해야한다며 성적이 나쁘면 밥을 굶기고 잠도 재우지 않았고 골프채로 엉덩이를 때리기도 했단다. 어머니가 무서워 성적표를 위조하기도 했다. 끊임없는 잔소리에 시달린 지군은 결국 견디다 못해 패륜을 저질렀다.

지난 3월 13일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했다.

서울 광진 경찰서는 24일 성적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어머니를 칼로 찔러 살해하고 8개월간 시신을 방치한 혐의로 지군을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대입 스트레스를 앓는 모자 갈등이 극단적인 형태로 표출된 것으로 분석했다(조선일보 11.25).

참으로 애처롭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시대상이 빚은 또 하나

의 큰 비극이다. 성적 학벌만을 숭상하는 시대적 병폐에서 온 결과물이 아니겠는가. 대학 입학이 사실상 한 인생을 결정하다 시피 하는 학벌주의 속에 많은 부모가 자녀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과중한 스트레스를 풀 곳이 없는 상황이 학생과 부모간의 갈등을 자아내고 있다. 심지어 서울대학을 나오면 분식집도 잘된다는 웃지 못 할 유행어도 있다. 학벌 보다는 능력위주의. 새 세상을 열어가야 할 것으로 본다.



아프리카 밀림공원에 큰 산불이 나서 호랑이, 사자, 코끼리 등 큰 짐승들이 다투어 밀림을 빠져 도망쳐 나갔는데, 유독 자그마한 박새 한 마리가 남아서 먼 호수까지 날아 오가며, 작은 부리에 물을 물어다 열심히 물을 끄고 있었다.

이 광경을 본 사자가 물었다,

네가 그 작은 입으로 한 방울도 안 되는 물을 물어다 무슨 산불을 끄는데 도움이 되겠는가, 하자 박새가 왠 도움이 되든 안되든 나는 한평생을 이 숲에서 먹고 자고 턱을 입고 자랐다,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겠기에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32. 팔월 한가위

辛卯년 중추가절 팔월 한가위다.

옛 어른들 말씀 마따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팔월한가위만 같아라’ 했던 그야말로 좋은 계절이다. 온 들판엔 누렇게 익어가는 벼들이 황금물결을 이루어 넘실대고 온갖 과일들이 붉은색으로 알알이 영글어가는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른 풍요로운 계절이다.

늘 그랬듯이 올해도 광명에서 둘째 광섭이네가 추석 전날저녁에 대학생이 된 손녀 선화 그리고 중3 민경이와 네 식구가 제일먼저 도착했다. 특히 올 추석에는 캐나다에서 만며느리가 어려운 걸음으로 추석차례에 참석했다. 캐나다에서 대학을 다니는 장손 재성이와 올해 대학에 입학한 재은이가 오지 못한 게 좀 아쉬웠지만 원래 지구 저편 원거리에서의 귀

국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님을 이해해야했다. 막내 옥항이 내외도 고3 지연
이와 함께 도착했다. 지연이 손녀는 대학입시 준비생이여서 공부하느라
헬쓱해진 모습이 안쓰러웠다.

이렇게 3형제 가족들이 모두 모여 떠들썩하니 한가위 분위기가 무르익
어 간다. 추석연휴를 맞아 일상의 일과를 잠시 멈추고 오랜만에 모두 한
자리에 모여 앉아 오순도순 그간의 힘겹게, 또는 즐겁게 살아왔던 이야기
들로 꽃을 피우며 온가족이 희희낙락 송편 빛는 모습이 단란했다. 두 식
구만의 조용했던 가정이 모처럼 떠들썩하니 ‘家和萬事成(가화만사성)’이라
했던가.

추석날 아침 대청마루 가득히 제원들이 조상들 차례상 앞에 경건한 마
음으로 늘어서 정성을 다해 추모의 예를 올렸다. 차례 상 넘어 마주앉아
계신 조상님들이 흐뭇한 모습으로 자손들을 굽어보시며 그놈들 참 기특
하고 대견스럽구나 하시며 빙그레 웃으신다.

차레란 원래 옛 부터 햇곡식과 햇과일이 처음 나오면 어른들께 먼저
드시게 했던 전통과 미풍양속 경로효친 사상의 연장으로 事死如事生(사
사여사생)이라. 죽은 이 섬기기를 산이 섬기듯 하라는 선현들의 교훈에
따른 것이다. 아무리 시대조류가 어떻든 종교의식이 어떻든 우리 단군의
후예들은 이 미풍양속을 길이 이어 나가야 할 것이다.

옛 선현들이 남겨놓은 말씀 중에

人倫之中에 忠孝爲本이니 孝當竭力하고 忠卽盡命이라
追遠報本하여 祭卽必誠하라 非有先祖면 我身葛生이리오
인간 윤리 중에 충효가 근본이니 마땅히 힘을 다해 효도하고
목숨을 바쳐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라
멀리가신 조상을 추모하고, 나를 세상에 있게 해주신
근본인 조상에 보답하여, 제사는 반드시 정성을 다해라
만일 선조가 없었다면 내 몸이 어디서 태어날 수 있었겠는가.
제사 역시 효의 연장인 것이다.
만일 선조의 제사를 소홀히 한다면 금수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는가.



君子는 義를 앞세우고 小人은 利를 앞세운다.

고로 군자는 의로움에 목숨을 걸고

소인을 매사에 이익을 위해 투쟁한다.

고로 군자의 교제는 담백하기가 물과 같고

소인의 교제는 달콤하기가 단술과 같으니

물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고

단술은 삼일만 지나도 그 맛이 변한다.

33. 성묘

수백 년 유구한 세월을 여러 곳으로 흩어져 산재해 이산(離散)되었던 직계조상의 묘를 2006년 9월 윤달이 드는 해를 맞아 이곳 명승길지(名勝吉地)를 찾아 한곳으로 천묘(遷墓)해 모셨다. 혈연(血緣)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한곳에 모여 지내게 하는 것이 고적의 한을 씻고 영세토록 극락광영(極樂光榮)을 기리 누리시며 안면(安眠)할 수 있기 때문이라 생각 되었다.

여기 새롭게 모셔진 어른은 나의 8대조이신 중시조어른으로 고려 개국 원훈 공신이시며 고려태사 장절공 시조로부터 27세손이시다. 숙종41년 1715년생으로 의금부 관 도사를 역임하신 大자 후자 어른이시며 나는 이 어른의 9대중손이다. 이 어른 묘를 위시한 예하 선대조 묘를 집성 공원화 했다.

오늘 차례를 올렸던 많은 자손들이 모두 조상을 찾아 엄숙한 마음으로 성묘를 했다. 아내와 같이 월여 전에 별초를 한 묘역은 오늘따라 단아하고 말끔했다.

성묘를 마치고 하산 길에 조상들의 묘를 다시 한 번 뒤돌아보았다. 나아가 들어가며 인생의 무상함을 새삼 느끼게 한다. 인간이 나고, 살고, 죽음의 문제들은 명확한 해답을 찾지 못하겠지만 그저 자연에서 나서 자연에서 살다가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평범한 진리만으로 살아갈 뿐이다. 유사 이래 죽음 앞에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고 예외가 없다. 엇그제 세상을 뜬 지구촌의 천재 과학자 스티브 잡스도 숙명적인 죽음 앞에는 동일했으니 말이다.

태어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살아간다는 것을 뒤집어보면 죽음으로 차츰 다가간다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팔월 한가위 추석날 아침 밝은 햇살이 유난히 선명하게 묘역을 무지개 빛으로 영롱하게 비추었다.



靑草 옥어진 골에 자는듯 누웠는다.

紅顏은 어디 두고 白骨만 물렸는다.

蠶 잡아 勸할 이 없으니 그를 슬퍼하노라.

-靑丘永言-

34. 마무리 하며

누가 말 했던가 초로 같은 인생이라고. 숨 가쁘게 달려왔던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는 의미 있는 기회였다. 회고해보면 남들처럼 부귀와 영화도, 벼슬과 권력도 없었다.

그렇다고 깊은 나락으로 곤두박질치는 굴곡을 겪으며 눈물 겨워 살아온 적도 없었던, 지극히 평범하고 무난한 평생을 살아온 것 같다.

모두가 조상님들의 陰德과, 좋은 이웃, 그리고 고마운 친구가 있어 어려울 때마다 부추김을 받고 ‘切磋琢磨’하며 인생의 끝자락을 大過없이 마무리하고 행복감을 느끼며 살고 있어 가족과 이웃과 친지들, 모든 분들께 감사할 뿐이다.

생각해보면 어린 시절, 큰 전쟁을 두 번씩 겪으며 ‘生不如死’(생불여사)라 차라리 죽음만도 못한 삶을 살았지만 ‘人命在天’(인명재천)이라, 살아남아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2만 불 시대를 열어가는 21세기 첨단 과학문명시대를 살아간다는 긍지를 가지고 컴퓨터 키보드를 두드리며 이 글을 쓰는 나는 행복감에 젖는다.

나름대로 내가 가진 작은 학문이나마 나누며 살고 있는 지금 더없는 보람으로 느끼고 夜靜省去日(밤이면 고요히 지난날을 반성하고) 晨興謝日新(새벽이면 일어나 새날을 맞게 된 것)을 감사하며 살아간다.

【著者紹介】



著者 松鶴 申東仁 선생의 근영

甲戌年, 1934. 12. 28生(戶籍 35.3.25)

忠北 鎮川郡 梨月面 新溪里에서 出生

鎮川.淸州地域에서 修學

陸軍에서服務 滿期除隊

鎮川 梨月 松林里 鶴洞마을里長 歷任

鎮川農地改良組合 勤務

梨月初等學校 總同門會長 歷任

梨月初等學校 運營委員 歷任

새마을文庫中央會 鎮川郡支部會長 歷任

人間性恢復運動 鎮川郡支部會長 歷任

忠淸北道 금빛教育奉仕團

鎮川圖書館 平生教育 漢文學講師 現

鎮川老人福祉館 漢文教育講師 現

鎮川鄉校 掌儀

全國漢子教育 推進聯合會 指導委員

★ 賞罰事項

內務部長官 感謝狀

忠淸北道知事 表彰

鎮川郡民 大賞

鎮川郡守 表彰